

MAXIM

www.maximkorea.net

Big Bang Theory's KALEY CUOCO

Penny, Penny, Penny!

우주에서
MAXIM 과 가장
잘 어울리는 남자
안성기

그룹 시크릿



아이폰 케이스
미드 수사 기관의 정체
사회초년생들에게 꼭 필요한
아부의 지혜
코스프레걸
야구 동영상 보는 법

2010 WORLD CUP PREVIEW

주목해야할 선수
축구해설자 3인방의 수다
남아공 가는 길

YAMMY YAMMY
CHICKEN JELLY

SUPER CARS
MLB STAR
TIM LINCCEUM

MICHAEL
DOUGLAS
USHER

2010 S/S HOT
ELDERLY FASHION



9 772093 422007
ISSN 2093-422X





KENZO

ZIOZIA

ANDZ
HOMME

Z by ZIOZIA

De Santis Dali milan







CHRIS. CHRISTY



Features

MAY 2010

Kaley CUOCO

미드 빅뱅 이론은 전 세계 잔골 오덕을 열광시켰다. 칼리 쿠오코가 한줄기 희망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페니! 페니! 페니!

2010 WORLD CUP PREVIEW

월드컵 특수를 병행하던 누리꾼 및 네티즌 MVM이 신병을 냈다.

MOST WANTED

→ HELENA MATTSSON

MVM은 아이언맨을 기릴까? 헬레나 매트슨의 매력에 공감했다.

CAPTAIN MARVEL

→ JON FAVREAU

아이언맨을 날게 하고 아이언맨이 당장 난쟁이처럼 게 만들어준 장본인인 존 파브로 감독을 만나서도 대체 당선이 맞는지 뭐고 확했다.

RISE OF MACHINES

인디 500 챔피언의 승리가 상승기다.

다음 장에 어떤 거 해내면 있었어야?

SPORTS

→ BATS OUT OF HELL

테고부자의 새내기 막을 내렸다.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 팀 린스컴과 보지선별로 뽑은 판타지 속 선수 라인업을 만나볼 최정치의 가다.

ICON → 안성기

안성기를 만났다. '좀 어만 찡자' 이후에 걱정하던 그에게 우연 '잡지도 역시 MVM' 이라고 우겼다.

ICON → MICHAEL DOUGLAS

배우 마이클 도글러스를 웨스트리프에서 다시 만났다. 22년 만이다. 그 때보다 양당이 좀 처졌다. 만 그의 레피노는 여전히.

HOW TO → KISS ASS

전문가에게 배우는 이후 2대로 하는 법이다. 어디까지 해볼까?



Departments

무엇과도 달라도 1년간의 한 Beasadonna
 레드 특급이 제일 1년간의 한
 LUCKY GOLD FISH by MOSAIC
 달래 리본 달래 1599에 한 W. PLANET
 골든 반글 100만 한 HR
 달래 스키트 1599만 한 TOP GIRL
 달래 제니오르 가라 1599 Beasadonna

시크릿

수줍어하던 소녀는 어느새 우리 가슴을 뒤흔들 만큼 올바른 모습으로 다가 왔다. 비밀이라면 소근대는 4명의 아이들을 어떤 나뉠라 할 수 있었는가. 그녀들은 너무 상큼했다. 상큼한 레몬같이.

RATED

아이언맨과 그의 강철 슈트, 아이언맨의 압도적 강세가 예상됐어도 불구하고 기대이상은 흥감한 신작 영화 FFA 200. 이서 왓 이서 노래로 온 흥 베틀는 영과 누나들, 미드와 등장하는 수시간의 장막 < 아이언맨의 눈물을 만든 강연장 FFA와 나는 본격 영화 걸지도 않. 최능력 동선 열망의 흥들인 손호영의 첫 뮤지컬 <44>

STUFF

안드레아니로 가버린 시계, 아이온케이스, 야구 동영상 보는 법을 위해 비자를 달래까지 내한 수습 에코의 눈물, 걸려왔던 외장하드, 코스프레하는 처자 Haribo에게 배우는 코스프레 용어

CIRCUS MAXIMUS

속여주는 동물원, 어리석들의 200 S/S 패션, 똘에 똘고 보기도 좋은 50여의 정리, 인간애(愛)처럼 사친 친구, 어린이들이 붙은 5월을 맞아 이휘재(이휘재)들의 전록 시간을 보면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것에 스스로 속해를 들기 돈 없어서 결혼을 못한거라면 똘 똘해서 온 오오기, Eyal the Captain, 이 기사들은 해외 MMA가 처자들이 응원한다.

LOVE

첫,
 똘똘지 처음이 중요하다.

LAST PAGE

연립우기, 그리고,



MAXIM INSIDE

빠들 새로 맞추고 새 감질을 입었다.

그 길에 피도 같고 근육도 바꿨다.

당신의 오월이 환골탈태한 MAXIM 덕분에 즐겁고 따뜻하길 바란다.

2010년 5월 MAXIM 편집부

CONTRIBUTORS

"집지장이치고 나중에 집지 갖다준 사람 못 봤다!" 며 나를 의심한 남대문 수입상이 더블루 사장님.

에디터 권기영

일러스트레이터 제이름, 고갑다. 네 일러스트가 내 글을 살렸다.

에디터 김상현

메이크업 아티스트 고영은. 나한테 죽발 사줬다. 사람에게 빠졌다.

에디터 이영미

에디터인 나에게 일러스트를 그리라고 다그치며 욕을 하던, 그래서 내 새로운 재능을 발견해준 고마운 선배 에디터.

에디터 임기환

나를 모델로 데뷔시키고 허벅지를 더 과감하게 드러내라고 주문한 김명석 포토그래퍼 소장님.

에디터 박성우

2010 S/S 스트리트 룩을 선보이며 멋진 포즈를 잡아준 종로 근처 패션 피플 어르신들.

에디터 김희성, 김민혜

시크릿. 상큼하잖아.

에디터 고경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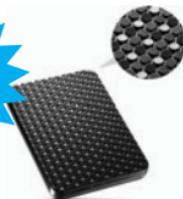
누가 컷민배경에 있는 이미지) 따서 주는 사람.

디자이너 장성만

잠 쫓는 드링크크레. 아(VA).

디자이너 정지원

WANTED



경천동지할 비밀을 공개하고 싶은데, 하고픈 말이 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나? 인자하기론 부채님 핼 퍼 먹는 MAXIM이 모두 받아주겠다. 사연, 유머, 편지, 선물, 워든, 종대(착불 사절). 우리는 다 받아준다. 색사한 여성 독자라면 MAXIM 편집부 방문 접수 대환영이다. 이미 선물은 당신 것이다! 눈꺼풀이 백만 번 감길 지루한 내용이라도 편집부 손에 들어온 이상 (막내가) 끝까지 읽어준다. 매일 독자 편지 코너에 사연이 뽑힌 이중 2명을 골라 삼성 친환경 외장하드 G2 포터블을 선물로 제공한다.

응모 방법

우편 접수

(121-8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6-36번지

MAXIM 코리아 빌딩 4층 편집부

이메일 접수

reader@maximkorea.net

BIRTHDAY CARDS



'MAXIM' 창간을 축하합니다.
잠지도 역시 'MAXIM'!!

02

2010. 5.

MAXIM

INTERNATIONAL



CHIEF EXECUTIVE OFFICER **PAUL MILLER**
GENERAL COUNSEL **DAVID SIMCOX**
INTERNATIONAL LICENSING DIRECTOR **MARIANNA GAPANOVICH**

MAXIM UNITED STATES DENNIS PUBLISHING INC.

1040 Avenue of the Americas, New York, NY 10018

EDITOR IN CHIEF **JOE LEVY**

-  **US HISPANIC** Dominican Republic
-  **UNITED KINGDOM** Ireland, Australia, New Zealand
-  **FRANCE** Belgium, Switzerland, Quebec
-  **GERMANY** Austria, Switzerland, Lichtenstein
- CENTRAL AMERICA** Guatemala, Honduras, El Salvador, Nicaragua, Costa Rica, Panama
-  **CHINA** United States, Hong Kong, Taiwan, Singapore, Malaysia, Australia, Canada
-  **CZECH** Slovakia
-  **SERBIA** Montenegro, Bosnia, Herzogovina, Fyrom
-  **TURKEY** Cyprus
-  **ITALY**
-  **PORTUGAL**
-  **BULGARIA**
-  **SLOVENIA**
-  **ROMANIA**
-  **GREECE**
-  **KOREA**
-  **ARGENTINA**
-  **BRAZIL**
-  **VENEZUELA**
-  **MEXICO**
-  **PUERTO RICO**
-  **COLUMBIA**
-  **CHILE**
-  **ECUADOR**
-  **RUSSIA**
-  **UKRAINE**
-  **THAILAND**
-  **INDIA**
-  **INDONESIA**
-  **PHILIPPINES**

국가별 담당자 연락처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maximkorea.net

SOUTH KOREA

MAXIM

발행인/ 편집인
대표이사 이혜성

전무이사 김경선
이사 양지웅
이사 원혜진
이사 소상혁

FEATURE EDITORIAL Team

EDITOR

권가영 sarah@maximkorea.net, 김민혜 ny@maximkorea.net, 김성현 psycho@maximkorea.net, 김희성 alice@maximkorea.net
박상우 daydreamer@maximkorea.net, 이영미 yb@maximkorea.net, 임기환 soccerholi@maximkorea.net

FASHION EDITORIAL Team

EDITOR

고경희 koko@maximkorea.net, 권해진 jn@maximkorea.net
석민정 MJ@maximkorea.net, 조창진 JJ@maximkorea.net

EDITORIAL DESIGN Team

DESIGNER

권세연 cool@maximkorea.net, 장성민 ssung_ma@maximkorea.net
장지원 dolidol@maximkorea.net, 하승민 design@maximkorea.net

STRATEGIC PLANNING Team

STRATEGIC PLANNING Director 소상혁 so@maximkorea.net

ADVERTISING Manager 김진욱 14k@maximkorea.net, 박해진 maxxin@maximkorea.net, 홍승외 soulmate@maximkorea.net
STRATEGIC PLANNING Manager 진우빈 wozbi@maximkorea.net FINANCE PLANNING Manager 최인영 joy@maximkorea.net
CREATIVE PLANNING Manager 유승민 sm@maximkorea.net MARKETING PLANNING Manager 김중국 jr@maximkorea.net

교열

신선경 kshn0111@daum.net

WEB SERVICE

도움

IT Director 서정민 creiss@town.com

PHOTOGRAPHY

STYLE IMPACT STUDIO

PHOTOGRAPHER 정가유, 김영익, 백을 Assistant PHOTOGRAPHER 김도훈

FILM MAKING

Director 김택현 Assistant 이정훈

FINANCIAL CONSULTANT

승강회계법인

Accountant 김홍락 Consultant 김희영

인쇄 · 원색분해

인쇄인 유성근 ㈜상화인쇄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37-10

DISTRIBUTION

승주 출판유통

발행처 ㈜999미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1~4층,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439-6 기동 자중 /
TEL. 02-323-1182 / FAX. 02-6465-0993 / 2010년 5월호 통권 제호 / 등록일자 2009년 2월 30일 / 등록번호 마로 라-0096 /
본지는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심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광고 문의 070-4010-9041, 9043, 9044

구독 문의 02-323-1182

www.maximkorea.net

South Korea MAXIM은 세계 3개국 편집부에서 발행하고 56개국에서 판매하는 글로벌 남성 월간지 MAXIM의 공식 한국어판입니다.
MAXIM 상표의 소유자인 미국의 알파미디어 그룹은 2009년 11월 29일까지, 대한민국에 (RY Media)에 독점적 상표 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RY Media는 대한민국 내에서 유일한 라이선스 계약자이며, MAXIM의 한국어판을 출판, 배포, 판매하고 웹사이트를 운영할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알파미디어 그룹과 (RY Media)에 30여 개월 계약해지 MAXIM의 트레이드 마크와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RY Media)에 귀속되므로 허락 없이 옮겨 쓸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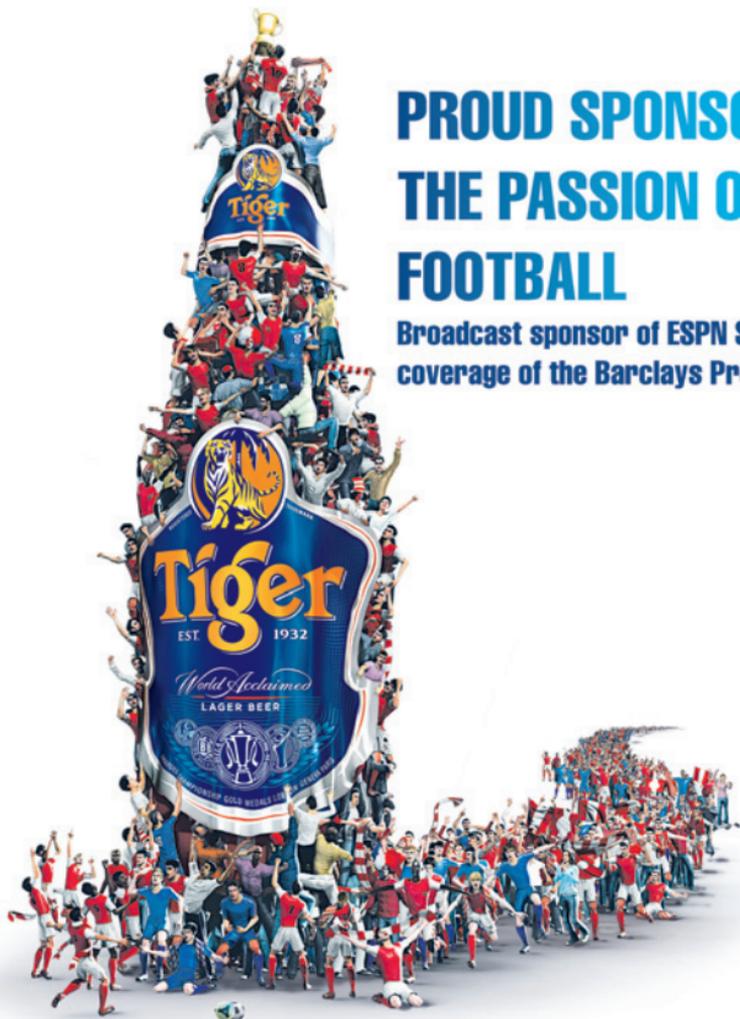
copyright©2007 Dennis Publishing Inc.

MAXIM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ALPHA MEDIA GROUP Inc., the owner of the Dennis Publishing Inc. MAXIM is a monthly published by Dennis Publishing Inc. On Nov 21st 2009, Y Media Inc(Korea) contracted exclusive license agreement of MAXIM magazine, a world famous men's magazine. Y Media Inc is the sole MAXIM licensee in South Korea and has an exclusive license right to publish, distribute, and sell a monthly Korea-language MAXIM magazine. No party but Alpha Media Group Inc. and Y Media Inc. is permitted to use the MAXIM trademarks or the MAXIM logos in Korea



PROUD SPONSOR OF THE PASSION OF FOOTBALL

Broadcast sponsor of ESPN STAR Sports
coverage of the Barclays Premier League



ESPN



Broadcast sponsor of ESPN STAR Sports
coverage of the Barclays Premier League



Tiger ENJOY WINNING

스마트 폰에서 만나는 MAXIM

독자한테 더 많이 주고 싶어서 준비했다.



무엇에 쓰는 그림이고?

MAXIM은 독자를 사랑한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150 쪽에 담기엔 너무 적은 분량이다! 마침내 방법을 찾았다. QRoo QRoo!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MAXIM 잡지에 미처 담지 못한 많은 이야기가 펼쳐진다. 동영상, 사진, 웹사이트, 지도, 글 등의 다양한 형식을 지원한다. 세상 참 좋아졌다.

QR 코드 즐기기

1. 스마트폰만 된다. 없으면 빌려라.
2. 앱스토어에서 QRoo QRoo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한다. 무료다.
3. 실행하라.
4. QRcode Scan 메뉴를 터치한다.
5. 카메라를 QR 코드에 들이대라. QR 코드 전체가 화면에 담겨야 한다.
6. 스마트폰 화면이 자동으로 바뀌는가? 참 좋겠다!
7. 앞으로 MAXIM 잡지를 보다 QR 코드를 발견하면 스마트폰을 꺼내 QRoo QRoo한다.
8. 댓글도 달 수 있다. 악성 댓글은 반사, 총!
9. 당신이 본 QRoo QRoo는 히스토리에 저장되어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다. 관리 잘 하자.

연극연극? 네 번째 작품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by Tennessee Williams

2010
03-19
05-23

화, 수, 목, 금 8시 | 토, 일, 공휴일 3, 7시 | 할인

동송아트센터
동송홀

배종옥 이지하 이석준 이승비

원작_테네시 윌리엄스 (Tennessee Williams) 번역·연출_문심화 출연_배종옥/이승비, 이석준/박해수, 이지하, 오민석, 유안, 한철훈, 김성, 이현균 문의_02)766-6007

예매_인터파크 1544-1555 맥스티켓 1544-0113

연극 열광자
24시간 24시간

www.thebestplay.co.kr

제작_연극

제작지원_

인터파크 INT

협찬_KB

국민은행



OD Musical Company & CJ Entertainment Present

M 제 1회 더 뮤지컬 어워즈 최우수 외국뮤지컬상 수상

당신을 사랑에 빠지게 할
마법 같은 러브스토리!

Shook UP

뮤지컬 **올속업**

Inspired By and Featuring the Songs of

Elvis Presley®

Book by JOE DIPIETRO



손호영 주연, 최강 캐스팅으로 돌아온 3번째 시즌!

2010. 3. 27 - 6. 20 한전아트센터 문의 1588-5212

연출·안무 | 데이비드스완 출연 | 손호영 송용진 김보강 유공주 박은미 김성기 이정미 이영미 정상훈 백민정 구원영 정원영 난아 왕브리타 이흥성 김현숙 외

RATED

YOUR ULTIMATE ENTERTAINMENT GUIDE



→ BEHIND STORY

스칼렛 요한슨은 블랙 위드 역을 맡고 싶어서 머리를 빨강색 염색하는 정성을 보였다.

에일리 블린튼이 이 역의 캐스팅 명단에 어울리냐 (글리버 여행기 촬영 스케줄 때문에 출연하지 못했다. 아, 에일리한테 미안하지만 스칼렛 요한슨을 떠올리니 진심으로 천천다행이다.

스칼렛 요한슨이 캐스팅되기 전 에일리 블린튼을 포함해 제사가 비열, 갱나 이터른, 나폴리 워드만, 제사가 알바, 안젤라 나 출연 등이 풀랑에 올랐다.

토니 스타크의 비즈니스 라이벌 잭스틴 햄머(Alan Hammer) 역으로 알 파치노가 풀랑에 올랐으나 최종 배역은 샘 록웰에게 돌아갔다. 나이 탓이었지 쯤.

OST를 맡은 작곡가 존 덴너는 모든 곡을 4일 만에 창조했다. 당시에도 마깝 스트레소가 스스로를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드는 데만 90% 우리 회사로 전화하러.

IRONMAN 2

파티는 격하게, 세계 평화는 더 격하게! BY 이영비

개봉일 4월 29일

감독 존 파브로

출연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스칼렛 요한슨, 미키 루크, 귀네스 펠트로



일평생 단 1초도 겸손할 필요 없는 부자 허어로 토니 스타크(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는 이들이 나타났다. 아이언 맨 슈트의 관한 기술 개발에 성공한 채찍맨 위플래시(미키 루크)가 토니 스타크의 자동차를 두 통강 내고, 색시한 블랙 위드(스칼렛 요한슨)가 청룡같은 토니의 마음을 흔들고 용접을 시도한다. 올해 최고의 기대를 받는 블록버스터답게 스칼렛 요한슨, 귀네스 펠트로, 미키 루크, 새뮤얼 잭슨 등 장영한 배우가 등장한다. 여기서 온통 호랑이

만 있는 정글에서 영화가 제대로 나올지 의문이 생긴다. 하지만 주인공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모두 기대치가 높아서 제대로 된 화면이 나올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했다"며 관객을 안심시킨다. 그러거나 말거나 아이언 맨이 신상 하이테크 슈트로 업그레이드하고 핑거를 폭파하고 깨부수고 남는 시간에 여자를 후리하는 동안, 우리의 관심은 온통 스칼렛 요한슨의 가슴이 치즈를 갠만 검정 풀풀이를 터뜨릴 수 있을지에 달려 있으니 팀워크 따위 게나 줘도 상관없다. 부자 강동

로봇 녀석이 그저 우릴 즐겁게 해주길 바랄뿐. (토니, 이번에도 MAXIM 표지 모델 12명이랑 잘 거면 취재 허락 좀)



이달의 신작

가
라
녀



감독 **임상수**
출연 **전도연, 이정재, 윤희정, 서우**

1960년 김기영 감독의 《하녀》가 돌아왔다. 이혼녀 은애(전도연)는 부짓집 자택의 하녀로 들어가서 주인집 남재(이정재)와 뜨거운 관계가 된다. 아클레, 이 뜨거운 관계가 한여름 피약벌 아래에서 모피 코트 두르고 깃 튀긴 호떡 호호 불어가며 함께 맘 흘리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나! 아이쿠. 그래서 조용한 집 안에 시간이 난다. 제작 보고회에서 스스로를 “늙은 하녀 역을 맡은 늙은 윤희정” 이라고 소개한 배우 윤희정은 40년 전 김기영 감독의 《하녀》로 데뷔했고, 임상수 감독의 《비밀한 가족》에 출연한 인연이 있다. 전도연의 파격적 베드신이 한 번, 메이드 복장이 또 한 번 인터넷 피라시를 달굴 게 예상되는데, 고급 문화를 지향하는 MAXIMO 그랑 메이드복에 눈이 멀어 뒤에 숨겨진 배우 전도연의 압도적 재능을 알아보지 못할소냐.. 만 그래도 궁금하긴 하다. 기대는 안 하고, 그냥 궁금하거든. 개봉 5월 13일

CHECK UP

주관적인 영화 방정식

〈케로로 더 무비5〉가 사실 나가 고른 영화라고, 이 영화가 나 영화라고 왜 당당하게 말을 못해!

슈퍼 히어로의 명가 마블 코믹스 + 〈스파이더 맨〉 〈웬디드〉 원작자 + 액션, 충질, 풀풀이 3중 세트 + 니콜라스 케이지의 낯 높은 열연 - 4인 4색 파워레인저 패션이 주는 부담 = **릭 애스: 영웅의 탄생** 개봉 4월 22일

개구리 외계인의 부드러운 감촉 + 당신이 지구인 사이에서 느껴온 위화감 = **케로로 더 무비5: 기적의 사자원성** 개봉 4월 29일

리틀리 스콧 감독의 이름값 + 글래디에이터에 대한 기대 - 나이 45세의 최고령 로빈 후드 = **로빈 후드** 개봉 5월 13일

러닝머신 위의 달라이 라마 14세 + 노란 사쓰 입은 아저씨에 대한 페티시 - 디큐멘타리에 대한 고질적 편견 = **선라이즈 섀넌** 개봉 5월 13일

“우린 아마 안 될 거야” 나루토 아저씨 가 사실 터피코 주스 보컬이랑 사실 + 신나는 로큰롤 + “니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힘들거나 배고프지 않아!” 라고 외치는 유쾌함 = **밴드시크게 들을 것** 개봉 4월 22일

밴드시크게 들을 것



GONNICHIIWA!

할리우드로 간 강가 마니아

베트맨,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수많은 맨의 향연에 물린 팬들은 할리우드가 일본 강가에 눈을 돌리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데스 노트



아키라



카우보이 비밥

줄거라: 똑똑한 고등학생 이 이름이 적히면 죽는 죽음의 공책을 발견하여 건방을 댄다. 캐스팅: 로버트 패틴슨 마니아의 반응: 〈트와일라잇〉속 패틴슨의 눈빛에는 라이트에 가장 적합한 사이고 ‘끼’ 가 있다. 완벽한 조합

줄거라: 핵 종말론적 도라 이 소년 군단이 영력을 쓰는 한 10대 소년을 중심으로 모여 시작한 정부와 전쟁을 벌인다. 캐스팅: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마니아의 반응: SF 마니아 사이에서는 레이 공주 가 다스 베이더와 짝은 섹스 테이포만 인기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줄거라: 현상금 사냥꾼들이 우주선 비합포를 타고 행성을 떠돌며 현상금이 걸린 범죄자를 잡아 연명한다.

캐스팅: 카이노 리브스 마니아의 반응: 온라인 잉여들은 과연 키우스가 강우카나 한가주 주제로 토론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캐스팅에 개입할 수도 없으면서).



그림 잘 만드는 남자

〈아마존의 눈물〉 김현철 PD

노모 영상이 큰 스크린으로 감상하는 것, 우리는 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꿈이다.

TV판 〈아마존의 눈물〉이 무삭제 노모판으로 개봉하여 10만 고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 어서 대열에 합류하라. 답답한 모자이크를 과감히 견어낸 김현철 PD를 만나 '아마존 여신 아물루'에 대한 얘기도 들어봤다.

BY 김광혁

영화 개봉 첫 주 만에 3만 관객을 돌파했다. 몇 만 정도 예상하냐?

김현철 PD(아마존의 눈물)재우템이 어디서 10만 이라고 했었다. 그래서 뭐 나도 10만.

극장판과 TV 방영본은 많이 다른가?

영화가 60분인데 그중에 17분 정도가 새로 넣은 분이다. 극장판에서는 부족했던 이야기를 많이 다뤘다. '술이 왜 포로가 없었냐' 속의 에디터로 접근하지 않고 이야기를 쉽게 풀아주고 싶었다. 자유의 숲을 시리즈로 제작한 〈북극의 눈물〉도 그런 점이 높았다.

얼마나 봤어요?

제대로 17억 중에 4억은 방송 발전 기금에서 받고 있고 TV 광고는 안만했는데 17억을 한다. 재탕 광고 수입은 3억 정도다. 〈북극의 눈물〉 극장판이 6개에 걸렸는데 아마존의 눈물도 수입하고 싶어 한다.다라 대화(아마존의 눈물)도 수입하고 싶어 한다.다라 대화(아마존의 눈물)는 원주민 보호 기금으로 기부하려고 한다. 그분들께 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

노 모자이크를 상업적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웃을 입고 있는 원주민들을 우리가 벗겨서 찍었다거나 다른 의도로 쓴다던 상업적이지 않지. 우리가 본 그대로를 스크린에서 보여주는 것뿐인데 그게 노출과 연동되어 오로지까 부정적인 느낌을 갖는 것 같다. 오로지 오로지까 하면 더 외설적으로 보인다. 사실 TV 방영본도 처음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말라고 생각했다. 개인적으로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보면 좋겠다. 어른들보다 그런 쪽으로 보는 게 나쁘지.

아물루 예쁘다라.

아물루 태어난 건진이 형 인기가 높았다. 매력적이시.

아마존도 예쁜 사람이 대접받는 거라면 세 상이로군

학식이 거기도 예쁜 사람이 인기가 많다. 사람은 다 느끼는 게 비슷한 거지

영화 도입부에서 아물루 옆에 운신 하는 장면이 빨과 교차해 나오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그건 내가 편집했다. 일단 그 문신이 뽀얏다. 밀링하는 뽀얏 하느라 배다른 원주민과 상상을 초월하는 개체 동물이 공존한다. 근데 야사들과 그 스토리가 교차하면 더 나빠 그 관계가 단순하 공존만은 아닌 것 같은 긴장감이 보이다. 아마존을 먹마의 느낌으로 부호들이 그렇게 만만하 곳이란 아닌 거지. 줄을 교차시키니까 상징적인 느낌이 있다. 그걸 외설적으로 보는 것도 있다.

성인식을 앞둔 소녀와 남자 성기를 상징하는 뱀의 눈같이일까?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뱀과 여자의 몸. 헤어튼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붙인 거다. 이게 잘 맞아 떨어질 것 같긴 했지만.

누군가는 "조금 부족은 고급과 불행이 없는 유포아처럼 보인다"고 감상을 썼다. 〈아마존의 눈물〉을 보면서 이 유포아씨가 지금 눈물을 흘리며 디스토피아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다.

필리페트 비노슈의 무용극에서 '두리움은 저주다'라는 자막이 나온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얻은 게 바로 두리움이 아닐까? 조어 부족에게 그런 두리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세상이 유포아로 보이는 것 같다.

소노(성기 가리개)는 24시간 끼고 하나?

잘 때도 안 쓴다. 겨울은 평상시에 발기하는 것을 수차라고 생각한다.

우리 뱀은 걸 보고 흥분하지 않나? 원주민들은 매일 서로 뱀을 걸 텐데 언제 흥분 하나?

레비스트로스(술은 열매)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온다. 아마존 눈물 때때로 수치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정이 깨졌을 때 수치를 느낀다. 태어나면서부터 늘 밖을 내다sehen느니까? 물론 그것 나를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지. 우리도 그렇잖아.

지금은 예코 시대다. MAXIM 독자들은 자연 다큐를 봐야 하는 이유가 있디냐?

그동안 '원시'라는 단어를 알고안 있었지. 그 내용들이 편지는 못했다. '복'도 그 만만가지고. 이런 다큐들이 단순한 캠퍼스만 있는 단어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사실 북극곰 말이 되고, 배라루루 주는 건 우리랑 아무 상관 없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마존이 부족 사냥이 그러더라. '해녀의 세상이 없어졌다'고 그 말은 맞는 거 같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는 아니니까. 잠깐 그런 작은 세상이 어차피 없기 때문에라도 관심을 갖고 자연 다큐를 봐야 하지 않을까?

자구의 눈을 시리즈 다음 기획들은 어떻게 되어 가나?

(아보리카의 눈물)은 한팅 끝나 갔다. 들었다. 4월 중순에 촬영 간다고 하더라. 〈남극의 눈물〉은 진먼이 형이 준비하고 있다.

왜 피디가 되었나?

원래는 기자가 되고 싶었다. 사회학을 갔다. 근데 다녀서 60 MINUTE이라는 미국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 시사에 여러 문제제기를 하는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은다는 점이 좋다고 들었다. 피디 입사 시험은 MCOM서 처음 보는 데 바로 붙었다.

다음 작품은?

스페인을 보려고 한다. 한국에서는 너무 대중을 못 믿으니까.



CAREER COACH



김현철 PD에게 듣는 PD 되는 법

작년 MBC TV 프로유서 생애 경험들은 1000대 1 피디를 꿈꾸는 독자들에게 에디터가 대신 할 수 없는 비결을 밝혔다.

피디로 뽑히려는데 어떤 방법이 해야 하나? 글을 잘 써야 한다.

방송 만드는 사람이 왜 글을 잘 써야 하나? 표현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표현력, 자신만의 사고와 개성이 중요하니까.

대입학에 맞춰라. 직접 신문 사입력 하는 걸로 아는데 어떤 글에 장수를 주냐? 개인적으로 종합적이고 현학적인 글은 좋아한다.

해설사로 글 좋아 하나 하나. 나쁘지 않다. 아예 책하면서 삼지 개미 쓰는 글이 좋다.

그림 해설+음악하면 되는 건가? 음, 학과란 있는 사람의 강점을 딱딱 건드리는 글이어서라. 그런 능력도 그림도 잘 만든다.

하루만 더 일했더라. 요즘이 많이 바빠. 대충 한 건 거다 나다.

평과 평가 기준은 글밖에 없는 건가? 글, 글 열심히 써라. 논리적으로 해서 써는 건 어차피. 경쟁은 스스로의 제법.

스토리텔링, 육질, 경쟁 더 갖춰야 안 뺄릴 수도 있어?

재력 있으면 안 뺄는다. 운동도 해라.

조금은 약학하지만, 조언 그만. 뭘 벌써 알았음..



극장판 〈아마존의 눈물〉 TV방영 당시, 다큐를 5개 이상 할 수 있는 20% 이상인 시청률을 기록하며 대관람권을 뒤 흔든 최재철 〈아마존의 눈물〉, 더 큰 화면, 노모자이크 극장판으로 10만 관객이라는 또 다른 기록에 도전하고 있다.

부자처럼 사는 법

돈 잘 버는 그녀를 잡아라



마돈나

약수 / 47,237,774달러

그녀가 2009년 월드 투어와 음반 판매로 벌어들인 돈은 우리 457개만 달러에 50억 원에 달한다.

Good

이 돈이면 우리나라의 프로야구 구단 6개 팀을 운영하고 (약 40억 원), 남은 돈으로 아이바하의 7억 원을 3대 정도 할 수도 있는 정도가 남는다. 이제 그녀의 남은 나이가 당신의 사면을 가로막는 이유가 되지 못할 거다.

Bad

그전에 뉴욕 양키스의 일렉스 로드리게스보다 당신의 자질이 더 대단하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그녀는 50대 후반의 생이다. 이런 알고 싶어요?

브리튼니 스피어스

약수 / 38,885,287달러

브리튼니 스피어스가 돌아왔다. 그녀는 2008년 발매한 음반 (POP.S)으로 그간 장성준을 능가하는 팬들의 비호를 잠재우며 재기에 성공했다.

Good

(POP.S)는 총 76,300장이 팔려나갔고, 2009년까지 콘서트와 음원 수익을 합치면 그녀는 3천만 달러와 420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그녀의 7등사형이 1년만 상형 이면의 죄상이기는 할까 30억을 4배나 지출 수 있다.

Bad

지금 영국 맨체스터나 피파리터로 입장을 바꿔야 한다.

비논세

약수 / 23,669,131달러

'성공 80대'를 표지한 장작 번인은 성인이 아닌 비논세는 음반 활동으로만 2천여만 달러와 200억 원을 벌어들였다. 작년 유투브에선 그녀가 소녀 그녀의 춤을 따라 하는 영상이 넘쳐나고 언변한 걸과다.

Good

대하 드라마의 PG가 되고 실디엔 비논세를 잡아라. MEC 드라마 (김수호)4차비 100억 원(대금)의 드라마를 두 번 제작해 그녀의 통장엔 60억 정도가 남으니 미안해 할 필요 없다.

Bad

그녀의 남편은 합법의 재앙. 제이Jay~2다.

테일러 스위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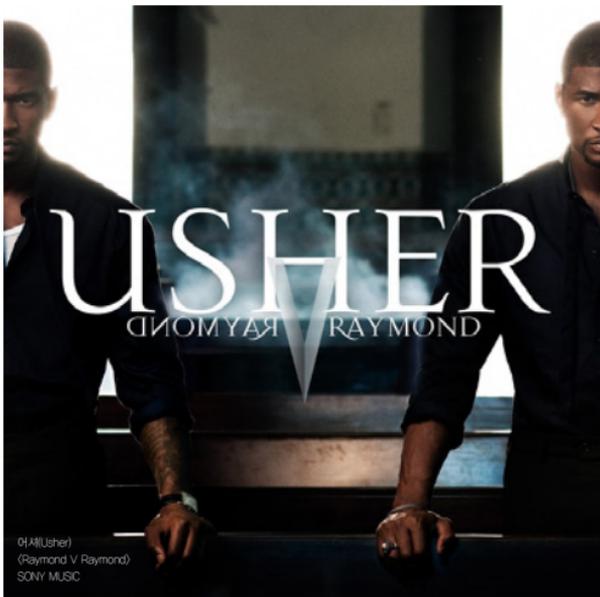
약수 / 17,204,646달러

그녀는 노래를 잘한다. 2회 그래미 시상식에서 '올해의 음반'을 비롯해 4개의 상을 휩쓸었다. 일곱도 예쁘다. 그녀는 '에스 오망이'의 별명은 '루피'가 아니다. 돈도 잘 벌다. 음반 수익으로만 1천만 달러(180억) 달러의 대부분을 벌어들였다.

Good

나이도 어리다(1989년생).

MAXM도 그녀를 잡을 방법을 모른다니 것



어셔(Usher)
(Raymond V Raymond)
SONY MUSIC

R&B의 최종 보스가 돌아왔다.

어셔가 새 음반 (Raymond V Raymond)를 들고 우리 곁을 돌아왔다. 열세 살부터 시작한 음악 생활은 단편대로 그 자체였다. 남들은 한 번도 타기 힘들다는 빌보드 상을 쓸어 넣었다. 춤이든 춤, 노래면 노래, 인기면 인기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었다. 음반 판매량이 가수의 능력을 평가하는 절대 척도는 아니지만, 인기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에 충분하다. 현역 가수 중에 그보다 많은 음반을 팔아치운 R&B 선배는 보이즈 투 맨, 스티비 니콜라, 휘트니 휴스턴 정도다. 어셔는 이들보다 세가팔게 어리니 올해 33세 이들의 음반 판매량을 뛰어넘는 건 시간문제다. 하지만 아무리 젊나 그도 루저의 키를 가졌듯, 실의 공극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다. 아내 태이가 포스터와 결혼 생활을 2년을 넘기지 못했다. 2008년에는 아버지를 하늘로 떠나보냈다. 비논세가 본명을 음반 제목으로 삼으

며 정체성을 확인했다. 어셔도 (Raymond V Raymond)로 자신(Usher Raymond)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태어난 이번 음반에는 'Hey Daddy'를 비롯해 결혼 생활을 정리한 어셔의 심정을 노래한 'Papers' 등 다양한 스타일의 곡이 수록됐다. 가장 인상적인 곡은 단연 'OMG(OMG! 이 아니다)'. 합창의 강자 폴레 아이드 피스 엠바 힐 아이 엠의 다양한 변주와 치밀한 곡 구성을 R&B의 강자 어셔가 노련하게 받아낸다. 우리나라 사랑의 입맛에는 가장 어서다. 춤과 노래 실력을 뽐내기 좋은 'There Goes My Baby'가 잘 맞을 거다. R&B 최종 보스가 내놓은 6번째 정규 음반은 4년간의 기다림을 보상하기에 충분하다. 어셔와 함께 R&B 필이 충분한 5월을 보내자.



애덤 램버트(Adam Lambert)
(For Your Entertainment)
SONY MUSIC

(미리칸 아이돌)이 낳은 또 한 명의 스타. 비로 애덤 램버트다. 8번째 시즌에서 준우승을 거머쥔 그는 '별다른 새...'로 통한다. 스모키 화장을 칠해 한 이 '후로게'는 같은 시즌 우승자인 크리스 알렌을 종횡무진으로 휘둘러 걸 넘겨주고, 공연 도중에 남성 간헐 연주자와 키스하는 퍼포먼스로 킁을 부린다. 그러면서 시즌 파이널에서 그룹 팬의 두 멤버와 'We are the Champions'을 부를 땀 스티비니콜라 핑키 알론 만큼 대담한 모습도 보여준다. 브리튼니 에이아가 '애덤 램버트와 다시 공연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다. 램버트의 데뷔 음반인 (For Your

Entertainment)는 발매 첫주 빌보드 차트 3위를 차지했고, 미국에서 20만 장 이상을 팔아 치웠다. 'Time for Meads'가 영화 (2012)의 엔딩 곡으로 사용됐기에 (미리칸 아이돌)을 넘지 않은 이라도 노래는 낯설지 않다. 그가 포제니 매튜리의 가창력과 미카의 재능을 가진 가수라는 표현은 엉성나 실례할까 가깝지만, 자신의 색깔이 뚜렷한 실력파 가수인 건 분명하다. 비슷비슷하고 일괄 밀려난 음악이 지겨운 이리엔 애덤 램버트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40th Anniversary



Deep Purple



오늘 하루는 **빅타이**를 풀어라!

딥퍼플 내한공연

Bravo! 중년!! 할인 서비스

- 01 "이번만큼은 자신을 위한 문화생활을 즐기세요!"
35세 이상의 남성이 예매 시 **15% 할인!** (76년생 이전 출생자 기준)
- 02 "오늘도 밖에서 기폭을 위해 두고하는 남편을 위한 특별한 선물!"
35세 이상의 여성이 예매 시 **15% 할인!** (76년생 이전 출생자 기준)
- 03 "히드록의 정성, 이색키와 함께 목기!"
학생 **15% 할인!** (중/고등/대학생 할인 _ 현장 수령만 가능/학생증 미 지참시 차액 지불)

VIP 130,000원 ▶ 110,500원

R 110,000원 ▶ 93,500원

S 90,000원 ▶ 76,500원

A 70,000원 ▶ 59,500원

B For Young Rock Kids! 30,000원

할인 서비스 해당 없음 : 시야 정액식

2010. 5. 18. TUE 8:00PM 올림픽홀

주최 Stagefactory 주관 9 Factory 후원 W WARNER MUSIC KOREA XTM

예매 인터파크 TICKET 1544-1555 English Booking ticket.interpark.com/global



[Singles & E.P. Anthology '88 - '88]
2010년 4월 6일 발매

www.deep-purple.com

ALL SHOOK UP

너는 이미 빠져들었다.



뮤지컬에서는 음악이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 그 음악이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의 것 이면 어떨까? 이미 온몸을 로큰롤의 리듬에 맡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음악습>은 엘비스의 노래 24곡으로 채워진 뮤지컬이다. 흥겨운 로큰롤과 파워풀한 춤은 당상을 뮤지컬 제목 그대로 '사랑에 빠져 미치도록 기분 좋은 상태'로 만들 어줄 거다. 아이기는 춤과 노래, 예경 행장이 금지된 리듬에 흥난 가타리리드 제도가 흘러들어들면서 시작된다.

제도는 모터사이클을 타고 이따저따를 떠돌아다니다는, 김삿뚝 씨 먹음 풍류 낭만이다. 그가 가타리를 치며 '춤, 사랑, 노래 이 얼마나 좋은가'라고 외치자, 마을의 신남선녀들은 '이 좋은 걸 그동안 왜 모르고 지냈을까'라고 달려들어 금자탑 3층 셋을 흥난 노래, 예경행장을 즐기게 된다.

이와 동시에 춤과 노래를 금지한 도시의 사랑이 갈림이 날뛰고 그 속에서 사랑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일어나는 해방문을 그렸 다. 마을 처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제도는 피란색 풍성의 열광 적 지지를 받던 이들을 그룹 god 출신 가수 손호영과 뮤지컬 배우 송용진, 김보경이 캐스팅됐다. 여주인공 나탈리는 윤공주와 백은미가, 탤런트 장성훈이 데스 역할을 맡았다. 이번이 3번째 앙코르 공연이며, 전체 관객의 3분의 1 이상이 재공연 권택일 정도니 작품의 완성도는 기대할 만하다. 댄스 춤 5분, 흥난 내의 마음은 상상할만 한 바버리언(베니)이 들뜨고 춤, 마음에 좋은 여색이 기대감이 (음악습)과 함께한다. 로큰롤 콘서트만큼 짜릿한 공연에 '모든 것이 흥난 그녀는 당신의 애정 공세에 섰신 히 미어의 눈을 열아줄지도 모른다.'



초심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자랑할 건 여전히 초 플릿 복근뿐이다네

죽도록 운동해서 만든 몸으로 할리우드에 진출하고, 출연한 영화에서 오션은 연어로 든 이의 손발을 오글거리게 할까 배우 비가 아니다. 태양을 마구 피하며 웃을 뻔한 가수 비다. 2년 만에 내놓은 스페셜 음반의 제목은 <Back To The Basic>. 데뷔한 지 8 년째 이례 가수로서 활동도 창작인 연어나 초파산인 태를 잊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일명만 빌라드 '날 불 잡을 노' 제어도 이름다운 피하는 선물보다는 그 초콜릿 복근 스에 초점을 맞춘다. 남자인 당시 그의 복근을 비정상적으로 사랑한다던 남편을 구경해도 말리진 않았지만 같이 관하도 삼진 않다. 비의 음악은 사랑과 정감이 하나로 합쳐진 공감각적 심상이 이루어진 단가 무척 상상력이나.



SLASH OF THE TITANS

건즈 앤 로지스 출신의 슬래시가 솔로 음반을 내놓았다. BY JOSH EELLS

언제 솔로 음반을 내겠다고 결심했나?

지난번 '벨벳 리볼버'의 투어 공연에서 감질이 된 거 구분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솔로 음반을 준비하게 된 거다.

이기 팝, 크리스 코넬, 키드 록, 오지 오스본, 피기 등 유명인이 대거 참여했다.

그동안 많은 노래를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골짜기 들 러했다. 그중에서 내 노래가 마음에 든다고 했던 사람에게 연락해서 그들이 함께 작업하게 된 거다.

블랙 아이드 피스의 피기는 좀 의외였다.

피기는 록 뮤직을 멋지게 소화할 아는 거수다. 예전에도 같이 작업했다. 무엇보다 그녀는 내 아내의 친구구. 내 아이들은 그녀를 '피기 이모'라고 부른다.

누구와 작업할 때가 가장 즐겁나?

(나는 남자지만) 키드 록과 일할 때가 가장 즐겁다. 그래서 큼직한 락 잭 디나엘과 좋은 기쁨을 선물했다. 일할 땐 프로의식이 철저한 사람이 최고다.

역슬 로즈(건즈 앤 로지스의 보컬)와 마지막으로 이기가 를 나는 건 언제인가?

노 코멘트! 96년에 그룹을 탈퇴한 후엔 내가 뭐라고 말하 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했다!

건즈 앤 로지스는 1980년대를 풍미한 치명적인 매력적 지닌 록밴드다. 당신이 최근에 하는 일 중 가장 '치명적 인' 건 무엇인가?

핀볼과 포커? 사실 이 정도면 '무해' 한 것들이다. 알잖나.

아이들은 음악을 좋아하나?

물론이다. 우리 부부와 취향이 비슷하다. 합작 차트 40위 인의 노래만 제외하고! 아이들이 합작 그룹 블랙 아이드 피스 'My Humps' 를 골짜기 따라 부르러다.

그럼 당신은 '피기 이모'의 노래를 싫어하는 거군

아, 맞다. 이런 냈었...



슬래시 (SLASH) 유니버설 뮤직

01. Ghost Feat. 이안 애스트베리
02. Cruelly The Dead Feat. 오지 오스본
03. Beautiful Dangerous Feat. 피기
04. Back from Cali Feat. 마이클 케네디
05. Promise Feat. 크리스 코넬
06. By the Sword Feat. 앤드류 스투델
07. Golden Feat. 로버트 리만
08. Doctor Alfa Feat. 레이 밌스터
09. Watch This Feat. 데이비드 그롭 & 닥트 맥카인
10. I Hold On Feat. 키드 록
11. Nothing to Say Feat. 영 사도무즈
12. Starlight Feat. 마이클 케네디
13. Saint is a Sinner 'Too Feat. 로코 드루크
14. We're All Gonna Die Feat. 이기 팝
15. Sahara Feat. 아내나 코시
16. Baby Can't Drive Feat. 엘리스 쿠웨일 니콜
17. Paradise City Feat. 피기 & 사이프러스 힐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4

BY 김상현

캡콤은 《스트리트 파이터 4》를 내놓으면서, 2D 대전 액션 게임에서 꽤 먹던 왕년 실력을 옛 바퀴 먹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3D 게임에서 2D 게임 못지않은 타격감을 선보인 캡콤은 여세를 몰아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4》를 내놓았다. 이번 시리즈에선 우리나라를 캐릭터 한주리가 최초로 등장한다. 그녀는 해맑은 생김새와 달리, 뽀개(?) 빛나는 왼쪽 눈을 번뜩이며 '스트리트 파이터 세상'의 대장 격인 베

가를 보여 입맛을 다시는 살벌한 캐릭터다. 게임 스토리 비중도 적지 않은 터라 벌써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전편에서 인기를 끈 네트워킹 모드도 간재했다. 이번엔 여러 명의 도전자가 맞짱을 뜬 후 최종 승자가 챔피언에게 도전하는 엔드리스 배틀, 4~8명씩 2팀을 만들어 대결하는 팀 배틀이 추가됐다. 이제 강박증이 난입하는 게이머를 때려잡을 준비를 하자. 다 죽었어!

기종	PS3/XB360
제작사	캡콤/캡콤 엔터테인먼트
장르	대전 액션
발매일	2010년 4월 28일
가격	4259원 원



기종	PSP
제작사	코나미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장르	Tactical Espionage Operation
발매일	2010년 4월 29일
가격	4219원 원

메탈기어 솔리드: 피스 워커

갑자에서 잠깐 액션 그라운드 콘솔 게임에서만 얼음 열을 잠미하던 스네이크유미 간만에 PSP를 이불 나섰다. 이번 시리즈의 특징은 에드록 플레이(10) 아래 동일한 PSP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가 있으면 와이파이 공유기를 통해 같이 게임을 즐기는 것을 기본으로 최대 4인까지 협력 플레이가 가능하다. 전 특히 다른 PSP 소프트 제작사와 콘솔계 제휴해 《콘솔 언더 2nd》의 보스급 몬스터 '공룡 더 거센', '최종 리오레우스'는 물론이고, (아사시 크라이)의 전제 트러인 '이불 디아블' 등적 심지어 (해 최세이쿠)로 유명한 보링로드의 음향까지 게임에서 만날 수 있다. 일본과 동시 발매되는 건 게이머로서 반가운 일이지만, 한국이 바진(이) 관련 건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다. 와자시와 칸코쿠 데쓰, 바게



기종	Wi
제작사	닌텐도
장르	액션
발매일	2010년 4월 29일
가격	4219원 원

대난투 스매시브라더스 X

잠들어 있던 Wi를 깨우자 《대난투 스매시브라더스 X》는 2년 전 게임을 이(재) 정식 발매 하며 왠 생세이 내' 라는 불만의 목소리를 잠재울 만큼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그만이다. 닌텐도 주요 캐릭터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싸움을 펼치는데, 볼드 자극이 간재해(세)스테이지 밖으로 날려버리면 끝. 처음 게임을 즐긴 사람도 굳세 익숙해지나 잘재용으로도 최고다. 닌텐도의 와이파이 카세션을 이용하면 멀리 떨어진 친구와 최대 4명까지 동시(재) 게임을 즐길 수 있다. 5월의 최강한 남씨가 미운 슬로러(재) 《대난투 스매시브라더스 X》에서 커를 친구에게 그동안 쌓인 분노를 폭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FINAL FANTASY GIRLS

게임 속 그녀를 찾아서!

이중 몇 명이나 알고 있나?



FF6 / 티나

타는 인간과 황수의 혼혈아다. 그녀의 전투 도중에 잠시 한수로 변신할 수 있다. 이때 케이더는 그녀의 율 누드를 감상할 수 있지만 몇몇의 경우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한다. 남자 주인공 로크가 게임 속 도 다른 미녀 세리사와 정분이 나는 게 당연하다. 여자 주인공이라고 몸매를 가꾸지 않으면, 세상은 구해도 남자는 구하지(?) 못하는 법이다.



FF3 ~ FF13 / 시바

시바는 FF 시리즈에 따라 피부의 미녀 스타일로 등장한다. 전투에서 그녀를 소환하면 승리의 미용치면 차가운 압력으로 적을 공격한다. 이런 시바는 하지만 실제로 한두교에서 시바는 '남자의 것' 또는 파피를 상징하는 신이다. 스케어 에너시는 무슨 생소한 한두교에서 최고의 자질을 가진 신을 아자로 만든 걸까? 파피신 사바라고 자신의 '그것' 을 파괴하지 않는다. 이해할 수 없는 설정이지만 우리가 너그럽게 이해해주자. 적어도 게임 속 그녀는 무척 예시하니깐. 오 이런 시바



FF10 / 유나

우리나라에서 FF10은 아수라영이 찬성이 시절 부재한 것? 얼마나 좋은가? 더 유명하다. 여기서 유나는 5팬츠 소환의 딸로 등장한다. 주인공답게 세상을 구하려고 나쁜 신에게 죽이는 데 앞장선다. 하지만 남편스럽게도 최종 보스를 차지해서! 잘생긴 남자 주인공마저 세로 사리진다. 이제 슬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줄 사람은 우리에게 없다.



FINAL FANTASY 13

한국로 만나는 파이널 판타지의 감동. "꿈★은 이루어진다!"

기종	PS3
제작사	스퀘어 에닉스
장르	RPG
발매일	5월 예정
가격	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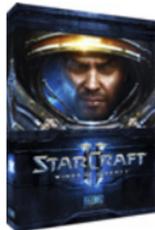
(파이널 판타지(이하 파판))의 정식 넘버링 시리즈의 한국어 버전이 우리 곁을 찾아왔다. (파판 1)이 일본에서 1987년에 발매됐으니 무려 23년 만의 일이다. 이제 공략집보다 두꺼운 데자집에 목욕 필요 없다. 동성인물의 시시걸만한 농담도 한글로 만나볼 수 있다. 그동안 파판은 출시될 때마다 해당 콘솔(게임기)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낸 그래픽을 선보였다. 이번 시리즈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PS3 게임 중 최고 수준의 비주얼로 게이머를 압도한다. 특히 게임 속 배경을 보고 싶노라면 게임인지만. 현실성이 햇갈릴 정도다. 미국식 롤플레이팅 게임에 익숙한 게이머라면 스토리의 분기 때문 외남하지 않는 (파판 13)의 올곧은(?) 외길 진행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50~60시간의 플레이가 가능한 건, 스토리를 따라가는 것으로도 즐길 볼륨이 충분하다. 소라(대역) 일 본식 RPG의 자유도는 낮은 편이다. 여기에 액티브 시스템(실시간 전투)과 체인 브레이크(일종의 연계기)의 존재는 전투 자체를 즐기게 만든다. 주제가와 스토리도 그래픽 못본 차이는 성공했으니 걱정 붙여도 됐다. 당시는 그저 (파판 13)을 지르기 위해 지갑을 열면 된다.



FF13 / 세라 파본

슬로물어준 세라 파본에게 질문하게 있다는 설정이 재미있게 느껴질 거다. 그래도 FF13은 장구 시리즈 중 최초로 한글 자막이 제공되니 기대한 우리가 이해하자. 게임의 완성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비주얼 하나-만큼은 역대 시리즈 중 최고라 믿는다. 한마디로 그녀의 놀라운 몸매를 감상할 H-D 화면에서 신나게 감상할 수 있던 거다. FF13을 지를 이유로 충분하지 않은가?

스타크래프트: 자유의 날개 패키지



그 '자유' 를 재수생에게 나눠라.

(스타크래프트 2 자유의 날개)이 스타2 패키지 가격에 10만 원으로 결정됐다. 블리자드는 온라인 다운로드 구매 옵션도 다양하게 제공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작이 최소 10년 이상 동안 꾸준한 인기를 끌었으니, 현재 약 600만명으로 이젠 정해진 게임의 흥과도 생각하면 결코 비싼 가격은 아니다. 다만 2012년 중요한 사명을 맡고 있던 스타2 구매를 잠시 보류하는 게 좋을 거다. 화려한 그래픽의 유닛들이 빠진건 실은 전투를 보이는 스타2의 매력에 빠지면 당사의 새로운 자유를 향해 자유의 날개 를 날 단 공속 질주할 테니까 말이다.

미드 속 수사기관들

이곳이 없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수사 드라마도 없다.

ILLUSTRATION JACOB

TOP SECRET

BONUS STAGE 그 외 수사기관들

이런 곳도 있다.

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영화와 소설리로 대표되는 미국 연방 수사국은 주 경찰을 넘나드는 연쇄범죄, 납치 등 경례 사건을 주로 수사한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수사 조직이지만 9·11 사건 이후에는 테러 전담 조직인 NSANational Security Agency의 파워 개입에서 밀리는 눈치다.

US MARSHALS

범죄자의 호송과 감시를 위한 조직 범인을 교도소로 보낼 때 말에서 감시하는 무장개생인 행낭을 대부분이 마셜 요원이다. 사부개시라고 불리는 행낭에 패진 악몽을 호송적으로 감거하기 위해 고문형 현상금 사냥꾼이 마셜 조직의 원조 격이다. 드라마에서는 다른 출연자에게 동태를 차림 맞고 다니지만 현실에서는 범인이 가장 피하고픈 수사 조직이다. 해리스 포드의 영화 <도망차서>를 그들 관장하게 했던 수사관들이 리 존슨도 역시 마셜 소속이었다.

NSA(National Security Agency)

테러 전담 조직 미국은 9·11 이후 '테러'라는 소리만 들으면 겁에 커튼을 뚫었다. 미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NSA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했다. 문제는 그들이 '테러'의 '테' 자만 들러드 수사권을 주장하며 나서는 똥이 다른 수사 기관주로 FBI과 부딪히는 경우도 많아졌다든 것이다.

SHERIFF

영화대로 보안관이다. 미국은 땅덩이가 커서 조그만 시골 동네까지 경찰을 배치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지역 유지 중에서 보안관을 선출해 경찰 역할을 맡긴다. 대부분 미드에서는 무능하거나, 지역 범죄의 핵심 인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NCIS>

NCIS

(Naval Criminal Investigative Service)

1. 존재 여부: O

2. 활동 내역: 미 해군은 세계 각지에 파견된 경우가 많다. NCIS는 이들과 관련된 범죄를 담당하는 과학수사대다. 미국 내 테러 위협엔 NSA가 대응하지만, 해군 이 테러리스트의 대상이 되면 NCIS가 사건을 맡는다.

3. 차이점: 현실의 NCIS는 드라마 속 그들(오죽하면 '게티 수사대'라고 불러줬는)가 비슷하지 않다. 김스 반장처럼 부하 직원(디노즈) 뒤를쫓는 밥 먹듯 후려쳤다가는 고소당하기 딱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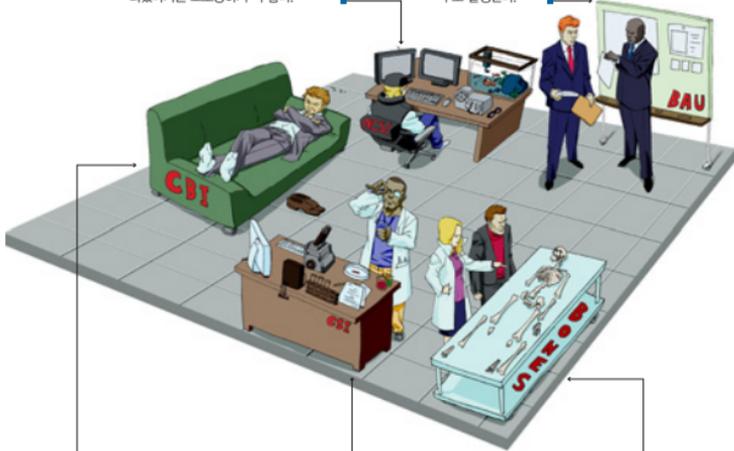
<CRIMINAL MIND>

BAU(Behavioral Analyst Unit)

1. 존재 여부: O

2. 활동 내역: FBI 행동분석 전문(프로파일러)들. '범인은 이유 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신조로 움직인다. 범죄 현장을 토대로 범인의 성향과 심리를 분석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김호순, 김길태 사건을 해결하는 데 행동분석 전문가의 공이 컸다.

3. 차이점: '프로파일'은 범인을 잡기 위한 참고자료다. BAU팀의 프로파일은 드라마에선 백발백중이지만, 현실에서는 실제 범인과 프로파일은 전혀 다른 경우도 발생한다.



<MENTALIST>

CB

(California Bureau of Investigation)

1. 존재 여부: O

2. 활동 내역: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강력 범죄가 발생했을 때, 주지사에게 법적인 지문을 해주는 기관이다. 일반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는 드물다. 정지권의 요청이 있을 때는 직접 수사에 나서기도 한다. 주로 중이 말로 프로그램 같은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한다.

3. 차이점: 실제 CB에는 <멘탈리스트>의 제인처럼 사람의 마음을 조종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능력이자 존재하지 않는다.

<C.S.I LAS VEGAS>

CSI

(Crime Scene Investigation)

1. 존재 여부: O

2. 활동 내역: 라스베이거스 수사국 소속으로 30명 내외의 인원이 근무 중이다. 주에 따라 경찰과 CSI가 하나 또는 별도로 존재한다. 보통 CSI 요원은 연구실에서 일뿐 분해·단층, 혈흔 분석 등에 대한 수사만 담당한다. 일반범죄 사건은 1명, 살인 사건은 최소 2명 이상 투입된다.

3. 차이점: 과학 수사가 드라마처럼 빠른 속도로 진행되진 않는다. DNA 테스트만 해도 빠르진 며칠, 길면 몇 달이 걸린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BONES>

제퍼슨인 협회

(The Jefferson Institution)

1. 존재 여부: △

법의학 연구소는 존재하지만 제퍼슨인 협회는 없다. 2. 활동 내역: 법의학자들이 모인 단체. FBI를 비롯한 수사기관에서 신부 확인이 어렵거나, 망친 시체를 발견할 때 이곳에 조사를 의뢰한다. 시체를 해부하는 게 아니라, 뼈처럼 남은 사체의 일부에서 증거를 찾는다.

3. 차이점: <본즈>는 실존하는 법의학자 '케이시 리치스'의 베스트셀러 <Deadly Decisions>를 기반으로 해 사실성을 높였다. 하지만 현실에는 브레넬 박사 같은 미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스타워치

FILL YOUR INNER EXPERIENCES WITH MATERIAL GOODS



우주여행은 조만간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기세다. 우주여행을 준비할 만큼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다면 이참에 시계 하나 장만하는 건 어떨까? 마침 SKCO에서 우주에서도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스프링 드라이버 스페이스 워치'를 출시했다. 가격은 역대 우주여행 비용에 비하면 푼돈인 4천만 원대다. 전 세계 1백 개 한정 판으로 우리나라에는 달량 17개만 출시됐다. 관심이 있다면 번개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게 좋을 거다.

SPEC CHECK

- SKCO만의 스프링 드라이버 무브먼트(메인스프링이 전기를 생산하면 이 힘으로 펌나베귀가 돌아가는 기계식)과 전자식 시계의 중간 형태 탑재 변화무쌍한 우주 날씨 -20℃~+70℃에도 끄떡없다!
- 우주 공간에서도 감각이 정확한 시간 확인 Q.E. 스를 워치 가능처럼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도 문제 없이 소화한다.
- 우주인용 버전은 두꺼운 정압을 깨도 조차해 문제없도록 크라운테이프를 감거나 시간을 맞추는 버튼이 2시 방향에 위치
- 지구(국)내 버전은 '스프링' 인 크라운(방수 가능 및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나사를 낸 크라운)으로 변신
- 시계의 뒷면에는 한정판을 위한 고유번호 장착. 여기 에 전용 케이스 추가되자. 이제 우주로 갈 일만 남았다.

2010 A SPACE WATCH!



야(구)동(영상)

100% 즐기기!

남자라면 모름지기 이 정도는 갖춰야 '저 자는 멋을 좀 볼 줄 안다'는 소릴 듣는 법이다.



4 스피커

LA-Z-BOY
BEQUINER LAFSSON

시스템 (프랜즈에서 그들이 행백한 표정으로 떠
친의 뒤 뒤 소리들 기록해? 미국 내에서
도 인기 만점인 레이저비의 리플라이너 제품
이다. 외제 혼과 육체가 불러들여야 안면의 편
안함을 제공한다. 다리받이가 3단계 등받이가 2
단계로 조절 가능하다. 다리받이를 내리면 (프랜
즈에서처럼 흔들거리는) 변신한다. 백면이 붙어
일체 몸무게에 맞춰 등받이의 입력 조절도 가능
하다. 체중이 커질수록처럼 사각각각 변하는 등
신도 편하게 갖춰 이동을 즐길 수 있는 리플
라이너. 청로 속 모드도 이미 리플라이너 리플
을 주문했다.
가격 18만 원
문의 www.lazboy.co.kr 031-718-2293

5 노트북

SONY
VIDE
MIOE

이동에서 '하쿠마 마터라' 를 외칠 정도로 강동
적인 장면이 연출된다면 이를 넘 놓고 보거나 해
산 안 된다. 기쁨은 다른 이와 나누어줄까 찬
지 않던 날까지도 놓아둔 노트북으로 재빨리 주
우 커뮤터에 접속해 이 강동을 글로 풀자. 사실
이런 용도로만 쓰기에 16.4인치 풀 HD LCD, 쿼
드코어 CPU인텔 코어 i7 프로세서가 탑재된 바
이오 F 4 시리즈의 성능은 자처해 뛰어난 편 그
렇지만 블루레이 화질의 이동을 매끄럽게 들리
고, 창대 위에서 3D 게임도 편하게 즐길 노트북이
필요하다면 이런 제품도 없을 게 아닐까 바이
오 제품이나 '가려워 지면' 따위는 기대하지 마라.
가격 26만 원
문의 vaio-online.sony.co.kr 1588-0911

6 PS3

SONY
PLAYSTATION

이동은 원하든 가끔 볼걸은 본능이 끌려오
다. 우리가 원하는 이동은 능숙한 만한 스포츠
선수만 만족스러운 플레이를 즐긴다. 감독
의 사명 보는 눈이 바뀌어 붙어 있다고 느껴질
때 본능이 깨어 우주를 떠돌아다. 그럴 때 깊은
잠에 빠진 플레이스테이션 3의 감을 깨워 (MLB 10
The Show)를 손에 쥐어주자. 메이저리그 강
자 알타르 푸울스에 영의 상처럼 투수를 언
도메타로 관공어행을 보려 보면 어느새 등신에
겐 마음의 평화와 찾아가는 거다. 이동을 좋아하
는 등신에게 슬며시 플레이스테이션 3은 꼭 필
요한 친구란 소리다.
가격 42만8천 원
문의 www.sceek.co.kr 080-723-7235

BY 김광현
PHOTOGRAPH BY 김광현
RETOUCHING BY 제록
MODEL 제록

1 TV

SAMSUNG P91A
UN46R6000VE

우리도 3D TV 좋은 건 안다. 그렇지만 스티브 잡
스의 말을 따들려라. "1세대 제품은 원래 허자
있는 법이다." 잘-가는 기업 제품도 1세대는 되
도록 피하는 게 좋다. 까놓고 말해서 당산이 야구
동영상이라 이동을 즐기는 데 3D TV가 무슨 사
연한 화질과 LED TV의 깊은 색감이 더해지면 아
동을 보다 지루가 색색지도 모를 거다. 혼자
산다면 삼성 퍼브의 46인치 UN46R6000V. 모
델이든 충분하다.
가격 20만 원(배송비 별도)
문의 www.pavv.co.kr 1588-3366

2 스피커

MONITOR
SOUND

그래. 문자로 연한 원 단위의 하이패시+4 홈
시어터를 구축하면 천상의 소리를 들라우겠지. 하
지만 우리는 돈이 없잖아. 그러나 이만 할 거
야. 그렇다고 만한 대의 싸구려 스피커로 우리의
피해를 불태우는 이동을 볼 수 없잖아. 가격 대비
효율이 좋은 제품 도우미 S4는 저가만한 북스펙
스피커덕성용 스피커인 주재내 내부에 영표를
담겨 별도의 리시버 없이 PC-FI 환경 구축이 가
능하다. 무엇보다 고음역대에서 소리가 튀지 않기
때문에 이동에서 청장의 소리를 생생하게 만끽하
게 해준다. 아예 감자기 이 코미 스피커가 사영
스리워 보이지 않을?
가격 60만 원
문의 www.moneul.co.kr 02-0281-2100

3 공유기

FEM NETWORKS
P-TIME N6004

스파에 편하게 파진 새 이동을 보면서 행사만을
하지 못한다. 아예 2세대 양이 인터넷이고 말
할 수 있잖아.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한다면 유무
선 공유기 p-TIME N6004를 영입하자. 무선 인터
넷을 광랜급의 속도(최대 300Mbps)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당신 속도까지 쫓기 쫓
아는 무선 인터넷 환경을 구축해볼게. 거다.
가격 2만 원대
문의 www.dvico.co.kr 031-728-1394

7 다빈스 플레이어

DVICO
TVX HD-Cable

인터넷까지 TV에 노트북을 연결해 이동을 볼 건가?
대신 플레이어인 이런 번가토움을 이용할 수 있
다. 대사의 HD-Cable는 내부 저장 공간+DD를
영입해내고 가격을 낮췄다. 덕분에 재미가 슬며시
머 스름, 발걸음 찾아볼 수 없다. 기존 동영상/MP
MKV 등은 물론 풀 HD H.264 1080P/24-60까지
재생을 지원한다. 외형 외에도 기록 한 이동을 보
는 데 문젠데다, PC+NAS의 파일도 넷
워크로 연결해 재생이 가능하다는 것도 청정 화
면 구성이다. 다시 손스펙만 잘 설계하면 컴퓨터
에 행방이 사라져 쓰지 않더라도 가격 대비 효율이
좋은 제품이다.
가격 2만 원대
문의 www.dvico.co.kr 031-728-1394

Run, Green, Run!

착한 외장 하드, 지금 만나러 갑니다.



G2 포터블은 삼성전자가 지난 1월 라스베이거스 2010 CES(소비가전전시회)에서 발표한 친환경 외장 하드디스크다. 업계 최초 할로겐 프리(halogen-free)를 적용, 국제 유해물질 제한 지침 기준을 만족했다. 페인트나 장식 등 별도 가공은 하지 않았다.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독일의 2010 iF 어워드를 수상한 제품답게, 케이스는 빛에 따라 다각도로 변하는 바오밥 나무의 미세한 아름다움을 잘 표현했다. 외장 하드 디자인이 무슨 상관이라고?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모티브와 발랄하게 통통 튀는 디자인이, 당신이 욕심보다 아끼는 화귀 자료실에서 나오는 어두운 기운을 가려주기 때문이다. 자전력, 저소음이 특징이며 5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대기모드로 전환해 전력 소모를 줄인다. 자동 백업 기능도 빠뜨리지 않았다. 우리나라에는 G2 포터블 320GB 모델과 데스크톱 G3 스테이션 3종(1TB/1.5TB/2TB)이 판매 중이다. 색상은 자연의 색감을 잘 살린 올리브 그린, 코랄 블루, 라이트 실버, 코발트 블랙 4가지다. G3 스테이션은 라이트 실버, 코발트 블랙 2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 있다. 가격 10만 원대 문의 www.samsung.com/sec



I'm a Good Downloader



Copyright © 2014 GOOD DOWNLOADER. ALL RIGHTS RESERVED.

당당하고 매너있게 즐기는 당신
당신의 올바른 다운로드가 한국 영화를 키웁니다.



I'm a Good Downloader





코스프레

COSPLAY

QnA

아는 게 힘이다.
코스프레라고 다르겠냐?

코스튬 플레이어는 코스튬(costume)과 플레이(play)를 합친 단어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다. 코스튬은 재복이다. 당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나 메이드(하녀복)를 떠올리면 되겠다. 여기에 필 꽃힌 애들이 좋아하는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옷을 직접 만들어 입고 노는 게 코스튬 플레이어, 일명 코스프레다. 오덕오덕한 심덕후의 전유물이라 생각하지 말자. 당신도 교육 입은 예쁜 여학생이나 훈훈한 재복 녀가 지나가면 '하악질'을 해대지 않나? X 달린 남자가 미스녀 옷을 입는 열광급 코스프레가 아니라면 권장할만한 놀이다. MAXIMI 현역 코스튬 플레이어 한희에게 코스프레 용어에 대해서 물어봤다. 알아두서 나쁠 것 없겠지?

» 코스어 vs 코스퍼

둘 다 코스튬 플레이어의 준말이다. 코스어(Cos'er)는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속 캐릭터 복장을 재현하는 코스튬 플레이어다. (예반게리온)의 레미(보탈로이드)의 하츠네 미쿠, (스즈미야 하루히의 우우)의 스즈미야 하루히가 코스어의 단골 소재다. 코스퍼(Cos'per)는 실제 인물이나 직접 창조한 캐릭터의 복장을 재현하는 코스튬 플레이어. 보통 유명 아이돌이 대상이다. 가요 분야의 신체 조건을 갖췄던 채 확실으로 유명한 코스프레 애 도전하는 이가 있는데 대부분 코스퍼다. 재발 총 치명적이었던 하는 소망이 있다.

» 싱크로율

두 대상이 어느 정도 닮았는지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 코스프레에서도 마찬가지로, 덕이 낚는 롬에 레이스 도망이 가 남편 미스녀 (예반게리온)의 레미를 코스프레하면 싱크로를 따위는 아예 수렁하는 거다. 웬 유행 한 번 보셨나?

» 가검

당신! (여왕의 가슴의 주인공) 펜스를 코스프레한다고 치자. 그 트러트도 미친 역날검이 필요하고! 실제로 검을 제작할 수 없다. 코스프레용으로 가짜 검을 만드는데 이게 '가검'이다. 문제는 우리와 현행법상 도검의 형태도 5cm가 넘는면 도검과 마찬가지로 취급한다는 거다. 가검이라도 도검 소지 허가 없으면 소지가 불법이다. 알겠냐? 잠깐 허리에 찬 총무급 코스프레를 하려면 일단 도검 소지허가부터 받아야 하는 거다!

» 오마케(おまけ)

일본어로 영단어 의미다. 코스프레에서는 남는 시간에 찍은 '영 어귀' 사진을 말한다. 진지한 연출 사진이 아니라 개그 혹은 스톤로리가 포함된. 당신이 미-흥미에 올리는 친구와의 설정 사진을 떠올리면 이해가 빠를 거다.



BY 김성현 PHOTOGRAPH BY 김성현
RETOUCHING BY 지음
MAKE-UP 단애정
MODEL 한희
ASSISTANT 조창진
COOPERATION 상봉투어22-3446-6434

» 치비(ちび)

일본어로 꼬리 아이라미다. 어린 캐릭터(요츠바케의 요츠바케)를 코스프레한 거 아니라, 어린 캐릭터를 어린 아이 버전으로 코스프레한 거다. 예를 들어 (예반게리온)의 뚱뚱 친 어린 미사토를 아릴 때의 꼬마 모습으로 표현하면 미사토 치비 버전이 된다. 보통은 남자 캐릭터(나무호)의 사스게 치비 '치비' 버전으로 코스프레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오덕 누나들이 격하게 아끼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케로로 중사)의 치비 버전인 울짱이가 되어 누나의 사랑을 독차지해보자.

» 영코

한미디로 '영한 코스프레'다. 노출이 심하거나 보는 사람의 눈길을 지루할 정도로 어한 코스프레는 모두 '영코'다. 무논의 코스프레고, 친 조카님 삼복 걸친 할아버지 노출 경의 모습을 떠올리면 된다. 우리나라의 코스튬 플레이어 중에는 미생녀가 많다. 그러나 이런 코스프레는 역격기 딱 좋다.

MADE IN UK

양키 코스튬 플레이어 레베카 플린트

그녀의 별명 '배키 크룩업' 은 들어보셨는지.



영국의 16세 미스녀 레베카 플린트는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하나로 천 세계 악후를 모티브로 해서 화려하게 만들었다. 메-패시너 (스즈미야 하루히)의 여주인공을 싱크로율 100%로 코스프레했기 때문이다. 스즈미야 하루히러면 환장하는 열도 팬들이 그를 여신으로 찬양했다. 오덕 돈 굴어하는 데 일가견이 있는 일본 기획사를 그녀를 일본으로 소개했다. 이제 그녀는 취미생활을 직업으로 레벨업하며 열도 덕후의 마음을 녹이고 있다. 양키의 우월한 신체 비율은 코스프레에서도 빛나는 사실을 은연으로 증명했다.

CIRCUS MAXIMI

THE FUN STARTS HERE

HOT Elderly STREET FASHION: JONG NO Style 이날 종로는 너무 뜨거웠다.

WORDS, PHOTOGRAPHS BY 김민혜, 김희성, 임기범
ILLUSTRATION 장지영



김무성(65)

고급스러움이 묻어나는 우량 그레이 소재의 아우터에 레오파드 프린트 스카프를 과감히 믹스 매치했다. 블랙 신글라스로 시크하게 마무리.



1 김경윤(76) 레드 체크 프레미움을 응용해 고급스러움과 빈티지 느낌을 동시에 살렸다. 2 김호익(66) 평소 포멀한 스타일을 즐겨 입지만 오늘은 TPO(Time, Place, Occasion)에 맞는 투박한 차콜 컬러 진면 원드재킷으로 편안함을 강조했다. 3 고수남(74) 무심한 듯 앙상로운 스포츠웨어에 비비드한 컬러의 아구 모자로 7080 유행비 록을 완성. 4 우성규(77) 데어-타입에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M.B 스타일 모자는 볼링동 로드숍에서 직접 구입. 5 이은순(75) 알고 상세한 퓨어 레드 아우터에 핸드웨어를 차용. 패션과 실용성을 모두 충족시켰다.





- ▲ **6 차종식(82)** 튼튼한 베이직 마스크와 한팅캡, 그리고 레오파드 인클레를 적용해 드라마틱한 반전을 만들어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면 합법 느낌을 줄 수 있다. **7 장나승(71)** 상·하의 모두 레드 계열로 동일한 입안 패션을 완성. 스마트한 패션 피플답게 화려한 무늬를 상의로만 집중시켜 작은 키를 커버하는 센스가 돋보인다. **8 임해영(70)** 자칫 심심해 보일 수 있는 슈트에 스카프를 활용해 멋지 있는 스타일을 완성했다. 플링클링 화이트 슈즈도 완벽하게 소화했다.
- ▼ **9 김하늘(74)**, **최상영(우, 77)** 동일한 아이템에 상의 컬러 컬러만 달리해 커뮤룩의 진수를 보여준다. **10 이영희(86)** 올 블랙 일러노 시크로에 직선 막연한 모자를 매치하고 비비드 레드 휴대폰 내걸 리스로 포인트를 줬 군더더기 없는 스타일을 완성했다. **11 윤정영(74)** 핑크 컬러 상의에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아스트 해브 아이템 토트백으로 포인트를 줬다. 플라워 프린트의 유니크한 플랫 슈즈로 리플리한 느낌을 한껏 강조했다.



ORANGE FLAVORED JELLY WITH A FRESH RAW CHICKEN HEAD

오렌지로 풍미를 살린 생닭 머리 젤리

닭 머리에는 젤린이 많이
반입해 효과적이다.
또 버섯에 함유된 비타민 A는
피부를 매끄럽게 하고
눈 건강을 돕는다. 이제 당신도
매의 눈과 개구리의 촉촉한
피부를 가진 초창정 마법이다.
아. 정동간이 울고 가네.

“여러분의 무병장수가
MAXIM의 소망입니다.”

가죽의 연골로 만든 젤라틴은
골관절 영양이다.
가진 피부 때문에 속상한
여자친구의 기분을 끌어올 로맹틱한
디저트로 추천한다. 주고받는
닭 대가리 속에 사랑이 썩는다.

재료 : 닭 머리, 판 젤라틴, 오렌지 주스, 약간의 담력

RECIPE

- ① 인도적 차원에서 눈감은 닭 머리를 고르는 것이 좋다. 물론 닭이 눈을 부릅뜨고 있다고 해서 맛이 달라지진 않는다. ② 닭 머리를 찬 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깨끗이 씻는다. ③ 판 젤라틴을 찬물에 불린 뒤 오렌지 주스와 함께 중탕해 녹인다. 취향에 따라 설탕을 넣어 달콤한 닭 버린내가 얼마나 가지 같은지 직접 느껴보라. ④ 예쁜 그릇에 닭 머리를 넣고 오렌지 젤라틴을 부은 뒤 냉장고에서 굳힌다. 얼마가 냉장고에 있는 닭 머리 젤리를 보고 놀라면 “조카 과학 숙제” 라거나 “동생이 요즘 악마를 숭배하는 것 같다” 고 둘러대라. ⑤ 젤리가 굳으면 그릇에서 꺼내 차갑게 즐긴다. 차갑지 않으면 냄새 때문에 도저히 먹을 수 없다.

PHOTOGRAPH BY 김경식 RETOUCHING BY 빅 ASSISTANTS 김민혜, 김희정
COOPERATION 닭 머리 15개를 1년 동안 판매한 개미시장 직원 리준 나무우옹 내로남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따라잡기

그까짓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3분 짜장 대우 시간에 만들 수 있다.

1 제목을 정하라

- MAN
(당신! 이하는 히어로를 대부분은 이런 제목이다)
- New Beginning-, ○○○! (2년간 중국시장 우러 온 프랜차이즈 시리지가 올해 또 새롭게 시작했다)
- 20XX (재난 영화에 이보다 더 좋은 제목은 없다)
- 아무가(나, '사랑'은 들어가면 안 된다)

3 파트너를 골라 팀을 꾸려라

- 잘생기만 한 흑인
- 잘생기고 머리도 좋은 흑인
- 매너 좋고 공부 잘하는 동양인
- 태클을 즐기게 생긴 아랍인

5 주인공을 골라라

- 힐 스티브 (잘생기고 머리 좋고 노래 잘하는 흑인이거나)
- 톰 크루즈(루저의 화성)
- 잭 블랙(매끈 주인공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 스티브 시걸 (이 세상에서 가장 목을 잘切的는 남자. 액션물에서는 전설이 아닌 레전드)

각 항목의 점수를 더해라

- ①: 5점 ②: 2점 ③: 10점 ④: 0점
- ①: 7점 ②: 10점 ③: 8점 ④: 10점
⑤: 10점 ⑥: 7점 ⑦: 5점 ⑧: 4점
- ①: 10점 ②: 7점 ③: 5점 ④: 4점
- ①: 3점 ②: 9점 ③: 7점 ④: 10점
- ①: 10점 ②: 4점 ③: 7점 ④: 2점
- ①: 7점 ②: 5점 ③: 10점 ④: 0점

2 다음 항목에서 각각 하나씩 골라 이야기를 만들어라

- 오케 히어로가 (a) 헬리콥터가 자꾸와 카스하는 걸 막다.
- 매너 바른 엘프가 (b) 훌륭한 자질을 품어 예 레깅스를 입은 악당을 처치하라.
- 황금 갑옷 탐험가 (c) 뉴욕의 위생을 위협하는 거대한 쥐새끼와 시궁예를 방지.
- 미아라 페티사 (d) 친구의 여자를 자기 것으로 만들다.

4 일 별은 사람들이 스크린에 버티구이 오징어를 던질 만큼 화려한 막장 설정을 집어넣어라

- 아드레날린이 부족하면, 여자 주인공과 길거리에서 싸움 치는 난감한 영웅이 등장한다.
- 웃돈된다 웃성인 마초 경찰관이 알고 보니 '미생의 개'가 왔다
- 서번 벤치는 미나가 병귀를 끼기 좋아하는 녹색 괴물과 시궁예 빠진다.
- 히어로를 사냥한 여인이, 그의 X일 친구의 어머니의 장부의 사생아 동창의 주저앉았다

6 영화 개봉 즈음에 주변배우에게 요구하라

- 차질이 심해서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연기하라. 이 창에 치료도 치질로라.
- 오르파 윈프리 쇼에서 미친 농처럼 발랑 뛰여 다녀라. 실랑 그것이야 마자만 출연이 필자이다.
- 이사와엘을 비난하라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용종을 기다리라.
- 자유의 여신상 밑 앞에서 영어로 굶을. 하루 러틴 그 날로 유투브에서 행 타린다.

“축하한다! 당신의 작품은...”

→ 20~35점

개봉과 동시에 P2P로 직행! 영화에 대한 관심은 적어라. 슬퍼하지 마라. 당신의 작품은 영화관에서 내리오도록 간에 P2P 사이트에서 활발히 공유되고 있을 것이다. 영화를 공짜로 다운로드하는 건 불법이고, 사람들이 영화를 봐 주기라도 하면 다행이다.

→ 35~50점

평점은 했다. 망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자. 주말 저녁, 극장에 (이이던 맨)를 보러 왔다가 자리가 없을 때 당신이 만든 영화를 볼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큰 기대는 마라.

→ 50~70점

인기 대폭발! 당신은 돈을 찍어내는 기계! 평론가들은 입을 모아 비난하지만, 대중은 당신 영화를 보며 재미있다고 난리다. 무엇을 망설이랴! 지금 당장 속편 제작에 돌입하라. 무 배! 무배!



사람 낚는 뽀름 영화 제목

외국 영화 제목을 번역한 것 중엔 대단한 직영 센스로 관여를 몰아치는 작품이 있다. 그다가 부디 낚시질의 희생양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방정환 선생을 보면서 선생-제자 하르덕이 고조들을 끌어낸 기네스 영화를 모아봤다.



1 1주짜? 마래

원제 Bad Boyz(나쁜 남자)
줄거릴 할다가 결국 안 된다. '5세 관람가'에 낚인 우리가 방심.



2 엑스 마래링

원제 Love Ocean(사랑의 대상)
섹스들을 끼고 살던 현상부작용자가 망상에 빠져 여자를 강간하고 섹스들로 만든다는 사스레로 스텔라! 이 영화는 전체 한국인 장정기를 만나 '섹스 마래링'으로 부른다.



3 아이돌엑스

원제 Shoshon(그림자속의 소녀)
국민 오징어(어린)이 되는 핵자근한 성장 영화는 아니고, 한 사람 소녀가 일본에서 호스티스로 일하면서 느끼는 불안, 초거기 등을 '아이돌', 섹스도 없애 '그림' 부른다. 성형권 톨고 인도로대도 기는구한다.



4 돈 잃고 몸 버리고

원제 Hed(돈만먹고)
재수 읍 붙은 한 남자의 하우를 그린 코미디 영화 '오래', '아니 최소'은공 정도를 기대한 당신은 돈 잃고 성격도 버리고.



5 죽어낸 제니퍼

원제 Jeremy's Body(제니퍼의 유체)
여자가 된 고내 칸가 제니퍼(제니)가 남학생을 유혹해 죽인다는 내용의 책이 호러 코미디 영화 '매간 폭스의 노숙 수유자' 낮아 전 세계 개봉이 좋잖아! 출시된 유괴를 당했다. 매간, 야비로 죽으면 백을 뭉든 데 나 누우려는 거 야다.



6 엑스 아카데미

원제 Not Another Teen Movie(또는 영웅)
후한한 여선생과의 육탄전을 고대하며 '스승의 은혜'를 부를 당신에게는 미안하지만, 이 영화는 (신랑은), (아메리칸 뷰티) 등을 평행한 패러디 코미디이다. 뭔 가 있을 거야? 끝까지 기대를 버리지 않다가는 미쳐버리고 끝나다.



7 웃기라는 엑스 아카데미

원제 National Lampoon's Present Date(웃음꽃을 피우라)
대형고 기수(수)를 배경으로 한 번의 마스터 코미디 영화로 섹스를 가르쳐주는 강의 때문 안 나온다. 이 한글 제목을 붙인 사람은 '학교'나 '가수사'라는 단어만 붙여 불리는 변태들이 즐림었다.

KILLINGZOO

WELCOME TO MOUNT LAND!

여기 가장 최강의 동물원을 소개한다.
몸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정 · 말 · 로 죽여주니까!**

*난독증인 당신을 위해 미리 읽어지면 실제 시간에 가까운 픽업이다
ILLUSTRATION 마하군



1 범고래 탈리콤

미국 올랜도의 사할트에서 조련사를 살해한 범고래 탈리콤은 범행 의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과거에도 메징 후 공격에 들어온 남자가 그의 수조에서 사체로 발견된 일이 있으나 아무런 법적책임을 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의 뒤에는 강력한 후견인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2 사자개 뉴뉴

중국 하이퉁성 상에서 사자개라고 불리는 티베탄 아스티프족 '뉴뉴'가 먹이를 주려 온 주인을 살해한 것으로도 모자라 인육까지 먹는 친화한 범죄를 저질렀다. 실제 현장에서 직접된 두에도 태연하게 입에 물은 피를 핥는 등 뉴뉴는 기색이 없게 그 자리에서 사살됐다.



3 불개미 떼

미국 플로리다에서 불개미 조식이 애완견과 함께 산책하던 성인 남성을 공격해 목숨을 빼앗는 사건이 일어났다. 한동안 잠정했던 이 사건의 초지목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역 유통업사의 이권 다툼에 따른 상대 조작범 기습 보복으로 보인다. 조작 목격 근황을 외치고 있는 플로리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구호만 앞선다는 불명예를 떠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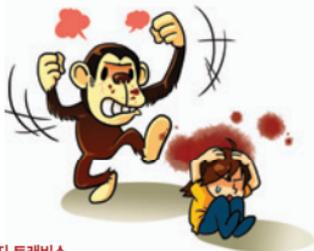
4 회색곰 푼키

할리우드 인기 스타 회색곰 푼키가 훈련 중 조련사를 물어 살해했다. 국민들은 평소 푼키 행동을 막기 위해 준비해두었던 후추 스프레이조차 먹이지 않았다는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역시 화성방 훈련을 가진 군필 스타 리어 고개를 고대하고 있다. 원한 관계와 함께 과도한 관심에 의한 우울증 여부도 조사 중이다.



5 가오리

오전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산호초 군락 그래픽트 배리어 리프에서 신원 불명의 가오리가 다쿠엔타리 촬영 중이던 '먹어 사냥꾼' 스티브 어윈을 독침으로 찔러죽이고 유유히 사라졌다. 그가 먹어의 사주를 받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세계 여러곳에서 가오리 독침의 희생자가 많은 것으로 보여 연세 살인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그가 전문 길러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계차 추적 등이 어렵기 때문에 미세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7 칩팬지 트래비스

CF 스타 칩팬지 트래비스는 주인 해럴드의 집을 찾은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다 경찰에 사형선다. 트래비스는 이전에도 폭행 난동 등 각종 사건에 연루해 말복숨이 찰리우드 악동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폭행 당시 이성을 잃은 트래비스의 모습에 악몽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이어지고 있다. (오모리 원프리 쇼)에서 공개된 피해자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짓이겨져 충격울 했다.



7 돌고래와 물개 일당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출근한 지 30분에 안 된 신인 조련사가 갑자기 동물원에 가지 않겠다며 눈물을 흘리 통곡한 후에서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함께 쇼를 하는 돌고래와 물개 등이 이치제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속에 동물원 측은 "돌고래와 물개가 빠르게 해엄치고 손뼉을 치긴 했지만 이치제를 한 적은 없다"며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나 대중은 무라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8 비단뱀

미국 콜로라도의 한 비단뱀이 두 살 된 딸집 아이를 살해한 피의자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비단뱀의 변호인단은 "아이의 귀머거리 나머지 파안아주고 보니 어느 순간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며 과실자살을 주장하고 있으나 아이의 아버지가 "비단뱀이 아이의 머리를 무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해 지리한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9 원숭이

중국 후베이 지역에서 공연하던 원숭이들이 갑자기 조련사 로망에게 이단 염차기를 날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원숭이들은 "작악관각각~작악관각"가 내 어머니를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중재하는 관객에게 원숭이들은 "우리가 사과를 한다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존경을 잃는 것"이라서 사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10 호랑이 5형제

독일의 한 동물원에서 '파겔 디너 서커스' 도중 조련사가 넘어지자 호랑이 5마리가 달려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다섯 형제 모두 파티를 맺고 사냥을 하는 모 온라인 게임을 3일 밤낮으로 즐겼다"는 주변의 진술에 따라, 게임에 중독되어 모방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온 힘을 쏟고 있다.

5월은 잔혹 어린이 세상

방장한 선생님과 레알링덤론다더 치를 뿜 무서운 아이들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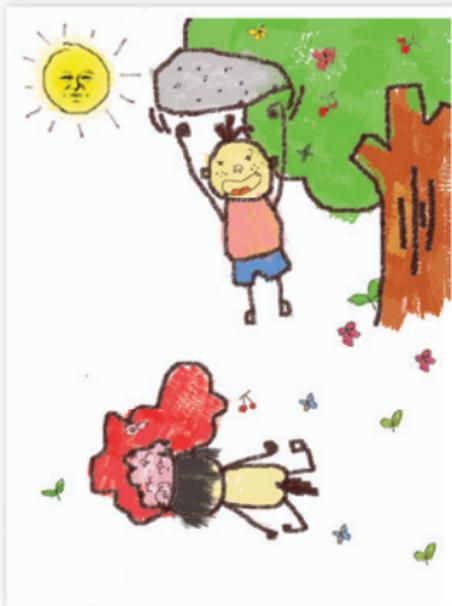


ILLUSTRATION 5381

제목: 13살 뉴요커 에릭 스티치의 일기									
1993년 8월 2일 날씨 해미가 밝았!									
공원	에서	데릭	을	목	줄				
라	죽였다.	기쁜	이	좁					
아저	데릭	의	옷	을	벗겨				
보	았다.	와!	사	구	영				
이다	~!	나	뭇	가	지	를	뺏		
개	주	워	집	었다.	나				
무	야,	영	양	분	먹	고	속		
쑥	자	관	라	~.	돌	덩	이	를	
주	워	서	데	릭	마	리	위		
에	떨	어	뜨	리	고	음	표	수	를
부	었	더	니	용	할	생	도	원	
성!	보	람	찬	하	루	다.			
새로운 경험을 했구나!									
학의원은 2월에 귀한 거란다.									

7세 미국 플로리다 주 한 소년의 일기

1998년 12월 22일
날씨 해미가 구름이 많

이빠와 이빠 여자친구가 사는 집에 놀러가파. 코딱지만 한 여동생 레니가 응애에 울고 이빠다. 내가 울면 화내던 이빠가 레니에게 우루루 꾸꾸 하며 웃는다. 기분이 더러워지파. 이빠 몰래 레니를 주먹으로 때리니 또 응애에 했다. 짜증이 났다. 발로 차고 멧쟁이 야구선수처럼 방망이를 휘둘러파. 아호! 레니가 조롱해져 다니 기분이 참 좋았다.

>> 기분이 좋았다! 다들아구나.

10세 영국 메리 벨의 일기

1998년 12월 1일
날씨 구름도 내 어둡을 일기

단지 남자에 돌을 죽였을 뿐인데 경찰에 끌려왔다. 참 나! 괜히 브라이언의 배에 N자를 새겨서 증거를 남겼다. 그것도 안 예뻐서 M자로 바꿨는데, 경찰은 그것까지 알아냈다. 민만하게 보이면 되겠는걸? 가위로 브라이언의 머리카락과 고추를 증 손봐준 것도 들릴 것 같다.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말했다.

>> 공 무순으로 변호사를 선임
하러는 걸 보니 마음이 뻔하구나.

14세 미국 플로리다 주 리오넬 테이트의 일기

2001년 3월 10일
날씨 초년 맑음

내 인생은 끝났다. 말할 편사가 증신형을 내렸다. 2년 전 야마 친구 밑에 장난을 쳤는데 오게 죽어버렸기 때문이다. 장난으로 개 목에 헤드록을 걸었다고 증언했다. 사실 내가 티파니 위로 점프했다고 말을 바꿨다. 아무리 개가 만신창이로 발견했다고 해도, 나에게 증신형이 라니! 장난도 못 치나?

>> 장난은 쳐도 죄는 내 평생 남
려 죄만 안 때려-

14세 일본 고베 사카카바라의 일기

1997년 5월 27일
날씨 구름이 우정을 방해했어요.

인간은 얼마나 유약한까! 준은 내가 죽인 초딩 중 하나. 실름으로 머리를 질러더니, 스고! 나도 모르게 싸버렸다. 다시 손수 해지기 위해 녀석의 피를 마셨다. 이 정지능한놈이 손수 쓴 편지와 함께 질러낸 준의 머리를 고문 같이 전사했다. 나는 야 SHOOL KILLER! 사람을 두 번 죽일 수 있더구나.

>> 영리! 안하쿠나. 원지들 모
면 하에 꾸러기 안고 한글로 쓰렴.

10세 영국 로버트의 일기

1998년 2월 12일
날씨 구름이 우정을 방해했어요.

준과 함께 두 살배기 제인스를 유괴했어! 친구는 무엇인데 함께 하나까. 제인스를 벽돌과 쇠막대기로 마구 때려죽인 뒤 입에 간전지를 넣고, 옷을 벗겨 고추를 가지고 놀았어요. 금방 실름이 나서 철도 위에 제인스를 올려놓고 만화를 보러 갔어요. 제인스와 기차가 팔파리이징하여 제인스가 두 통강 나면 더 신나겠조? 왜애 오늘 소름장 추억을 만들었어요.

>> 출근 우정어구나. 툰이뻔 싸우
진 안고 장 지기 내요.



키워줘서 안 고마운 어버이

캐이션 대신 칼 맛이라도
싼 부모 이야기

#1 다시 내 똥속에 넣어줄게

2009년 미국의 오티 산체스는 생후 3주년 아들을 죽여 뇌를 포함한 사체 일부를 먹은 혐의로 체포되었다. 평소 정신이상인 있던 산체스는 "어린 목소리가 아들을 죽이라고 말했다"고 심해 이유를 밝혔다.

#2 다시 내 똥속에 넣어줄게

2009년 러시아의 티타야나는 5세 딸을 때리고, 15세 아들의 침대에 물레 들어가 "응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아들을 강간했다. 그녀는 아들을 상대로 성욕을 만족시키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3 다시 내 똥속에 넣어줄게

이탈리아 60대 남성 마셀리 몬젤리는 딸이 9세 되던 때부터 25여 년 동안 딸을 통제하고 강간했다. 그는 아들 자우세페 몬젤리도 이 성 폭행에 가담 하도록 했다. 후에 이 아들은 무력무력 자라 9명의 자식을 넣고 그 중 딸 4명을 강간하면서 다른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보도록 강요했다.

#4 다시 내 똥속에 넣어줄게

2008년 온라인에서 만나 결혼한 우리나라 부부가 생후 3개월 된 딸을 혼자 둔 채 PC방에서 매일 12시간 이상 '프라우스 온라인'이라는 게임 속 가상의 아이 키우는 재미에 빠져서 결국 진짜 딸을 죽게 했다.

#5 다시 내 똥속에 넣어줄게

미국의 40대 여성 르네 보먼은 정부 지원 보조금을 받기 위해 아이들을 입양한 후, 이 중 딸 둘을 죽이고 시체를 냉동고에 넣어둔 채 약 15만 달러의 보조금을 계속 받아냈다.

그래도 재물보단 좀 나은 애

부모가 결혼하라고 독촉한다면
이 기사를 보여주자.



#1 아, 나도 영아할 줄 알거든?

2007년 6월 부산의 한 5학년 여자에게 같은 반 친구의 머리칼을 자른 후, 추억과 발로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교실에서 영아 공부하는 것이 그냥 싫었다는 것이 그녀의 '근조' 있는 폭행 동기라고.

#2 나 오늘 한가해요

2009년에는 영국 초딩들 사이에 스킨십 허용 정도를 표시하는 필자가 유행했다. 새그 밴드(Shag bands : 딱 팔찌로 불리는 이 팔찌는 띠오편으로 포옹(노랑), 키스(오렌지), 포옹과 키스(보라), 가슴 노출(분홍), 나체 댄스(빨강), 섹스(검정), 에브리씽(하양) 등 일곱 종류가 있다고 한다. 초딩도 금 좋은 줄은 안다.

#3 나야 바베트 드라이버

2009년 9월 인천의 한 초딩이 승합차를 훔쳐 타고 달아났다. 이 초딩은 4km 정도 차를 몰고 가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와 부딪힌 뒤 탈출했다. 꼬마의 질주 분노는 절도도 가능하게 한다. 너 자꾸 그러면 커서 '독한' 개그맨 된다! 독해, 독해.

#4 흠, 내일 당

영국의 최연소 범죄자는 세 살짜리 포앵머리 공공정소에서 소리를 피우고 시설물을 파괴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애랑 같이 다니던 친구들은 성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다. 물러다니니까 무서운 게 없지?

HOW TO TAME DEVIL

동화처럼 어린이 길들이는 법

동화 (피글윙글 아주머니)는 한 아주머니가 아이의 버릇을 고치는 내용으로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다.

이 동화가 알려지는 어린이 길들이는 법으로 야생 적토마 같은 아동을 길들이자



일단 한 대 맞고
시작?

#1 설거지 싫다고 가솔한 아이

"접시를 닦을 때마다 마법이 풀려 공주, 왕자가 된다"며 아이를 현혹하고, 접시에 빵 조각 하나라도 남으면 마녀가 마법을 연장한다고 협박한다. 가끔 마녀 분장을 하고 아이에게 나타나서 "설거지는 잘했지만 아직 마법이 풀린 건 아니다"라고 말하러.

#2 방 치우지 않는 아이

방이 쓰레기로 가득 차 밥 먹으려 나올 수도 없는 지경까지 가버린다. 아이가 배고프다고 하면 쇠고랑에 빵을 끼워 창문으로 전달한다. 그동안 집 밖에서 매일 흥겨운 속재를 연다. 아이가 방 안 쓰레기를 스스로 정리하고 밖에 나올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

#3 구두쇠 아이

"이것은 철수 갖아니 만지지 마시오"라고 쓴 표리표를 아이의 모든 물건(밥에도)에 붙인다. 아이는 "만지지 말 것"이란 표리표가 붙

은 장난감 때문에 놀림감이 된다. 친구들에게 계속 향파를 당하면 결국 표리표를 떼고 물건을 친구와 공유하는 것으로 구두쇠 탈출!

#4 목욕 싫어하는 아이

아이의 땀과 입 주변에 단물이 들러붙어 말도 제대로 못할 때까지 목욕을 시키지 않는다. 아이가 지는 틈에 물에 아이 몸에 끈 대시 에 무순을 싣고 매일 밤 물을 준다. 무순이 썩을 때부터 아이는 스스로 목욕을 직행한다.

#5 밥 먹기 싫어하는 아이

손바닥보다 작은 장난감 식사 세트에 밥을 담아 매끼 아이에게 공급한다. 처음엔 아이가 밥을 조금 먹는데 좋아하다가 점점 야유와 온몸에 힘이 없어진다. 그리고 놀다 넘어지기 일주일 동체 악골이 되면 결국 아이는 밥의 소중함을 깨닫고 잘 먹게 된다.

21세기 소년의 대화

난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BY 김상현

대화 #1

주제 게임
(이라고 쓰고 미연시라 읽는다)

"그래 난 달백야. 게임에서 미소녀에게 귀갑 묶기를 시도하지 않았야. 미소녀는 그런 식으로 조교하는 게 아니. 친절한 언행으로 그녀가 나에게 굴복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H신이 더 자극적으로 느껴질 것 아니겠어?"

단어풀이

- 달백** (원)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전문 제작사인 (타입문)의 열혈 마니아. 달백들이 타입문의 게임의 스토리는 소설 못지 않다고 주장하는 동안 수많은 미연시 마니아의 마음을 받는다.
- 귀갑묶기** (원) 끈으로 사람을 '갑(甲)' 자 모양으로 묶는 방법이다.
- 조교** (원) 폭력으로 상대를 제압해 순순히 일을 듣게 만드는 행동. 현실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면 바로 감옥으로 직행하니 유의할 것.

단어풀이

- 역할렘물** (원) 수많은 꽃미남이 한 여자인 바라보는 장르. 도대체 왜 일처다부제로 돌아가려는 건지!
- 먼치킨** (원) 소설 <오즈의 마법사>의 난쟁이족이다. 보통 애니메이션에서는 '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캐릭터'라는 의미.
- BL** (원) Boy's Love의 준말이다. 한마디로 꽃미남의 후끈한 러브 스토리.
- 백합** (원) BL의 반대. 꽃미녀의 러브 스토리다. 왜! 왜!
- 로리콘** (원) 로리타 콤플렉스의 줄임말. 어린 소녀에게 상적으로 끌리는 변태남이다.
- 브라콘** (원) 브라더 콤플렉스의 줄임말. 오빠나 남동생을 이성으로 느끼는 정신 나간 여자.

대화 #2

주제 애니메이션

"이번 분기에는 역할렘물 없어서 다행이라는. 작년에 <채운곡 이야기>를 보는데 꽃미남만 진득 나오서 완전 짜증났어. 요즘은 <헬싱(OVA)>만 나오길 손꼽아 기다릴 뿐이야. 확실히 먼치킨이 다른 애니메이션에서는 보이지 않아. 이제는 TV에서도 대놓고 BL이나 백합물 같은 설정을 끌고 가더군. 로리콘과 브라콘도 유머 코드의 힘을 빌려 등장할 정도야. 애니메이션이 예전 같지 않아. 실망이야."



뿌우우!!

대화 #3

주제 이상형

"내가 포니테일 스타일의 청순한 아가씨 좋아했잖아. 그런 애들이 판치라에 나오면 끝내주게 귀엽거든. 그런데 <엽기인걸 스나코>를 보니 생각이 좀 바뀌더라. 고소로리 스타일도 폼에 좋은 여자가 소환만 잘하면 엄청 sexy하겠더라고! 흥대에서 고소로리를 완벽하게 소화한 여자를 봤는데 장난 없었어."

단어풀이

- 포니테일** (원) 머리 끝을 말꼬리처럼 늘어뜨린 헤어 스타일. 보통 여기에 예지 있는 리본을 장식해주는 경우가 많다.
- 판치라** (원) 팬티와 치라리(일본말로 '실뺑'이라는 뜻)를 합쳤다. 여자라면 주·조연 엑스트라 가리지 않고 팬티를 보여주는 데 유효하는 상업 애니메이션이다. 1997년작 <아이카>가 대표적이다.
- 고소로리** (원) 고딕(Gothic) & 로리타(Lolita)를 합친 말이다. 심해진이 시트콤 <안녕 프렌체스카>에서 입은 검은 드레스, 후카다 코코가 <불랑공주 모모코>에서 입은 레이스가 잔뜩 달린 중세풍 드레스 같은 스타일이다.



단어풀이

- 영어** (원) 쓰고 남은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필요 없는, 하찮은'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말로 쓰인다. '영어 인간'이 대표적이다. 영어 인간 상태가 심해지면 잉여킹으로 업그레이드된다.
- 레알** (원) 'REAL'을 발음 그대로 읽은 것. '진짜로, 진심으로' 정도의 뜻으로 사용된다. 자매풍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있는데 물론 농담이다.
- 로얄** (원) 레알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의미는 동일하다.
- 중2병** (원) 사춘기를 일컫는 또 다른 말이다. 세상을 뼈뼋하게 바라보며, 자신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어 고독하다고 느낀다. 보통 자신의 세상에 돌아보면 남들이 알아지지 못하는 혼잣말만 늘어놓는 사람에게 '중2병' 환자라고 말한다.
- 링딩동네** (원) 사치니의 '링딩동'과 '소름'동네'의 합성어이다. 여기서 '동네'는 '소름 동네'의 줄임말로 감탄의 의미다. '동네'와 어울리면 어떤 단어를 앞에 붙여도 상관없다. 대표적인 예로 '설음동네, 정현동네, 링딩동네, 레알동네' 등이 있다.

대화 #4

주제 친구

"야 네 친구 잉여킹? 도대체 어쨌게 생겨 먹은 놈이야? 이번에 팀 프로젝트 같이 하는데 로얄 짜증나. 이걸 영력없이 중2병 걸린 오덕 같더니까. 이번 학기에는 반드시 장학금 받아서 여름방학을 링딩동네 정도로 즐겁게 보내야 하는데! 망했어. 완전히!"

잉여들
저네...



나는 남들과 다르고
난 타인의 주인공이다
난 언제나 자식을 꿈꿨다
난 우유주기에 걸렸다.



대화 5

주제 중고장터

"그 우유맛 정말 민트급 맞아요? 예전에 다른 분이 민트급이라고 해서 믿고 선입금 택배 거래를 했는데 C급도 안 되는 녀석이 왔더군요. 이번엔 직거래로 꼼꼼하게 제품을 확인하고 구매하고 싶습니다. 현장 네고 안 하니 걱정 마세요."

단어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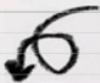
- 민트급** (원) 미국에서 상태 좋은 중고차를 부르는 말이다(오래되고 상태가 별로인 중고차는 레몬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사용 제품 혹은 사용을 거의 하지 않은 제품이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한다.
- 현장 네고** (원) '현장 네고/세이션'의 준말이다. 중고 제품을 직거래할 때 현장에서 가격을 깎으려는 시도를 뜻하는 말이다.

- 3배 빠르다** (원) (기동전사 건담)의 실질적인 주인공 사야 이즈나를 기억하나? 그는 늘 붉은색 전용 모빌슈트를 사용했는데, 양산형 기체보다 3배 빠른 속도를 자랑했다. 여기서 '3배 빠르다' = 붉은 색이라는 공식이 생겨났다.

대화 #6

주제 스포츠카

"와 역시 스포츠카는 '3배 빠르다'는 색이 제격이지."



★ SHOOTING LIKE A STAR

스타처럼 간지나는 사진을 찍고 싶나? 임팩트있는 인기 연예인님 **윤성호**와 **제가 많이 늦었죠?**의 **양상국**이 허세 사진 연출법을 알려준다.



IMAGES: 차기 촬영, 미를 찍은 차기, 김나, 시라(Shy, Ingo) (Instagram)

꼭 뽀은 강남대로와 옛지있는 버스 전망관, 그리고 다스곳하게 모은 윤성호의 무릎.

★스타라면 - 두통, 애원동물 셀러브리티는 '이 죽일 놈의 인기' 때문에 늘 머리가 아프다. 두통을 달래줄 귀여운 애원견은 필수. 시라! 재킷 지니, 블랙 블랙 밴드 ZIFA, 펠트 STONE ISLAND, 슈즈 SWEAR LONDON, 티셔츠 JEEP, 신 글라스 에디터 소용





이 사람 화장실 못 간지
5일 했어요!



★스타리엔 - 찍자!

이 포즈는 본인이나 매니저가 연습해도 된다. 우리 양상국 매니저에게 맡겼다. 손가락 끝 하나 하나에 힘을 주고 간격을 최대한으로 엇지리게 벌리는 게 포인트! 블랙 슈트, 셔츠, 선글라스, 타이, 벨트, 구두, 화이트 자켓, 셔츠, 블랙 팬츠, 선글라스 모두 개인 소장



"지금 통장에
임팩트 왔어요."



★스타리엔 - 손도 없고, 발도 없다

그렇다. 스타는 손도 없고 발도 없다. 그래서 바가 봐도 직접 우산을 들지 않는다. 누군가 들어주지 않으면 차라리 내리는 비에 몸을 적시고 싶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아이보리 슈트: ZARA, 블루 셔츠: NERMEZZO, 벨트: STONE ISLAND 크라이 재킷: ZARA, 화이트 셔츠: CP COMPANY, 블랙 팬츠: ZARA

Behind Story

촬영 당일 날 서울에 허리케인 강림하신 줄 알았다.

이게 시방 봄이여 겨울이여. 비 오기 직전의 시꺼먼 하늘 아래서 민소속 티셔츠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촬영하느라 두 인기 연예인들 고생이 만만치않아 아니었다. 모델 출신 윤성호야 당연히 자연스럽게 찍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이 날은 모델 양상국을 재발견한 날이었다. 게다가 양상국은 촬영 한 시간 전에 와서 모두들 감동시켰다. 아, 자꾸 험한 웃음 달라는 윤성호에게 "돈도 잘 버시는 분이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통장에 임팩트 왔단다. 그대들이 더 유명해지고 돈도 더 많이 벌기를 바란다. 그대들은 진정한 인기 연예인 자격이 있으니까.



윤성호의 각성미, 근데 살 좀 빼셔야겠어.

★스타리엔 - 중지

인기 연예인 처음 보는 사람처럼 시도 때도 없이 카메라를 들이대는 무례한 파파라치 때문에 스타는 가끔 짜증이 난다. 그럴 땐 카메라를 향해 중지를 날린다. BK의 핵감수렴급 미소를 함께 날려주면 당신도 연타처를!

(해님 스커트: 남다른 더 블루어인지 험 바지 무료 수신해준 사랑님 강세, 선글라스, 블랙 재킷 솔리리스트 티, 레인 부츠는 모두 에디터 소장



형님, 오늘 물 좋아요!

BY ZANY PHOTOGRAPHS BY BUNNY ASSASSIN'S KOREAN JOURNALIST

재도 의사랑 했나 봐!

- 이래서 주시경 선생님이 **뵤어쓰기** 를 강조하셨다.



1단계: 의사랑 해도 될까?

유리상자 의사랑해도 될까요?

서영은 의사랑 하긴 했었나요?

린 의사랑 했잖아

씨어 의사랑 했어요

윤도현 의사랑 했나봐

켄 의사랑 해서 미안합니다

2단계: 의사랑 하는 이유!

유재하 의사랑 하기 때문에

채연 의사의 느낌

부활 의사랑 하면 할수록

태진아의 의사랑은 장난이 아니라

서문탁 의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에프터 레인 의사랑 하지 말 것을

3단계: 의사랑 해야 한다!

리치 의사랑 해. 이말 밖에는

유승준 의사랑해 누나

장나라 의사랑 하기 좋은 날

GOD 의사랑 해. 그리고 기억해

SG 워너비 의사랑 하길 잘했어요

유엔 의사랑 해요.
당신이 날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도

WORLD BEST

최고의 구멍들 BEST 5
미안하다. 그 구멍 이야기가 아니다.

5위 블루홀 (Great Blue Hole)

위치: 유카탄 반도 벨리시

깊이: 125m

용도: 최고의 스쿠버 다이빙 포인트
특정 육지의 구멍들에 비하면 별로 깊은 않지만, 폭이 300m에 달하는 바다 최고의 구멍이다. 스쿠버 다이빙 포인트로 인기 만점인 장소지만, 빠져 죽은 스킨 스쿠버의 수가 1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4위 빅홀 (Big Hole)

위치: 남아프리카 공화국 린넬리

깊이: 355m

용도: 다이아몬드 광산
특정 77~94센티까지 약 140만 কে랄의 다이아몬드를 캐낸 후 영입을 종료했다. 1967이 0.2g 정도-1kg 약 3000kg의 다이아몬드 가 이곳에서 나온 셈이다. 싸구려 다이아몬드 1967도 큰 액만 얻은 사본이 뒤바뀐다. 그러면 3000kg은 도대체 얼마나 스펀지? 당산이 계산해준다.

3위 재비 동굴 (Cave of Swallow)

위치: 멕시코

깊이: 50m

용도: 재비들의 산터
스카이 다이빙의 놀이터
특정 세계 최고의 수직 동굴이다. 이곳에서는 300m의 자유 낙하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번지점프대의 높이가 50m 정도 되는데, 이곳은 번지점프를 연속으로 7번을 해야 동굴 끝에 겨우 닿는다는 거다. 스카이 다이빙이 괜히 이곳을 최고의 놀이터로 생각하는 게 아니다.

2위 미르나 다이아몬드 광산 (Mirny Diamond Mine)

위치: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

깊이: 900m

용도: 다이아몬드 광산
특정 195년부터 50년동안 다이아몬드를 채굴했다. 현재는 문을 닫고, 사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미 뿔을 뽑을 만큼 뽑았는데 어가했지?

1위 빙햄 큐리 광산 (Bingham Canyon Copper Mine)

위치: 미국 유타주

깊이: 약 1200m

용도: 구리광산

특정: 폭만 4m 가까이 되는 거대한 구리 광산이다. 얼마나 큰지 우주에서도 보일 정도다. 인간이 지구에 뚫은 가장 깊은 구멍인데, 깊이가 1200m에달한다. 69명(24세)으로 5층 팀을 뺐은 것과 비슷한 놀이다. 미국 양키들이 얼마나 저주스럽게 구리를 파냈는지 알겠지?

용도별 시체 가격

죽음 앞에 평등하던 말은 여기서 안 통한다.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SALE

37에
1천 원?

예술

미국의 사진작가 조엘 피터 워트킨은 주로 시체를 피사체로 해 작품을 만든다. 시체는 공짜로 기증받는데, 이렇게 얻은 시체는 그의 손을 거쳐 장당 최고 4천만 원(경매가는 더 높다)의 사진 작품으로 부활한다. 이것이 진정한 마이다스의 손!

관혼상제

2007년 중국, '홍'이라는 남자는 6명의 여자를 살해한 후 시체를 한 구덩이 약 30만 원을 받고 팔았다. 이 시체들은 죽은 아들의 영혼 결혼식을 위해 사후 배우자를 찾는 부모에게 팔렸다. 애원권 한 마라도 30만 원은 넘는데 신부가 30만 원이라니, 이거 너무하잖아!

식용

2009년 11월 러시아의 한 노숙자가 행인을 살해해 일부는 자신이 먹고 나머지는 케밥 가게에 판 시간이 있다. 열마를 받았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판매자의 신분과 고기의 용도로 미루어 봤을 때 그리 큰돈은 아닐 듯하다.

의약품

2004년 일부 미국 의과대학은 기증된 시체의 상단수를 제약회사와 의약품 제조업체에 팔아넘겨 돈을 챙겼다. 시체 한 구덩이 가격은 약 2천2백만 원이며 신선도와 해송정도에 따라 가격이 달랐다. 의사가 시체 등급까지 매겨야 하더니 역시 의대 등록금이 괜히 비싼 게 아니었다.

반쯤은
안 돼요!



BODY APART 부위별 장기 가격

두지는 분산 투산 시체도 조각 시체



신장

파키스탄과 브라질에서는 약 8만 원 미국 약 1억 5천만 원 터키에서는 최고 280만 원 정도에 신장을 구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장기 매매 스티커에 적힌 전화번호로 장난전화 한 번 해봐도던 예타의 자판에 따르면 약 1천만 원 정도. 하여간 '이력' 문제가 가장 비싸다.

머리

2007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중국의 미국인 학자 덩정제가 유.류는 개당 약 16만 원을 받고 해골을 팔아왔다. 미국에서는 머리 뇌 없는 머리, 뇌가 각각 5만 원 이상에 팔린다. 해골이라서 쓴 건지, 중국산이라서 쓴 건지 판단은 독자에게 맡기겠다.

피부

사람의 전체 피부 면적은 1.3~1.6㎡다. 이를 바탕으로 인간 곁집의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 최대 가죽 전문 사이트에 인피 가격을 문의했다. 당당치는 '인간' 가죽은 개 가죽과 가장 흡사하다. 개 가죽은 중국에서 북 제작용으로 가공하고 개 가죽 가격은 신장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는 대급과 함께 '인간의 가치를 이런 식으로 다루는 기세에는 도를 주고 싶지 않다'는 면적을 따먹고 전화를 끊었다. 은 그래서 고작 우리가 알아낸 건 동물 가죽 전문가 야자마가 굉장한 휴머나스트였다는 사실이다.

지방질

2009년 1월 페루에서 어느 경연이 수십 명을 살해하고 시체에서 지방질을 뽑아 이를 화장품 회사에 팔아넘긴 사건이 있다. 지방 가격은 1kg 약 1천5백만 원. 지방 출입 전문 성형외과에 문의하니 '수술 시 한 사람의 몸에서 빼낼 수 있는 지방은 2~3kg 정도'라니고 말했다. 당시 몸은 최소 3천4백만 원의 가치가 있으니, 오늘날 터 열십이 인간 유전을 불러보재

천재들이 사는 법

다들 그렇게 천재가 되는 거야.



당신을 존경해요.
나와 닮은 당신, 인간적이네요.

1. 위대한 극작가이자 시인인 베르톨트 브레히트 전 당신을 존경해요!

"세상에 신은 없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건지지 못했을 테니까." 라고 말한 당신은 별래를 무시하며 자연으로 된 관에 물어 달라는 유언을 남겼지요. 저도 별래가 무서워요. 그 끔찍한 생명체가 절 쳐다보고 있을 때면 정말이지 자살하고 싶답니다.

2. 스릴러 영화의 가장 히치콕, 전 당신을 존경해요!

당신은 27세 때 처음으로 여자의 생리에 대해 알게 되었죠? 저도 여자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답니다. 당신 성관계를 갖는 것보다 밥을 먹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서요? 저도 마침내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또 당신은 자주 외로움을 토로하며 울곤 했나요? 알싸해서 저도 그렇거든요!

3. 위대한 문학가 프루스트, 전 당신을 존경해요!

당신은 자위 대마왕이었는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다른

점은 당신의 훌륭한 아버지가 지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당신에게 돈을 주고 매춘굴에 가라고 권유했다는 거겠지요. 당신은 너무 흥분해서 침실용 변기를 부수고, 그 흥분 때문에 섹스를 하지 못했더니 아버지가 더 많은 돈을 요구했나요? 혹시 당신도 일을 치루기 전에 혼자 바지에 싸버렸나요? 그래서 흥분했던 건가요? 그렇다면 전 당신을 더 사랑할 것 같아요.

4. 베토벤, 베토벤, 전 당신을 존경해요!

당신은 시도 때도 없이 손바닥에 침을 뱉곤 했는지요? 예쁜 손수건에다가 가래를 뱉고 한동안 그것을 명하니 바로기도 했대구요. 전 가끔 제가 눈 통을 지그시 바라보기도 하는데, 참 요요한 순간이죠?

5. 작가 에리히 캐스트너, 전 당신을 존경해요!

당신은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에 섹스 성공담을 아주 자세히 썼대구요? 양말에 걸린 것도, 그것 때문에 페니스가 따끔 거리는 아이기도 빼놓지 않았대구요? 당신도 혹시 엄어 없는 세상에 생각하면 코끝이 찡하지 않나요?

HOW TO

천재적으로 사랑하는 법

1단계 여자가 좋다.

혹시 당신이 스무 살 넘도록 숫송구라라면 게드랑이의 말을 제거하고 그 자리를 하늘색으로 채워라. 커튼으로 인해 색이 지워지던 면도 칼로 그 면도 커튼들을 만들고, 생선 기름과 연소 통을 굽어 만든 만산인의 항수를 부려준다. 차, 그릇 만산 준비 끝. 그릇을 데려와 발가벗겨 그냥 채워라. 분다. 그녀가 당신을 만지려 하면 소리를 지른다. 그리고 계속 바라본다. 그녀가 입을 뿜 중을 참으면서 오르가즘을 느끼면 된다. by 달리

2단계 결혼이 하고 싶다.

당신과 달리 그녀가 동등 결혼에 관심이 없다면 그녀에게 육을 따부어라. "여아! 비백 이론 알려주어! 난 성적 욕 고쳐야겠다. 데럽고, 탕배내고, 현송이 갈매 그리고, 나 인조 가솔이!?" 연락하지 않을 테야. 안돼" by 프리드리히 발렌틴 니체

3단계 남자가 좋아졌다.

남자에게 관심을 돌리자. 남자 비서를 고용하여 겹쳐서 지켜보면 된다. 그렇게 애인이 있더라도, 여자 따위 당신은 이길 수 있다. 실패해도 좌절하지 말자. 침투물이 있는 사랑기에 구루 몇 통을 기증하면 채찍질을 물려 감상할 수 있는 최극의 장소를 제공해준다. 물려 출채로 살인의 이름을 부르보자. by 프루스트

4단계 인간 따위 이제 혐오한다.

푸들 한 마리를 양양하자. 키우다 죽으면 백색로 만들어 놓아 걸어두면 된다. 푸들은 영혼이 유리처럼 투명해 위생적인 인간 따위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푸들에게 모든 애정을 쏟자. 푸들의 이름은 '세상의 열은 눈' 정도가 좋겠다. 푸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상한 육은 '인간 같은 눈' 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주의하자. by 슐라이어

5단계 살아있는 생체제 자체가 싫다.

영혼이 죽지 않는 만화 캐릭터에 애정을 쏟자. 여자 캐릭터보다 남자 캐릭터가 더 적합하다. 기용인 어떤 만화 캐릭터가 좋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만나본 그 어떤 여자보다도 그 캐릭터를 사랑한다고 커밍아웃하라. by 윌트 디즈니

6단계 다 싫다.

당신은 이제 모든 감정을 거부한다. 애들은 물론 연애도 영혼이 금지다. 장도 모든 것이 트러블일 수 있기 때문이다. 죽을 때까지 절제의 상태를 유지하라. 그러다 죽으면 양면애를 때 양에 있는 사랑에게 가슴을 날려라. 그 누가 되겠다. 상관없다. 그게 당신의 주치의라면 더 좋다. 유언은 다음과 같이 남긴다. "5는 ok." (이제 됐다) by 앙투안 클레망트



FILM FIGHT

종합 격투기 뺨치는 영화 캐릭터 간의 대혈투!
지금부터 본격적인 전력 분석 들어간다.

ACTION

STARRY MOUTH

해의 스타 자서전 말, 말.

재정산 아닌 것 같은, 하지만 그래서 기대하게 되는 해의 스타들의 자서전

케니 로긴스

당신의 사랑이 나를 병두 열두 열아주 갈 텐데 당신 손결을 잊고, 당신을 마시고 싶어 호르몬관 상태서 색소도 하고 싶어, 그리고 절정의 순간에 함께 소리 지르는 거야.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씩당산만 안 한다면

실베스터 스탤론

당신의 근육과 이야기해본 적 있나요? 근육에게 "자라라" 라고 해보세요, 전 이걸 근육 대화라고 부릅니다.



안드레 아가시

경기 전 나는 기도했다. 바란 것은 승리가 아니라, 내 헤어스타일이 날가지 않 는 것이었다.

본 조비

난 가끔 똥을 지른다. 하지만 뒤 여파라. 똥오면 그만이지.



오지 오븐

난 그의 어깨 너머를 유심히 봤다. 거 기엔 복싱 글러브를 낀 아기의 팔 같은 그의 팔근이 있었다. 그 팔내주는 물건 은 엉덩났다. 아지의 입엔 그것의 꼬의 1 정도밖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어 지 둘도 흑이 안 휘어오는 게 신기 할 정도였다. 살면서 그렇게 처음 봤다. "이봐, 양아" 그가 말했다. "바지 벗 어, 내가 먼저 하고 그 다음이 내야."



토미 리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다시 끌어오는 좋 은 방법이 있다. 시속 100km로 고속도 로를 달리면서 카섹스를 하는 거다. 자 동 속도 유지 장치크루즈 컨트롤은 절 대 사용하지 마라. 그것만 믿고 엑스 하 다가 도중에 차가 부시는 것만큼 짜 흥하는 것도 없어야.



JOHNSON VS JOHNSON

월드 오브 존슨

이런 존슨 또 없습니다.

1 존슨 앤 존슨 베이비 로션

세계를 제패한 순한 '로오스' 의 대 명사 인제 아예에 발라도 하지 않나. anyway

2 맥린 존슨

그는 크트와 침대를 오가며 매직을 부 렸다. 어머 어머 어머, 그러니깐 에이 조에 갈라지

3 파파 존스

이해는 고개 숙였지만 파파존스는 피 자 시장에서 급격히 커졌다.

4 글렌 존슨

날랜던 우회기동은 무기로 인공랜드 의 리버풀의 측면을 맞은 속구 선수. 특히 양에서 찾아주면 더욱 힘을 발 휘하는. 응?

5 존슨 시티

(만 개의 존슨이 우글거리는 미국의 한 부락. 여 장크러쉬)

6 아이클 존슨

우사인 볼트가 나타내기 전만 해도 그 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도 움직이 는 존슨이었다.

7 존슨 베이비 대화교

미국 대통령 주의 한 중합대학 입학 시 신장생 전연에게 존슨 전연 베이비 를 제공했다.

8 존슨 크리크

미국 포털통신의 일약기를 관통하는 이 강에는 청정 존슨들이 뛰는다는 소문이 있다.

9 존슨 성팅

당신의 성년 삼일기를 유해 성분으로 부터 손결하게 제거하면 40년 역의 존슨 연도 필름을 감상. 당신의 존슨 은 소중한 17억.

10 랜디 존슨

200cm의 빅 유웃은 피싱 패더다 존슨 이 흔들리지 않게 하리에 청정 강는다.



VS



람보 vs 코난

가슴골: 율기 작렬 / 브래지어 필요함

목표물: 경찰, 공산주의자 / 세상 그 모든 것

명대사: "oooooooo~" / "너 우리 얼마 죽었다. 아빠도 죽었다. 동네 사람도 죽었다"

이슈문: 장 웅얼이 / 처지기 시작한 큰 가슴



VS



헵크 vs 아이언 맨

피부 상태: 물 빠짐 주의 / 개기름 100%

즐거움: 디저트 / 슈퍼 모델 파티

함께 코디하면 좋은 것: 보리색 펜츠 / 귀네스 펠트로



VS



프레디 vs 제이슨

전작: 문자기 / 야영꾼

전투 필수품: 네일 케어 / 하키 가면

이 사람은 반드시 죽인다: 치러 가는 사람 / 누군가 방에서 비명을 지를 때 그 방에 "별 일 있었어?" 하면서 들어가 보는 사람

숫자로 본 나로호

나로호가 2차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페어링이 어찌고, 추진체가 어찌고 하는 말아들을 수도 없는 말에 지쳐 있을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똑똑한 MAXIM과 함께하는 숫자로 보는 나로호!

장전 / 33m

"미녀세" 열레나 이신바예바가 보유하고 있는 여자 높이뛰기 세계기록은 5.06m다. 이신바예바가 계양관을 써서 자신의 최고 기록 6.5배를 뛰어올라야 나로호를 뛰어넘을 수 있다.

속도 / 초속 7.9km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는 100m를 9.58초에 뚫는다. 초당 10.44m를 뛰는 셈. 나로호는 인간 영웅 우사인 볼트보다 756배 빠르다.

중량 / 140,000kg

여자 역도 세계 최강자 장미란의 인상 기록은 140kg. 나로호를 들어 올리려면 장미란 1천 명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다. 결과가 어찌됐든 꽤 장난기있다.



YOU IDIOTS!

망청해서 못 흥취한 돈들이여!



본전도 못 찾고

기름 뿜쳐 필자 고차기로 마을먹은 두 명의 김 오 씨 작정하고 7천만 원을 들여 3.5톤 중고 화물차를 구입해 유조차로 개조했다.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2천3백만 원의 기름을 뽑았으나 철보를 입수한 경찰의 잠복근무에 델미를 잡혀 투자 비용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하고 철청 신세가 되었다. 이 슬픈 사건은 지난 2월 대구에서 일어났다.

타는 냄새 안 나요?

작업 멘트가 아니다. 2007년 11월 결혼 중개업자 이 모(39) 씨는 대구의 한 사무실에 들어가 물레 글고를 훔쳤다. 철물점에 가서 글고를 돌려달라고 했는데 불행히 용접 불꽃이 글고 안으로 튀었다. 영문을 모르는 기술자는 "뭔가 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씨는 서둘러 글고를 가져왔지만 글고 속 돈은 이미 재가 된 뒤였다. 차마 말도 못하고.

I'll be back

2009년 경남 김해시에서 한 20대 절도범이 벌건 대낮에 짐을 떠다가 우연히 LP가스통에 동전을 모은 대형 저금통을 발견했다. 하지만 20kg이 넘는 저금통을 운반할 수 없어 그 아파트 지하 계단에 숨기고 새벽에 돌아와서 찾아가겠다고 마음먹었다.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에 출동한 경찰이 가스통을 발견하고, 잠복근무 끝에 이를 찾았으며 도둑을 붙잡았다.

CATCH PARK!

한희 이글스가 박 사장을 데려올 비법이 여기 있다.



- 1단계 → 2단계 → 3단계
- 움직임을 예측하라! 뉴욕 양키스를 꺾어라! 이것만은 주의하라!

박 사장은 2008년 소속 팀 LA 다저스가 내셔널 리그 챔피언십에서 필라델피아 필리스로 우승 골자 이듬해 필리스로 이적했다. 2009년도 마찬가지. 필리스의 셋업맨으로 출전한 윌트시리즈에서 양키스에 델미를 잡혀서, 망설이지 않고 양키스 일단 계약서에 서인했다. 시카고 컵스가 돈을 더 퍼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는 차라보지도 않았다.

한희 이글스가 우리나라에 양키들을 초청했다. 뉴욕에 가서 양키들을 직접 상대해도 상관없다. 이글스가 양키스를 제압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박 사장은 자신의 소속팀을 꺾은 팀으로 이적하기 때문이다. 이글스가 양키스를 꺾는다면, 그가 자청해서 독수리 유니폼을 입고 대전 한미 구장에서 시속 150km/h의 공속구를 뿌려달 거란 얘기다.

한희 이글스가 한국시리즈에서 SK 와이번스나 기아 타이거즈에 녹다운한다면 그날은 박 사장의 도로 남이 된다. 하긴 박 사장을 데리고 한국시리즈 우승하지 못하면 한화는 프루야구 접어야지. 안 그래?



MAXIM 편집부에 들어오면 누구나 한 번쯤 일풍선 때문에 머리를 쥐어뜯는다.
 독자의 0.01초 미소를 위해 MAXIM 편집부는 10,000초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
 저 능름한 개는 여자에게 입을 맞추며 어떤 말을 건넸을까?
 MAXIM 에디터들의 뇌를 리드미컬하게 굴러 나온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이제 당신이 '뽕' 타치는 캡션으로 편집부 전원을 머쓱하게 만들 차례다. 망설이지 마라.
 MAXIM은 독자의 센스 있는 캡션을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다.

1. 촉촉한 눈망울을 가진 저 차이 뭐라고 말해야 '뽕' 타지겠냐?
2. 응모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6-36번지(121-841) MAXIM 코리아 빌딩 4층 편집부나 caption@maximkorea.net으로 하라. 마감은 5월 10일이다.
3. 저 개가 사람처럼 느껴질 만큼 적절한 캡션을 달아주는 독자에게 **타이거 맥주 24캔** 또는 **1년 정기구독권을** 선물하겠다.



YOU CAN WEAR WHAT YOU WANT

"I can, I'll do!"

vann works will be your 2nd skin



basic



graphic design



UNIQLO, H&M, ZARA 등 대표적인 SPA(Specialty store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의 익사로 생산부터 소매, 유통까지 직접 총괄하는 패션 업체를 말한다) 브랜드들이 속속 심화하면서 알뜰 '패스트 패션' 은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익숙해졌다. SPA 브랜드들은 값싸고 질 좋은 의류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패션 리더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디자이너들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보유할 수 있다는 욕망은 소비자들을 사로잡았으며, 큰 성공으로 이어졌다. 이제 컬래버레이션은 패션 업계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VANN WORKS는 패션 디자이너, 일러스트 그래픽 디자이너, 포토그래퍼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컬래버레이션으로 개성 있는 디자인을 선보인다. 모든 제품은 100% 직접 디자인하고 직접 제작하는 소량 주문 제작 방식을 따르므로, SPA 브랜드 컬래버레이션 제품의 단점을 해소했다. 길거리에서 같은 옷을 입은 이를 보고 얼굴 붉힐 걱정은 접어둬도 좋은 것이다(그리고 위, 같은 옷 좀 입으면 어라, 당신이 더 키 크고 잘생기면 하던 되는 것 아닌가). 컬래버레이션과 함께 패션 업계의 주목을 끄는 또 하나의 이슈가 있다. 바로 '오가닉 코튼(Organic Cotton)'이다. 3년 이상 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흙에서 친환형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면화로 만든 면을 말한다. 최근 아토피피부염 등 새로운 형태의 질환이 양산되면서 오가닉 코튼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VANN WORKS의 그래픽 티셔츠 라인인 100% 친환경 오가닉 코튼 원단을 사용해 타 브랜드 제품의 품질을 한 단계도, 아토피로 지갑도 등을 박박 긁고 있는 당신 VANN WORKS를 주목하라!

이런 남중지추(囊中之難)의 브랜드가 어찌 MAXIM의 날카로운 눈을 피하겠갈 수 있겠는가 패션에 민감하지만 주머니는 얇은 당신을 위해 가격마저 합리치이니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의 계절별 액세서리, 신발 등 다양한 제품도 준비 중이라고 하니 지금 당장 VANN WORKS의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자. 준비 중인 여러 이벤트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6402-8299, www.vann-works.com



collaboration art work



VANN WORKS

NANO

일본 오사카 아파트 4호

08.30AM



아키오는 오늘 일을 굳건 때문에 잠이 오질 않았다. 미치카 트럭...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다 갑자기!

08.40AM

NANCKEY

그는 일어나 헤드폰을 끼고 나노키를 연결한 후 떠오른 직상을 입력했다.

08.45AM



오늘 공연 조야히 이젠 트래크은 완성되었지만 아직 미소를 하지 않았다. 아키오는 혼자였다고 생각하고 나노 컨트롤을 켰었다.

오사카, 가차역

09.30AM



가차 플랫폼에서 트래크 편집을 위해 나노 컨트롤을 꺼냈다. 나노 컨트롤로 어디든지 작업할 수 있었다.

이동중

09.48AM

NANCKONTROL

아키오는 이페일로 조야히 트래크을 보냈다. 조는 약간의 수정을 제안했고 조의 아파트에서 수정하기로 했다.



조의 아파트

6.00PM



아키오는 조에게 나노패드를 이용하여 트래크을 수정하는 법을 보여 주었다. 조는 X-Y 패드를 이용하여 완성적인 비트를 만들었다.

NANCPAD

08.59PM...



공연장... 많은 인파들

공연

10.12PM



공연은 대 성공이었다.

TO BE CONTINUED...



USB SLIMLINE CONTROLLERS
BIG IDEAS? THINK SMALL

KORG

www.mnshome.com

아트라스 BX 모터팀 창단

넘치는 힘을 주체 못하는 뜨거운 남자들의 모터스포츠 세계. 그곳에서 파란이 일어났다. By 김광현



한국을 넘어 세계적 수준의 레이싱팀 자리를 향해 달린다, 아트라스 BX!

아트라스 BX는 모터스포츠의 발전과 새로운 스포츠 문화를 만들기 위해 레이싱팀을 전격 창단했다. BX 레이싱팀은 후원 업체 조인식을 통해 아트라스비엑스, 현대자동차, 프리릭사, 엘레세, 덴스, 밀라스오일, 보덴, 로제타 스펀 등과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지난 4월 7일 경기도 용인의 아트라스 본부에서 창단식을 마치고, 5월 9일 '2010 CJ 오 슈퍼레이스' 대회의 슈퍼 3800클래스 부

문에 차서 출전한다. 3800cc 엔진, 6단 수동변속기, 후륜 구동, 고성능 브레이크를 장착한 제네시스 쿠파만 출전이 가능하기에 드라이버의 테크닉과 기량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팀원의 면면도 화려하다. 우리나라 자동차 경주 대회에서 3년 연속 부문별 종합 우승을 차지, 2009년 '올해의 드라이버'로 선정된 조항우 감독 겸 퍼스트 드라이버를 필두로, 지난 2001년 첫 고교승 포물라 드라

이버로 화제가 된 세컨드 드라이버 최해민, 여기에 각각의 경력을 합치면 60년을 훌쩍 넘기는 노련한 기술진으로 팀이 꾸러졌다. 조항우 감독은 "수년간 최고의 레이싱 경향을 갖춘 스태프들이 모인 만큼 준비에서 우승까지 프루다운 모습을 선보이겠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테니 기대해 달라" 며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드라이버 소개



조항우 (Steven Cho)
출생지 / 캐나다
생년월일 / 1976년 8월 28일
국내 최정상 드라이버, 2008~2010년 동안 3연속 부문
별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



최해민 (Choi Heamin)
출생지 / 한국
생년월일 / 1984년 1월 11일
우리나라 레이싱계의 차세대 스타. 나이는 어리지만 다
년간의 해외 경기 참가 경험과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
소리 없는 카리스마와 근성으로 레이싱계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MACHINE SPEC

- 최대 36.8kg-m, 최대출력 300마력의 람다 3.8 RS엔진 사용.
-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 단 6.5초.
- 차동제한장치(Limited Slip Differential) 한쪽 바퀴가 헛돌아도 나머지 다
큰 바퀴를 굴러 차가 움직이게 하는 장치로 탁월한 선회 구동 성능 확보.
- 고속, 험로 주행에도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 모노튜브 삽입스
바(속된 말로 쇼바, 충격 흡수한다) 최초 적용. 인장성과 스포티한 핸들
링,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BATS OUT OF HELL

하늘에 감시하자, 지옥한 '타고투저'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 지난 10년 동안 스테로이드빨 불망망이와 미친 돈 지랄에 얼룩진 야구가 제정신을 차린 거다. 양키스는 다시금 월드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고, 각 팀의 강타자는 슈퍼 히어로보다 바지런한 일꾼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킹왕짱인 투수**는 키 180cm, 몸무게 77kg의 아담한 체격에, 긴 생머리를 가졌다. 잠깐, 이런 무슨 소리아?

ALL-MAXIM TEAM:

SP

한마디로 '저 처'인 선수들, MAXIM에서 판타지 리그의 각 포지션에 하나씩 뽑아두고 싶은 최고 선수를 소개한다. 그중 몇몇은 필약한 인더뷰도 했으니, 눈 크게 뜨고 읽어보도록!

선발투수 팀 린스کم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09년 성적: 탈삼진: 261 방어율: 2.48 피안타율: 0.206

메이저리그 최고 투수, 팀 린스کم은 롯데 지바 미란스의 김태균, 일명 '김벌명' 씨가 부럽지 않을 만큼 괴물, 프랜차이즈, 씨비시트 등 다양한 별명을 보유했다. 실제 모습은 10대 소년, 더 정확히는 배트 보이처럼 생겼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생활하는 2년 반 동안 '베트 보이'란 소리를 5년 전 정도 들었다. 뉴욕의 한 식당에서 만난 린스کم은 치즈버거와 우유를 바라보며 "신체 조건에 대한 군소리는 실컷 들었다. 그런 이야기만 으로 날 설명하려 드는 게 정말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그의 고향에는 아버지와 여자인 구, 그리고 2009년 수상한 내셔널리그 사이언스 상이 있다. 스물 다섯 살의 나이임에도 김쪽한 팔에는 꽃뿔한 갈색 털이 무성하고, 주름과 수염을 찾기 힘든 맑고한 얼굴에 넘치지는 미소를

가진 그는, 샌디 쿠팩스나 사이영 같은 야구선수보다 <천재소년 투수>의 주인공을 떠올리게 한다. "사람들이 나를 꼬꼬마로 생각하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이 내 성적을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라 믿고 싶다."

린스کم은 2007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후 지금까지 가장 핫한 투수였다. 2년 동안 그가 거둔 40승 17패, 방어율 2.9의 성적은 내셔널리그 최고 기록이다. 놀란 라이언처럼 598과 1/30인 동안 676명의 타자에게 폭풍 삼진을 잡아챘다. 한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는 "린스کم이 메이저리그 최고 투수다"라고 말했다.

1993~2007년까지의 자이언츠는 X 같은 성깔머리의 배리본즈가 지배하는 팀이었다. 덕분에 억어웃은 늘 초상집 분위기였다. 린스کم은 "그가 나에게 해

코치를 하진 않았지만, 그의 이름값에 팀의 진정한 모습이 가려져 있던 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지금은 다르다. 본즈에게 해방된 자이언츠는 지난 시즌 내셔널리그 서부 지구에서 88승 74패로 경기를 마치고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린스کم 때문이다. 자이언츠는 지난 2월 그와 2천3백만 달러에 2년 계약을 맺었다.

그의 친한친 표정에도 그를 친근하게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드러운 투구 메커니즘은 부정투구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의 눈부신 네 개의 구질패스트볼, 커브볼, 슬라이더, 체인지업, 다이내믹한 투구 폼, 모든 타자들을 바보로 만든 엄청난 재능임에도 어떤 타자도 기회를 잡을 수 없었다. 은퇴한 메이저리거이자, 지금은 자이언츠 캐스터인 마이클 크루로는 이렇게 말

했다. "최근 메이저리그에는 강속구로 육박하려고나, 기교로 승부하는 두 유형의 투수가 있다. 린스کم은 둘을 다 가졌다. 이런 선수는 흔치 않다."

린스کم이 지금껏 눈에 띄지 않은 건 그가 진짜 '무명'이었기 때문이다. 시애틀 교외에서 보낸 어린 시절에는 딱히 애저거리도 없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보잉에서 근무한 아버지 크로스카우어도 모르는 그의 유년 시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 아들이 야구 신동이란 걸 알았다."

린스کم이 언뜻 실사 되자 크로스카우는 야구 전문가의 의견을 살포시 무시하고, 커브 던지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는 린스کم의 트래킹도 마크인 빠른 투구폼을 만났고, 투구 후 어깨에 되도록 얼음찜질을 피하게 했다(크로스는 얼음찜질이 어깨 근육을 움츠

리게 하기에 투수에게 좋지 않다고 믿었다. "린스컴은 발끝에서 손끝까지 하나의 지렛대처럼 사용해 공을 던진다. 몸 전체, 심지어 작은 근육까지 모두 사용한다. 그래서 그런 공을 던질 수 있는 거다. 팔은 그저 발상에 손가락을 올려놓는 정도다." 아버지 크리스는 말한다.

고등학교 2학년, 157cm, 45kg의 린스컴은 리버티 고교 야구팀에서 잡혔고, 겨우 동네 야구팀을 만드는 수준이었다. 처음 대중의 주목을 받은 건 주에서 쟁 목턴 대 큰 고등학교를 상대할 때였다. 팀이 1차로 앞선 9회 말, 1사 2루 상황에서 그가 등판했다. 상대팀의 No.2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No.1 타자 역시 가볍게 삼진으로 잡으며 게임을 마무리했다. "신문에 나온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정말 굉장했다." 린스컴이 말했다. 그 신문이 시애틀 타임즈였나? "아니다. 그럼, 시애틀 포스트-인텔리전서?" "아니." 그가 다시 말했다. "그것은 이사퀘(Issaquah) 지역 신문이었다. 당시 내에게는 그 정도도 충분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3학년이 되어서도 줄곧 뛰어난 활약을 펼쳤고, 졸업 후 워싱턴 대학에 입학했다. 그곳에서 린스컴은 던지기를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대학에서 나는 진짜로 '킷다', 적어도 몸무게가 72kg는 나갔나니까" 라고 농담을 던졌다).

2004년 대단한 활약을 펼친 린스컴은 "PAC-10 대학 리그의 동부지역 야구 리그"에서 "올해를 빛낸 10명의 신인"에 선정됐고, 그해 리그 최고의 투수로 뽑혔다. 2006년에는 방어율 1.94, 12승 4패의 성적으로 전미 아마추어 최고 선수에게 주는 '골든 스파이크 어워드(Golden Spikes Award)'를 수상한다. 그의 왜소한 체격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지만 그가 시속 150km대의 강속구를 던지는 한,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건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대학 최고 투수임에도 2006년 6월 메이저리그 드래프트에서 전체 10순위, 투수로는 7번째로 지명됐다. 아버지 크리스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다. "린스컴은 자신의 체격 때문에 10순위로 밀려든 걸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꽤 상처를 받았다. 그는 자신이 최고의 선수 5위 안에 본인이 포함될 거라 기대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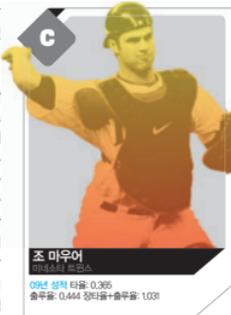
잠깐의 마이너 생활 후 2007년 5월 6일, 린스컴은 스물두 살의 나이로 메이저리그에 데뷔했다. 이후 2번의 월상신 타이틀, 2개의 사이영 상을 가볍게 손에 넣었다. 더 이상 그를 '꼬꼬마 린스컴'이라고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없다. "꿈이 이루어졌다." 그는 치즈버거를 먹으며 말했다.

"그동안 꿈꿔온 무대에 섰다. 누가 나 같은 꼬꼬마에게 이런 일이 가능하리라고 믿었겠냐?"

지난 10월, 린스컴은 속도위반으로 경찰에게 검문을 받다가 머리회사를 볼펜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다. 기소는 다행히 취해졌지만, 그의 부적절한 행동은 수많은 볼러들의 '잘받 소스'로 활용됐다. 이 사건으로 그는 명성이 대가야 따르다는 사실을 배웠다. "공인인 아닌 누구라도 경찰에 잡히면, 누구라도 나처럼 당할 것을 거다. 법적 행동을 취할 거다." 린스컴은 말했다. "그때 내가 잠시 정신을 놓았던 것 같다. 야구를 계속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려면 이런 상황에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내 꿈은 유니폼을 입고, 야구장을 던지는 것이니까."

그는 평소 투수와 달리 '메이저리그 대표 골동 타자'를 상대한다. 지난해 7월 피츠버그를 상대로 15개의 삼진을 뺏는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삼진을 당한 선수 중에는 두 명의 사이영 상 후보, 두 명의 올스타 후보가 있었지만 린스컴을 위협하진 못했다. "트로피 따윈 보관하지 않는다." 그가 말한다. "하나는 팀에 있고, 나머지 하나는 아직 받지 못했다." 잠시 뜸을 들이더니 "트로피는 필요 없다. 내가 이런 성과를 확인한 걸로 충분하다."

린스컴이 언론의 주목을 받는 데 익숙해지고 얼굴이 많이 팔릴수록 사람들이 그를 배트 보이로 착각할 일은 적어질 거다. 그렇지만 내셔널리그에서 두 번의 사이영 상을 수상한 린스컴을 배트보이로 착각할 일이 절대로 없다고 짐정할 수는... 음(없겠지?). "할스!" 린스컴이 말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음... 뭐가? '우리 팀은 2년 전 메츠 홈구장에서 경기를 했다. 나는 선발투수였고, 게임이 끝난 후 경기장을 잠시 빠져나와 여친 친구를 만났다. 입구로 돌아와 팀 버스를 타려고 할 때 경요원이 제지했다." 당황한 린스컴은 본인인 지언턴츠의 선발투수고, 오늘 6이승을 던졌다고 말했다. 그러자 경요원은 "그때, 그때였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당신의 신분증을 보여줬다" 라고 풀리게 대응했다.



조 마우어
09년 5월 홈런: 0.365
승률: 0.444 3점투수+승투수: 1.03

195cm의 조 마우어는 초스레우 외야와 달리 에이레리코 MVP로 우뚝 섰고, 3번의 타격왕과 2번의 골드 글러브를 차지하는 빛나는 성과를 올렸다. 2000년에는 올해를 빛낸 고등학교(야구)가 아니라, 미식축구(로)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벤치 클리어링 상황에서는 조 마우어만큼 든든한 선수도 없을 거다. 조 마우리가 당시의 빠른속도가 기특했던 건 순전히 외야 때문이란 걸 이해해줘.



프린스 필더
09년 5월 홈런: 46개 타율: 141
장타율+승투수: 1.014

당신 린스컴은 이제 겨우 스물네 살이다. 하지만 이미 훌쩍 50개를 기록했고, 작년에도 그럴 뻔했다. 스테로이드가 작별을 고한 시대에서도 61개의 홈런을 때려낼 선수로 등장할까? 그럴 거다. 하지만 그만큼의 홈런을 때려내려면 3개월 정도는 시애틀에 꾸준히 야고, 타격 흐름을 놓치지 안 된다. 야

구에 완전히 몰입해야 하고 적절한 운도 필요하다. 하지만 61개의 홈런을 때려내는 선수가 나타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애덤 웨인라이트와 요한 스타너 같은 강투수를 상대할 때의 기분이 어떤가?
음. 그들은 상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그들을 겁내지는 건 아니다.

팀 린스컴은 어떤가?
미친가이다. 난 그가 43kg의 날씬이라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거다. 사람들은 내가 야구 말고 다른 운동을 더 잘 어울린다고 말한다. 작년엔 문신 같은 거지 나부랭이들이 날더러 치러리 스모를 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때, 그건 참 미안했다. 당신은 09년도에 홈런 세리머니에 많은 공을 들였다.
사람들은 내가 상대 팀 앞에서 했던 볼링핀 세리머니 같은 것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 내 머릿속엔 나의 멋진 홈런 모를들이 경기장에서 웃는 얼굴로 나를 축하해 바라보는 것 생각만 뿐이다.

'야구계의 악몽' 이 된다면 당신의 세리머니에 훨씬 임팩트가 붙을 거다.
이런 시도를 하고내고 있다. 필 좀 보여줬나? 좀 기다려 보면 알게 될 거다.



체이스 애들리
09년 5월 홈투수: 0.397
승률: 3.91 3점투수: 2.94

슬기히 우리는 애들리의 '두엇'이 가장 인상적이지 않은 걸 모른다. 뛰어난 수비 능력? 강한 투구? 레지 잭슨처럼 월드시리즈에 특히 강한 면모? 아니면 영화 《월 스트리트》의 주인공과 동 캐릭터를 더글러스의 스타일(그의 머리에 바셀리나나 타르를 발랐나?)

SS**트로이 로퍼루즈키**

포지션: 투수
 09년 성적: 출루: 32 득점: 10
 장타율+홈루: 0.390

그렇다. 지터에겐 월드 시리즈 반지와 엄청나게 색다른 메인 리스트가 있다. 헨리 라리베즈는 야구팬과 구단주, 감독들이 축축한(땀?) 꿈을 꾸게 만든다. 하지만 당시에 실전에 투입할 유격수를 고르다면 로퍼루즈키 같은 유격수를 옆에 두고 싶을 거다. 그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두 번째로 사이클링 히트와 '나홀로 트리플 플레이'를 만들어낸 레전드니까. 그는 크고, 강하다. 작은 체구의 유격수를 선호하던 야구인이 무식해 보일 정도로 말이다.

LF**라이언 브라운**

포지션: 타자
 09년 성적: 출루: 0.320
 출루: 32 타점: 14

2007년 라이언 브라운은 64경기에 20개의 홈런을 때려내, 밀워키 브루어스 역사상 가장 빨리 20홈런에 도달한 선수로 기록됐다. 동시에 2007 내셔널리그 '올해의 신인상'을 포함해 총 5개의 신인왕 타이틀을 차지했다. 최근 10년간 브라운처럼 한꺼번에 5개의 타이틀을 거머쥔 상륙 타진 선수는 2001년 알버트 푸홀스를 제외하고 없었다. 브라운과 친해지면 공짜 티셔츠도 생길 거(그는 자신의 이름을 단 티셔츠 브랜드를 갖고 있다. 디자인은 별로지만... 한편 쪽박 미나 촬영에서의 《배철펠(Bachelor)》 출연 제의를 거절할 정도로 여유 있는 인가님이다. 같이 다니면 떡고물을 기대할 수도 있다!

CF**맷 켈프**

포지션: 투수
 09년 성적: 출루: 29
 타점: 10 득점: 34

팬들은 야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인가? 189cm의 키에, 30홈런을 치는 파워, 40개의 루를 출루시키는 스피드, 3할을 때리는 배트 컨트롤을 갖춘 골든 글러브 중견수가 돼라. LA 다저스처럼 인기 많고 돈도 있는 구단에서 실력을 갖춘 젊은 선수가 돼라. 아, 그리고 팍스타 리한나와 데이트하라.

RF**이치로 스즈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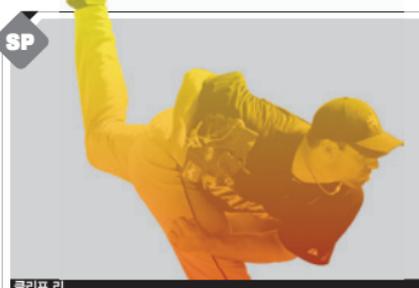
포지션: 투수
 09년 성적: 타율: 0.332
 안타: 225 득점: 26

말삼, 그러나 실력은 최상.

DH**데이비드 오티스**

포지션: 투수
 09년 성적: 출루: 26
 타점: 29 득점: 26

빅 파피, 데이비드 오티스는 PED 약물 복용 혐의와 전반기를 맡아먹은 슬럼프로 팀geist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남은 시즌을 활활 불태웠다. 6월부터 메이저리그의 홈런 경쟁을 주도하며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위험한 지명타자는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SP**클리프 리**

포지션: 투수
 09년 성적: 출루: 14
 방어율: 3.22 삼진: 181

지난 포스트 시즌에 사바시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기억하니까, 클리프 리는 그보다 훨씬 더 대단했다. 2008년 아메리칸리그 사이영 상을 수상한 이 선수는 사실 그저 그랬다. 갑자기 샌디쿠팩스(MLB 역사상 최고의 좌완 중 한 명)로 변신하더니 4승 0패, 방어

율 1.56을 기록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소속팀 필라델피아 필리스는 그 에이스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했을까? 사바시아에 비해 훨씬 덜 지불했는가? 결론 고마움을 대신했다. 물론 내셔널리그의 나머지 선수들은 크게 환호했다.

RP**마리아노 리베라**

포지션: 투수
 09년 성적: 방어율: 1.76 세타입: 44
 이닝당 출루 허용률: 0.90

어디 보자, 리베라는 최고의 중간 계투 자리를 얻었고, 2020년까지는 다른 선수들이 넘볼지 못하게 이예문을 장구했다.

SF**잭 그레인키**

포지션: 투수
 09년 성적: 출루: 16
 방어율: 2.16 삼진: 242

줄게 미치거나, 아니면 그냥 미치거나? 이런 질문은 성질이 '개' 같은 그레인키를 늘 따라다녔다. 그가 2006년 정식적인 문제로 60일 동안 부상자 리스트에 오른 후에 말이다. 그러나 2009년의 그는 메이저리그에서 인도적인 성격을 거두는 데 큰 신경을 집중했다. 한 시점에서 정식 간고를 걱정해야 할 일은, 그레인키가 아니라 타석에 들어선 사람이다.

SP**CC 사바시아**

포지션: 투수
 09년 성적: 출루: 19 삼진: 97
 방어율: 3.37

본인의 몸치(199cm, 130kg)보다 더 거대한 계약(7년간 1억



RF



앤디 웨인라이트
ANDY WEINSTEIN

출생: 1961년 11월 19일
성적: 263cm 122kg

작년 팀 동료인 크리스 카펜터는 최고의 원투펀치였다. 크리스가 당신의 성공에 놀라지는 않았나?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카펜터와 얘기를 나누며, 우리 둘이 사이영 상 투포에서 나란히 1, 2위를 차지할 거라 짐작했다. 성공에 대한 예상은 일찌감치 했었다.

사이영 상 1차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는 3위에 그쳤다. 실망했나?

실망했다는 건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물론 상을 받으면 좋지만, 다른 선수도 받을 자격이 충분했다. 린스컴은 어떤 선수보다 열심히 뛰었다는 선수로 경기에서 최고의 체인지업을 보여준대. 그래도 영화 《벨라데가 나이트》의 주인공 리키 비비가 말한 것처럼 “일등이 아니면 골짜기”와 다름없긴 하다.

이제 커디널스는 로이 할러데이도 손에 넣었다. 팀 내에는 재능 있는 선수가 많다.

그는 최고의 선수다. 야구공 하나도 다양한 것을 보여주는 선수는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야구 리그 최고의 선발 진을 가리다고 생각한다.

2006년 커디널스가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할 때, 당신은 마지막 아웃을 잡았다. 그때의 짜릿함이 월드시리즈에 다시 등판하고픈 마음이 들게 하지 않았나?

외우! 그런 정말 굉장했다. 그러나 나는 월드시리즈에 진출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작년까지 알지 못했다. 양키스와 월드시리즈에 (필라델피아가 아닌) 우리 커디널스가 올라갔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세상 일이 모두 마음대로 되진 않는 법이다.

야구의 신 알버트 푸울스를 상대하지 않아도 되어서 행복하니까?

알다시피 나는 그를 상대해서 우창하 게 진 적이 있다. 다행히 마이니티(그리틀을 예외로 함) 시절의 이야기이다. 그는 1만8천 명의 관중 앞에서 나를 상대로 4타수 3안타를 쳐냈다. 마지막 타석에서 그렇게 공물거리는 범주구를 던지려 했지만, 그는 137m 너머로 공을 날려버렸다. 푸울스가 우리 팀이서 정말 행복하다.

이제 푸울스는 당신의 타격 코치 마이크 맥과이어에게 조언을 구할 거다. 빅맥(마이크과이어의 별명)이 오히려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할지도 모르는데 걱정되지 않나?

걱정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맥과이어가 선수 시절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사실을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쓸데없는 관심이 일을 엉망으로 만든다.

야구 선수의 첫 여편네들
이것이 바로 좋아하는 WAGS 라인이다!



다니얼 배

민카 젤리

다이나나 로버츠

조시 벵켓의 전 여자친구 스카우팅 리포트 그녀는 히트코 좋은 내친 찾기가 는 조시 벵켓을 위한 노래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녀는 레지타가 루를 출루해 2009년 2007년 크리스마스 트리의 예이스와 결별을 선언했다.

데릭 지타의 피망제 스카우팅 리포트 그녀는 'Friday Night Lights'에 지타와 함께 출연했다. 그녀는 지타가 루를 출루해 2009년 2007년 크리스마스 트리의 예이스와 결별을 선언했다.

브라이언 로버츠의 아내 스카우팅 리포트 매년 하위 팀 풀터오어 오리를 스의 2루수가 어떻게 육체를 두루 갖춘 수영복 모델과 결혼할 수 있었을까? 물론 그가 장미유 0.776인 장타지타 하지만...

Suspicious Minds

야구 선수에게 마신이란 테러야 될 수 없는 존재다. 그중 가장 이상한 것만 뽑아냈다.



선수	래리 워커	웨이드 보그스	제이스 자임비	베드로 세리노
소속팀	몬트娄 엑스퍼시언 워싱턴 내셔널스, 콜로라도 로키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보스턴 레드삭스, 필라델피아 레이스	뉴욕 양키스, 오글랜드 애슬틱스	영화 속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마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7" 단축 타석에 서기 전에 3번의 연승 스윙을 한다. 오류 3회 33분 3,333,333달러를 기부했다. 	이전성질인 교타자는 매 경기 전에 차킨을 먹는다.	자임비는 그가 스텀림프에 빠질 때엔 인기 행동지만 황금색 관복(타입) 입은 데그리고 그것을 팀원과 공유한다	영화 《메이저리그》의 오아수는 죽은 뒤를 부두에서 신에 바치고 팀의 저주를 풀리다.
세상과 박사의 조언	"이 행동들은 강박증처럼 보인다. 그건 어떤 컴플렉스 때문이고 장기간 때문일 거다."	"선수들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때 불안이 밀려오는 것 같다. 차킨은 그를 안정시켜주는 데 도움이 된다."	"그가 이런 행동을 언제 처음 시작했는지 궁금해야 할 뿐이다."	"강박장애는 죽기 직전에 제일 심해진다."

*노먼 세스먼 박사는 뉴욕 대학의 신경정신과 교수다.

SIMGE

TERTEMİZ

MAXIM 타키판의 첫 번째 표지를 장식한 모델이자 TV쇼 진행자로 활동하는 심계 테르테미즈 그녀 때문에 우린 오늘부터 타케(칠면조) 샌드위치만 먹기로 결심했다.



TURKISH DELIGHT





“좋은 인상을 주는 팬클럽은 남자라면
당연히 그에게 기회를 줄 거예요.”



**“저도 제가 예쁘고
아름답다는 건
이미 알아요**

당신은 MAXIM 터키판 첫 호 표지를 장식한 유명 모델이 되었어요. 인생이 이렇게 펼쳐질 것이라 예상했나요?

열네 살이었을 때 어머니와 길을 걷다가 티볼로이드 지를 보았어요. 전 그걸 가리키며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언젠가는 나를 저기서 보게 될 거야.” 그 말은 현실이 되었죠. 왕관을 쓰고 터키를 대표하는 미인 자격으로 국제 대회에도 참가했어요. 그리고 배우가 되었고 마침내 일간지에 등장했죠.

당신이 받은 최고의 찬사는 무엇인가요?

제가 다가오는 남자들은 언제나 똑같은 말만 하죠. “넌 매력적이야”, “아름다워”. 뭐 그런 말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으쓱한가요?

전 지금 스물한 살이에요. 저도 제가 예쁘다는 것쯤은 이미 다 알아요. 새삼스럽게.

남자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해야 당신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요?

음, 두 사람 사이의 느낌이 중요해요.

느낌이라니, 그런 황망하고 애매한 단어 말고 좀 자세하게 말해주세요.

제가 그 사람을 원하지 않으면 그가 무슨 짓을 해도 끌리지 않아요. 반대로 좋은 인상을 주는 객체는 남자라면 당연히 그에게 기회를 줄 거예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설명이군요. 현재 사귀는 남자분이 있나요? 아니요. 싱글이에요.

싱글이 편한가요?

전혀요! 사랑 없인 못 살아요. 외롭게 혼자 집에 있는 것도 너무 싫어요. 옆에 항상 누군가가 있어야 하죠. 외로움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5 FUN FACTS ABOUT TURKEY

- 17세기 터키에서는 커피를 마시다 들린 사람을 사형시켰다.
- 터키에서는 터키를 소재로 농담을 하는 것이 불법이다.
- 터키의 도시 Batman의 시칭은 영화 닥터스니이트에서 ‘베트맨’ 이란 명칭을 사용한 워너브라더스를 고소하려 했다.
- 키 286cm의 슐탄 코센은 현존하는 지구인 중 최장신으로 터키 출신이다.



“사랑 없인 못 살아요. 외로운 건 익숙하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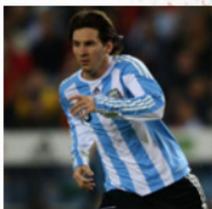




2010 MAXIM

WORLD

월드컵 특수를 방송국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MAXIM이 선봉을 나섰다.



MESSI

리오넬 메시 -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의 희망이자 축구 세상의 메시아다. 최근 그의 플레이는 "몰아올랐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 168cm, 67kg의 전형적인 루저의 몸을 가졌지만 경기에 나서면 헤트트릭을 밥 먹듯하며, 프리킥의 거친 수비수 공격이 달라 붙어도 마구리치처럼 빠져나가기어이 골을 만든다. "지금의 메시를 숫자로 분석하는 건 무의미"하다. 카탈루냐 일간지(문도 데포르토)는 "미라도나와 호나우두를 합치면 메시가 된다"고 이야기할 만큼 기량이 최고조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어차피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를 만날 테니까 '메시아'가 얼마나 대단한지 두 눈으로 확인해보자. 어쩌면 우리나라 대표팀에 참칭하게 필요한 건 '감독'이든 '가나'라 대권도 수비든 하는, '선수 허점무' 일지도 모른다.



DROGBA

디디에 드록바 - 코트디부아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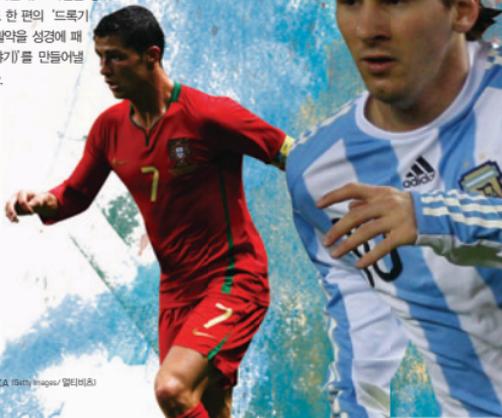
별명 '드록신'이 더 친근한 코트디부아르의 공격수다. 프리미어리그 명문 구단 첼시에서도 한 시즌에 30골 이상을 넣은 선수는 84~85 시즌 케리 디킨 이후 드록바가 유일하다. 그의 장점은 '189cm, 91kg의 몸량, 몸짱, 그리고 또 몸짱'이다. 짐승 같은 보디 파워는 파울로 그를 저지하려는 수비수를 우주로 날려버린다. 여기에 아프리카 흑인 특유의 유연성이 더해져 솟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골을 넣기에는 묘기도 보여준다. 발목 힘이 좋아 서 증거리 솟도 좋고, 공격수 치곤 수비가 담도 적극적이다. 남아공월드컵 '죽음의 조'에서 코트디부아르를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이유도 '진리의 드록바'가 있기 때문이다. 혹시 아는가? 브라질을 상대로 드록신이 또 한 편의 '드록기'(드록바의 활약을 성경에 패러디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지도 모른다.



DAVID VILLA

다비드 비야 - 스페인

세계 최고의 공격수는 누구인가? '최근 5년간'이라는 단서를 달면 주인공은 다비드 비야다. 축구 선수로는 다소 작은 175cm, 69kg의 체격이지만 타고난 골 감각으로 득점을 만드는 재주는 일품이다.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탁월한 위치 선정 능력으로 헤딩 골 사냥도 잘한다. 기록으로 보면 더 대단하다. 2005년부터 소속팀 발렌시아에서 매해 평균 20골 이상을 기록했고, 올 시즌도 메시와 함께 프리메라리가 득점왕 경쟁에 나섰다. 유로 2008에서 4경기 4골로 득점왕을 차지하면서 그간 큰 경기에 사침을 거듭하던 스페인 대표팀의 우승을 이끌었다.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도 7경기 7골을 몰아치며 팀에 남아공 직행 티켓을 선물했다. 스페인은 유럽 예선 10경기에서 28골을 넣었다. 비야 혼자서 팀 득점의 25%를 소화한 셈이다.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는 토레스와 함께 팀 최다골(3골)을 기록했지만, 대머리독수리 지단에게 이기는 프랑스를 만나 16강에서 아쉽게 무릎을 꿇었다. 그간 리우만 일다가 이번이 월드컵에서 첫돌만 건 스페인에 비야는 한 줄기 희망이나 다름없다.



CUP

STAR WARS

남아공월드컵에서 주목해야 할 선수를 12명으로 추려봤다. 이들을 인해 피는물을 흘릴 각국의 골키퍼에게 미리 에도를 표하는 바다.



ROONEY

웨인 루니 - 잉글랜드

축구 상동에서 축구 천재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만능 공격수! 유일한 약점인 노안(?)을 제외하고는 흠집을 대가 없다. 26세 영국 경력은 필멸한 체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다. 상대를 압박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수비 개념도 좋다. 축구에 관해서는 월드컵이 둘째가라면 서러워서 공격 포지션 어느 곳에 박아두든 100% 위력을 발휘한다.

월드컵 지역예선에서 9경기 9골을 넣었고, 이번 시즌 소속 팀의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 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다. 2008년 독일 월드컵에서 당시 포르투갈의 호날두와 함께 사이좋게 삼집했기에 이번 월드컵은 월드컵에도 명예 회복할 좋은 찬스다.



RONALDO

호날두 - 포르투갈

남자의 자질뿐만 아니라 축구 실력도 발군인 공격수. 힘, 기술, 운동 능력 삼박자를 갖췄다. 여기에 전매 특사인 무회전 프리킥으로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언제나 골을 노린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에는 지나친 승부욕으로 팀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최고의 이적료(1,600여 억 원)를 기록하며 올림피아드 마드리드에서는 팀 승리를 독려하는 캡틴으로 거듭났다. 팀이 여유 있게 앞서는 상황에서도 휘슬이 울릴 때까지 할 새 없이 공격을 밀어치는 그의 모습에 레알 마드리드의 팬들은 '레알 사령관'이 빠졌다. 유일한 약점은 큰 무대 음량증이다. 월드컵 본선 6경기에 출전했지만 1골에 그쳤고, 2010년 남아공 유럽 예선 7경기에서는 1골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번 남아공월드컵은 그가 '영민 하실용 선수'라는 오명을 벗을 기회다.



KAKA

카카 - 브라질

영원한 우승 후보보다 더 믿음직한 브라질의 축구 황태자다. 축구 실력적인 실력, 열광적인 열광, 성격이 단정하다. 하나 빠지는 구성이 없다. 최고의 활약을 펼친 2007년에는 발롱도르와 월드컵 사커 매거진 '올해의 선수상'을 비롯해서 유럽축구연맹(UEFA) 클럽선수상, 국제축구연맹(FIFA) '올해의 선수상' 등 상이라는 상은 모조리 휩쓸었다. 그의 진짜 강점은 미드필드로서 팀 공격을 상대 진영으로 빠르게 끌고 올라가는 데 있다. 수비 한두 명을 가볍게 제치고, 주위 동료와 공을 주고받으며 팀 공격을 주도한다. 카카가 이런 역할을 브라질 대표팀에서 수행한다고 생각해보라. 상대팀에는 악몽 그 자체다. 2009년에는 FIFA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 브라질을 우승으로 이끌고 골점수(MVP)를 수상했다. 최근 부상으로 볼 점유율과 드리블 돌파율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도 있지만 한번 발동 걸리면 메시지만 발라버리는 게 카카다.

2010년 월드컵에서 이 어린 사령관의 활약을 기대해보자.





2010 MAXIM

WORLD CUP

STAR WARS



ROBERT KOREN

로버트 코렌 - 슬로베니아

2007년 1월 잉글랜드의 웨스트 브롬위치로 이적. 중앙 미드필더로 뛰고 있다. 주장 완장을 달고 처음 뛰던 폴란드와 경기는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팀원과 코치 모두 만족할 만큼 팀의 창의적인 플레이를 만들어냈다. 2002년 처음으로 진출한 월드컵 본선에선 스페인에 1대3으로 밀린 후 좌절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도 허무하게 1대0으로 패했다. 코렌은 그때를 잊지 않았고, 더 이상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기세다. 잉글랜드가 같은 조 슬로베니아를 만만하게 본다면 코렌은 그들에게 강렬한 일격을 날려줄 거다.



THEOFANIS GEKAS

테오파니스 게카스 - 그리스

비록 현 소속팀(레버쿠젠)에서 팬 당하기 일보 직전이지만 그리스에서는 완소 공격수다. 특별히 뛰어난 능력은 없지만 위치 선정과 골 감각 두 가지로 먹고산데(아. 29세란 게 믿기지 않는 노인을 소유했...). 그렇다고 이 선수가 '허점무'란 소린 아니다. 04~05 시즌 그리스 슈퍼 리그 득점왕. 06~07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득점왕은 개나 소나 하는 게 아니다. 남아공 월드컵 조 예선에서도 이스라엘, 북샘부르크, 리트비어, 몰도바 등을 상대로 10골을 넣었다. 여기에 "조국을 위해 뽀함으니 난 피x 싸게 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정신 무장도 확실하다.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번 월드컵에서 그리스를 마주칠 상대들은 동네 아저씨처럼 생긴 게카스를 만만하게 봤다가 딱 실심당하기 딱 좋다.



HARRY KEWELL

해리 큐얼 - 호주

호주 국가대표팀의 왼쪽 날개에 해리 큐얼이 '있고 없음'을 하늬와 맘 차이. 그는 호주 역사상 최고의 재능을 가진 축구 선수다. 원래 포지션은 윙어지만 공격형 미드필더, 세컨드 스트라이커에 박아두어도 좋은 활약을 펼친다. 2008년 리버풀에서 갈라타사라이로 이적한 후 부상에서 회복해 최근 '리즈 유나이티드'에 박아두어도 좋은 활약을 펼친다. 2008년 리버풀에서 갈라타사라이로 이적한 후 부상에서 회복해 최근 '리즈 유나이티드'에 박아두어도 좋은 활약을 펼친다. 2008년 리버풀에서 갈라타사라이로 이적한 후 부상에서 회복해 최근 '리즈 유나이티드'에 박아두어도 좋은 활약을 펼친다.



MAREK HAMSIK

마렉 함시크 - 슬로바키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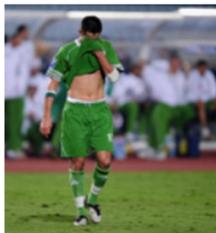
슬로바키아 감독 블라디미르 피셔가 완전 사랑하는 선수. 바로 정감 있는 이름의 소유자 함시크이다. 22세 함시크는 사랑스러운 인품. 분수처럼 빠른 머리, 몸에 나서처럼 도배한 근육을 가졌다. 나이는 어리지만 대표팀 경력은 짧지 않다. 2007년 2월 17일 폴란드를 상대로 열린 월드컵 8강 때 데뷔 경기를 치렀다. 미드필더지만 '리틀 프랭크 램퍼드'라고 불릴 정도로 골을 잡아넣는 재주도 탁월하다. 무엇보다 그는 폴란드, 북아일랜드가 속한 유럽 예선 C조에서 슬로바키아가 조 1위로 돌파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는 결정적인 경기에서 2골을 집어 넣었는데 1골은 북아일랜드를 상대로 홈에서 승리할 때, 나머지 골은 체코를 상대로 2012 동점골을 만들 때였다. 나폴리에서 뛰는 젊은 피는 예선에서 체코를 관망시키고, 조 1위로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았는데 슬로바키아가 '틀보잡' 취급을 당하는 게 실은 눈치다. 슬로바키아산 인품 천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보자.



NKUFO

블레이크스 은쿠포 - 스위스

스위스의 베테랑 공격수는 드디어 7% 모자란 남자' 라는 이름표를 떼어냈다. 블레이크스 은쿠포는 간판 스트라이커 프리와 함께 골 결정력이 뛰어난 공격수다. 발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를 풍부한 경험과 육체적인 능력으로 커버한다. 올 시즌 소속팀 FC 트벤테(네덜란드)에서도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할 정도로 골 감각이 좋다는 것도 장점. 무엇보다 34세의 노장인 그에게 이번 월드컵은 처음이자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99.9%다. 때문에 '허리케인 조'처럼 매 경기 자신의 모든 걸 발휘 태운 각오가 선 사나이인 정도 높이 살 만하다.



RAFIK SAIFI

라피크 사이피 - 알제리

알제리는 1966년 이후 24년 만에 월드컵 무대를 밟았다. 올해 나이 35세, 자라한 나이에도 성감어리는 여전히 알제리의 '에릭 칸토나' 역시 월드컵에 도전할 준비를 마쳤다. 10년을 프랑스 리그에서 뛰던 선수의 축구 실력에는 아무도 토를 달지 않는다. 정교한 볼 터치, 넓은 운동 범위, 경기를 보는 시야도 탁월하다. 문제는 그가 가진 능력을 쓸모 없게 만드는 지랄 맞은 성격이었다. 그 덕분에 그는 알제리 국가대표팀의 '양인굴' 선수와 물과 기름처럼 융화하지 못했다. 30대가 갓고 나사야 라피크는 디어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주장으로 거듭났다. 알제리의 캡틴은 본인의 마지막 월드컵에서 승리의 세리머니를 펼칠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Virtual Soccer MADNESS!

드디어 올 것이 온다. 지구촌을 흥분의 도가니탕으로 만드는 축제를 즐기 위해 맥심이 선수 쳤다. 현재 가장 영향력 있다고 판단되는 축구 타이틀 3개를 선정. 장장 20시간에 이르는 무식하고도 용감한 시뮬레이션으로 남아공 챔피언과 별들을 점쳐왔다.

COOPERATION EA 스포츠 코리아



2010 FIFA WORLD CUP SOUTH AFRICA™ (50회) 신뢰도 - 상

남아공월드컵을 겨냥해서 나온 게임이니만큼 실재와 동일한 조건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온 결과는 믿을 만하다. 4월 27일 한글 자막판으로 출시 예정.

WINNER 브라질, 잉글랜드(각각 6회)

FINAL 4

잉글랜드(9회), 브라질(16회), 스페인(7회), 아르헨티나(15회)

GOLDEN BOOTS

루이스 파비아누(8회)

KOREA

16강 진출 확률 48%

WORLD SOCCER WINING ELEVELN 2010 (25회) 신뢰도 - 중

위닝일레븐은 남아공월드컵 공식 라이선스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이에 흔히 접할 수 있는 '플스방 패치' 버전을 사용했다. 조 판성은 동일하여 구현되지 않은 국가는 비슷한 전력의 국가로 대체했다.

기라이 엔터테인먼트와 삼성카드가 주최하는 2010년 월드컵 사랑남매 경기를 진행한다.

WINNER 스페인(20회)

FINAL 4

프랑스(22회), 독일(21회), 스페인(20회), 브라질(19회)

MVP

토레스(7회)

GOLDEN BOOTS

비아(7회)

KOREA

16강 진출 확률 12%

FOOTBALL MANAGER 2010 (25회) 신뢰도 - 하

에디터들은 당초 정확한 데이터로 유명한 FM01 가장 신뢰도 높은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사용자 마음대로 본선 진출국조차 설정할 수 없는 통에 정확도는 땅을 쳤다.

WINNER 브라질(9회)

FINAL 4

브라질(14회), 이탈리아(10회), 잉글랜드(9회), 프랑스(8회)

MVP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회)

GOLDEN BOOTS

세르히오 아구에로(2회) 외 4명

KOREA

16강 진출 확률 4%

2010 FIFA WORLD CUP SOUTH AFRICA™

FIFA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전문가와 팬들의 예측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스페인 다음으로 독일이 7회, 브라질, 프랑스, 잉글랜드가 각각 6회의 우승컵을 들었다. 유럽 축구의 변방 슐로베니아와 덴마크도 깜짝 우승을 차지했다. 디펜딩 챔피언 이탈리아는 준결승에 무려 19번이나 올랐으나 2회 우승에 그쳐 머릿심 부족을 실감해야 했다. 동구권의 강세는 계속했는데 슬로베니아(5회), 세르비아(4회), 슬로바키아(1회)가 4장 명단에 올랐다. 대한민국이 속한 B조에서는 아르헨티나가 13회, 유로 2004 챔피언 그리스도 다섯 번이나 준결승에 진출했다. 나이지리아도 2번이나 4강에 진출했지만 한국의 4강 기록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한국은 16강에 9번 진출했는데 그중 절반이 2승 이상으로 올라갔는데 데 의의를 두자, 스페인의 막강 투톱 비야와 토레스 콤비는 새로운 FIFA에서도 어김없이 명우를 떨쳤다. 비야와 토레스는 총 50회의 시뮬레이션에서 13번의 득점왕 타이틀을 합쳐야 7회, 토레스 6회였다. 다음으로는 잉글랜드의 헤스카와 루니가 조국의 우승을 6번 이끄는 동안 각각 4회와 3회의 득점왕 타이틀을 차지했다. 그리스의 게카스와 수비수 세이디리스(이상 1회)마저 득점왕에 오르는 불상사도 생겼다. 막강 화력을 자랑하는 스페인은 5명(토레스, 비야, 사비, 알론소, 세르히오 라모스)의 MVP 수상자를 배출했다. 호나우두, 클로세, 루니, 가레스 베리도 각각 3회 MVP를 차지했다.



FOOTBALL MANAGER 2010

팬을 양산하는 극악의 게임 Football Manager 2010(이하 FM)은 정확한 결과를 보여준 것으로 에디터의 기대를 한층 높여준 게임이다. 그러나 사용자 임의로 조 편성을 할 수 없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발목을 잡았다. 근성의 MAXIM 한 번 뺏은 마우스를 거두지 않았으나, 결과의 신뢰성은 상당히 떨어지고 말았다. 브라질이 독주하는 상황에서 프랑스 3회,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강호들이 2회씩을 차지하면서 우승팀이 분산됐다. 특이한 점은 유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스페인이 단 한 차례의 우승도 없다는 사실이다. 득점들이 공공해할 한국의 16강 진출 여부? 25회 중 단 1회에 그쳐 부진했다. 이는 주로 네덜란드, 카메룬, 덴마크 등과 조 편성이 됐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조 편성은 우리의 몫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지못미!

WORLD SOCCER WINNING ELEVEN 2010

위성일레븐에서는 잉글랜드와 브라질의 강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스페인이 5회 우승으로 뒤를 이었다. 피파와 같은 이번은 거였었다. 딱도 먹여만 놓이 잘 먹고도 아르헨티나(3회), 프랑스(2회), 독일(2회), 이탈리아(1회) 등 한 번씩은 우승 경향이 있는 팀들이 월드컵을 들어올렸다. 유럽과 남미의 강력한 대항마로 평가받는 아프리카 대륙의 검은 돌풍과 북중미, 아시아 팀들의 빈번한 출몰이 없었다. 하지만 준결승 진출국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약진은 이번은 존재했다. BG 4의 뒤를 독일, 이탈리아(각각 7회), 프랑스(5회)가 이었고 개최국 남아공과 미국, 호주가 각각 1회씩 4강 명단에 오르며 대륙별 균형을 맞췄다. 대한민국은 총 26번의 시뮬레이션 중 12회 6강에 진출하며 절반의 가능성은 보였다. 최다 득점왕은 파비아누가 차지했고 아르헨티나의 삼각편대 테베즈(4회), 아구에로(3회), 메시(2회)도 9번의 득점왕을 합쳐서 자원의 풍족함을 자랑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 이근호도 한 차례 득점왕을 차지하며 에디터의 눈을 의심케 했다.



AFTER FINISHING THE SIMULATION

에디터의 혼을 빼놓은 총 100회의 시뮬레이션도 다소 황당한 점이 있었던 개별 게임과 달리 통계적으로 나타난 수치는 꽤 신뢰도가 높았다. 우승 후보 브라질과 스페인이 도합 36회의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실제로 결승전에서 두 팀의 맞대결이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때는 승자를 선별해 예측할 수 있다. 잉글랜드는 스페인에 비해 4강 진출 횟수가 더 많음에도 우승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잉글랜드가 토너먼트에 올라갈 확률이 높지만 우승 문턱에서 주저앉을 가능성이 크다는 세간의 평가와 대체로 일치한다. 득점왕의 국가와 우승 후보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역시 많은 게임을 치러야 골을 넣을 기회도 많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문제는 아르헨티나에서 유력 후보가 3명이나 배출했다는 점. 우리와 같은 조인 아르헨티나 공격진의 특징이 고르게 분포되었다는 것은 수비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도대체 누구를 막아야 되냐? 아르헨티나에서 대한민국을 제물로 득점왕이 배출되지 않기로 바랄 수밖에. 게임상 한국의 16강 진출 전망은 19%로 어두운 편이다. 그러나 FM의 결과가 너무 저조했다는 점은 감안하면 비판적일 필요는 없다. 돌이켜보면 한국은 세계 축구에서 항상 도전자의 입장이니까, 무엇보다 축구공은 등글지 않은 게 태극 전사들이며, 건투를 빈다.





한준희

장지현

정효웅

ALL ABOUT WORLD CUP!

우리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줄 방송 3사 축구 해설계 아이돌과의 만남! 그들과 함께 남아공월드컵을 전망한다.

PHOTOGRAPH BY 빅을 RETOUCHING BY 빅을 STYLING 조장진 권혜진 ASSISTANTS 김희성 김민혜

한준희_이하 한
KBS 축구 해설위원

장지현_이하 장
SBS SPORTS 축구 해설위원

정효웅_이하 정
MBC ESPN 축구 해설위원

특별 출연
이남훈_이하 이
축구 전문기자

MAXIM: 방송 3사 해설위원을 한자리에 모으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서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나?

장: 매우 친하다. 지금보다 더 자주 모여야 하는데 바빠서 그러지 못하고 있다. 오늘 엠버십이 아주 만족스럽다.

M: 사진 촬영 때 프로 모델 뻔치던데 발세 연습했나?

한: 시켜만 준다면 베드신도 소화할 수 있다.

M: 사랑하겠다. 같은 분야에 종사하니 묘한 경쟁 심리도 생길 것 같은데?

장: 서로 담당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경

쟁 자체가 생리되지 않는다.

한: 장 위원은 프리미어리그, 나는 K리그와 세리에A 정 위원은 챔피언스리그 등 서로 분야가 다르다. 또 축구 해설위원이란 직업이 그렇게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경쟁이란 것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

장: 기본적으로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라 다 친하다.

M: Football Manager, 워닝 일레븐, FIFA 같은 축구 게임은 좋아하나?

장: 워닝을 좋아한다. FM을 하는 순간 매인이 될 것 같아서 되도록 멀리하고 있다. 축구 게임이 해설에 도움이 되는 면도 있다.

한: 기본적으로 게임을 많이 하지는 않는다.

워킹은 이남훈 기자와 테크노마트에서 사서 2시간 정도를 했다. FM은 별로 재미없더라. 장: 나도 게임은 별로 즐기지 않는다.

M: 실제 축구 감독이나 선수들도 축구 게임을 많이 즐기나?

아: 선수들도 여가시간에 축구에서 워킹을 많이 한다. 저녁 내기 워킹이 즐기는 수준과 비슷하다. FM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잘 안 한다.

장: 그들도 사립인자라 자기 능력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좋아하는 팀이나 가고 싶은 팀이 있을 때 마음대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장: 선수들이 게임하는 건 관찰은 것 같다. 체험형성한 청년들이 만 길로 새면 K리그도 영국 풀난다.

M: MAXXI가 남극원월드컵을 맞이해 세 종류의 축구 게임을 시뮬레이션 게임을 즐겼다. 그 결과 어땠어?

장: 한국이 2등을 한 경우가 2번 밖에 없었다. 그리스와 나이지리아를 꺾으면 2등인데 너무 저평가된 거 같다.

장: 워킹은 한국이 16강 간 계 2번밖에 없었어? FM에서 한국은 완전 호구구만.

장: 워킹은 한국이 16강이 25번 중 12번? 거의 빈번인데. 이런 정도는 참 만한 것 같은데 독일, 이탈리아의 우승 횟수가 너무 적은 것을 보니 이들이 너무 저평가받은 것 같긴 하다.

아: 특점왕 같은 세부적인 것만 빼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도 있는 것 같다.

M: 이번 월드컵 4강의 자격을 갖춘 팀으로 어느 나라가 될 것 같나? 대표팀은 무시해도 좋다.

한: 브라질, 스페인은 기본적으로 좋다. 네덜란드와 독일 또는 잉글랜드, 독일은 젊은 선수들이 괜찮고 오히려 발라 같은 노장 선수들이 얼마나 해주느냐에 달려 있다. 잉글랜드는 골키퍼 실수, 승부차기 부상 등 세 가지 치명적스를 극복하면은 전제하에 가능할 것이다. 장: 브라질,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일 것 같다. 브라질, 스페인

둘 중 하나가 조별 리그에서 빼앗아 16강에서 맞닥뜨릴 가능성이 있다. 두 팀 모두에 최대 고비가 될 것이다. 이탈리아나 독일은 토너먼트로 올라갈수록 저력을 발휘하는 팀들이다.

장: 나는 맨저 브라질은 떨어질 것 같고, 아프리카도 한 팀 올라갈 것 같은데... 슬로바키아 같은 유럽의 무명팀들도 무시할 수 없다.

한: 유로 2008에서 나라 개념 매치하고 우승팀까지 맞았다. 장: 워킹도 아프리카 한 팀 한 번 말해봐라.

장: 음, 그럼 카메룬? 아: 나는 스페인이 우승했으면 좋겠다. 내 몸에는 빨간 피가 흐른다.



M: 누구나 몸에는 빨간 피가 흐른다. 특점왕은 누가 될 것 같나?

한: 특점왕을 예상하기란 어렵다. 결국 양인 학살을 잘하는 팀과 골까지 올라가는 팀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장: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나는 다비드 비야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원톱으로 나왔을 경우에도 토레스보다 우선적으로 기용되고 투톱으로 나온 큰 문제가 없다.

한: 비야가 해운 것을 볼 때 이번 월드컵에서 특점왕을 못하면 비야 입장에서 좀 억울할 만 하다.

장: 뉴질랜드와 같은 조에 있는 이탈리아의 질라르디노가 있을 수도 있다. 7대0으로 이기는 경기에서 4골을 몰아넣으면 그 선수가 유력하다.

M: 우리나라 16강에 진출할 확률은?

한: 객관적으로 B조에서 아르헨티나 최고 전력에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 나라가 33.3%, 33.3%, 33.3%이다. 장: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의 경우는 경제 사정도

중지 않다. 개들 힘들다. 장: 요즘 그리스와 나이지리아가 굉장히 좋다. 나이지리아는 임규 체플 등의 문제로 팀워크가 깨진 상태다. 새로운 감독이 와도 통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로 우리나라에는 관측은 조 편성이다.

M: 대표팀의 자존심 수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아시아 챔피언 포항의 황재환-김형일 듀오는 주전으로 써야 한다는 말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장: 한국 수비수에는 모든 걸 다 갖춘 선수가 없다. 그래서 감독의 취향에 맞는 선수를 쓸 수밖에 없다. 워킹으로 치면 능력치 97짜리 선수는 없고 70대에서 고만고만한 선수들이 많은 거다. 97짜리 있으면 당장 주전으로 쓰지 비슷한 애들 중에서 자기 플레이했을 때 더 절되는 애로 하는 거다. 한국 수비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에 맞게 색을 입혀야 한다. 피리아스와 허정주도 그러다.

장: 나는 광태환-김형일로 묶이 남라인을 만들고 싶다. 아, 박용호도 있구만!

한: 나는 황재환-이정수. 황재환은 주전이 아니더라도 23리노 스타에 들어갈 능력이 있는 선수다.

장: 문제는 중앙 수비수만 바뀌어 하는 게 아니라 포항이나 전북의 포백을 그대로 써야 한다는 거다. 그런데 이영표도 있고...

장: 포항이나 전북의 수비를 그대로 갖다 써도 수비 능력이 똑같이 나올 수가 없다.

장: 나도 황재환을 쓰는 데는 동의한다. 조용형도 괜찮지만 파이팅 넘치는 생명의 조병국과리안을 쓴다면 팬들은 조함이 될 것 같다.

M: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기대되는 경기가 있다면?

한: A조 경기가 재미있을 것 같다. 남아공의 홈 어드밴티지를 무시할 수 없고, 프랑스는 예전처럼 화려한 축구는 못하지만 끈적끈적할 수 있다. B조는 해당국 국민을 제외하면 세계 축구팬에게 크게 재미있는 조는 아니다. 미국의 일거수일투족

정도? 장: 생각보다 그렇게 재미있는 경기가 많지는 않나? G조는 워 말 안 해도 매 게임 재미있을 것 같다. 장: 사실 월드컵에서 재미있는 경기는 찾아볼 힘들다. 미국이 홈인 잉글랜드 경기도 재미있을 것 같다. 잉글랜드가 미국에 깨진 경면도 있고 역사적 맥락으로도 그렇고, 미국의 도노번이나 알도이어 같은 선수들이 잉글랜드를 잘 알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축구 외적인 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월드컵 중계도 재미있을 것이다. H조도 볼 만하다. 칠레가 의외로 탄탄한 팀이다. 블라터 회장이 있는 한 스위스도 무시할 수 없다. 두 팀의 경기도 재미있을 것이다.

M: 광희동 스포츠관 편성된 한국의 전장을 하려면?

한: 최근 북한은 K 경기 경험이 없다. 레드카드도 조심해야 한다. 흥분해서 레드 카드 구분 없이 받아 보면 무너질 수도 있다. 장: 같은 골을 먹을 것이다. 결국 그 조에선 골키퍼가 중요하기 때문에 브라질, 포르투갈, 코트디부아르 모두 북한전에서 시력을 다 해서 넣으려고 할 것이다.

한: 그런데 아무리 약팀이라도 마음 먹고 걸어 잡으면 대책 없다.

한: 그렇다. 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팀을 보여준 팀이 북한이다.

장: 문제는 아시아의 골 결정력이 워킹이라는 것이다. 이런 것



들을 보면 북한이 슈팅 찬스를 많이 허용했다. 세계 최상 수준의 공격력을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대량 실점할 수도 있다.

M: 이번 이아기가 남아 있지만 이만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 새 출발하는 MAXXI에도 관심 관심 부탁한다.

한: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MAXXI라는 인연이 깊다. 예전에도 글도 썼다.

장: MAXXI를 위한 정보를 많이 소개해달라. 물 좋은 클럽이라도 든지.

장: 양모 못 다한 이야기는 후기형 글도 다시 한 번 모여서 했으면 좋겠다.





Tough Ways to South Africa

모든 길도 남아공만 가면 된다! ILLUSTRATION 배수진

1 날아간다

가장 빠른 방법은 하늘길이다. 허나 직항편이 없으니 홍콩, 런던, 암스테르담, 두바이 중 한 곳 이상 거쳐 가야 한다. 인천에서 홍콩을 경유해 요하네스버그까지 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기내에서 17시간 30분 동안 버텨낼 체력과 아이폰, 그리고 MAXIM 한 권이면 장거리 비행의 피로가 싹 가실 것이다.

2 차로 간다

최고 시속 414km로 달리는 포르세에 GTP-R라면 서울에서 남아공을 하루하고도 18시간 만에 주파할 수 있다. 그러나 스틸 넘치는 이 여정에는 북한과 아프리카산탄, 이라크를 포함해 10개국 이상을 통과해야 하는 위험이 따른다. 또 도로는 커브가 거의 없는 직선거리야 한다. 최고 속도를 유지하려면 드리프트도 못하겠지? 국경 침입자로 오인받아 총 세례를 받아도 우린 알 바 아니다. 이래도 가겠나?

3 걸어간다

월드컵은 일찌감치 포기하라. 하지만 밤낮없이 17일 5시간을 걷는다면 희망봉에서 크리마스 정도는 보낼 수 있으니 너무 상심하지 마라. 하루 평균 7시간씩 지면서 걷는다면 덤으로 살찌기 쉴 수 있다.

4 뛰어나다

그토록 남아공이 가고 싶은가? 방법 하나 더 알려주겠다. 당시의 저질 육체에 엔초 페리치 연인과 우사인 볼트의 철각을 이식한다면 2일 17시간 만에 요하네스버그에 도달할 수 있다. 당시 육체의 과부하로 안구에 쓰나미가 몰려오겠지만 조별 리그 세 경기 모

두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라. 만약 지구에 방해가 찾아올 경우 당시의 사사나무 같은 두 다리 대신 모태를 말뚝지를 심어서, 1만7,040km의 거리를 15일 15시간 동안 스케이트링한다면 월드컵 잔여까지 같이 걸을 수 있다.

5 보러 간다

600년 전 명나라 해상 정복자가 28년 동안 누볐던 버섯길을 우리는 한 달도 안 돼 주파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남아공을 갈 수 있는 일반 선박은 없다. 만약 부산에서 시속 22노트의 크루즈선이 생긴다면 13일 19시간 안에 남아공 제1항구 도시이자 나이지리아와 최종전이 열리는 더반항에 도착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포항과 광양항에서 운항하는 남아공행 철강선 운송선에 물레 잠입하는 것이다. 22일 전투 식량과 하키수 대형 날개 백스면 충분하다.

6 해외쳐 간다

답이 없다.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TV나 틀어라. 1만3,490km에 이르는 부산에서 더반까지의 버섯길은 '미린보이' 박태환이 밤도 안 먹고 86일 5시간 동안 연속해서 해엄쳐야 갈 수 있는 거리다. 순간속도 160km/h를 자랑하는 참치리본 닻세 안에 남아공까지 갈 수 있다. 동부 아프리카의 해적과 식인 상어의 추적을 따돌리고 말이다. 근대 그럴 뻔하나? 날고 기어봤자 참치인데.

2010학년도 5월 문제지

MAXIM 월드컵 모의고사

딱 아는 만큼만 보기에 출제했다.

성명

수험번호

제 1교시 역사

1. 도대체 월드컵은 누가 만들었기에 우리를 이토록 미치게 만드는가!
① 사마란치 ② 게르 블러터 ③ 즐리베 ④ 앙리 들로네 ⑤ 정몽준
2. 월드컵 B/C 3라 불리는 브라질, 이탈리아, 독일의 월드컵 우승 횟수를 합하시오.
① 8회 ② 10회 ③ 12회 ④ 15회
3. 2002 한일 월드컵 조별 리그 F조 독일과 가메론 경기는 월드컵 사상 최악의 난무극으로 몰릴 만큼 많은 레드카드가 난무했다. 대체 몇 개나 나왔기에 80년 월드컵 역 사상 최악의 경기로 기록됐는는가?
① 7개 ② 10개 ③ 13개 ④ 16개
4. 누가 뭐래도 우리는 명실상부 아시아 최강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월드컵 역대 전적을 맞춰봐.
① 4승 7무 13패 ② 3승 6무 12패 ③ 5승 8무 11패 ④ 4승 6무 14패

제 2교시 스포츠

5. 국가대표로 A매치 48경기 출전 33골 기록, 아스카 시절 3년 연속 유럽 최우수선수수에 뽑히며 '20세기 최고의 유럽 축구 선수'에 선정되었으나 현재 무부수로 카탈루냐 대표팀에 봉사하고 있는 왕년의 슈퍼스타는?
① 호세 과르디올라 ② 요한 크루이프 ③ 프란츠 베켄바워 ④ 로타어 마테우스
6. 다음 중 월드컵 출전 선수들의 득점 기록이 다른 하나는?
① 호나우두(브라질)-15골
② 게르트 뮐러(서독)-13골
③ 안정환(대한민국)-3골
④ 게리 리네커(잉글랜드)-10골
7. 다음은 각 나라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환상의 조합이다. 다른 조합 하나를 찾아볼 때면 찾아봐라.
① [호나우두-호나우딩요-카가-아드리아노]의 브라질 판타스틱 4
② [리자라쥐-클망-드사이-튀링]의 레볼루션 오브 풋볼
③ [펠레-자일진요-히켈리노-투스탕]의 클래식 브라질 환상 4중주
④ [푸스카스-루시시-디 스테파노-히데쿠미]의 최강 마저로 군단
8. 저주로 악명 높은 '축구 황제' 펠레는 한 행사장에서 2002 월드컵 공식 주제가를 부른 여가수 아나스타샤와 포옹하며 폭 파인 의상 인종의 가슴을 뽐냈게 쳐다봤다. 이후 아나스타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나?
① 아나스타샤의 조국은 한일 월드컵 16강에서 탈락했다.
② 아나스타샤의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
③ 아나스타샤의 월드컵 공식곡 'Boom'이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④ 아나스타샤는 몇 개월 후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

제 3교시 남야공

9. 다음 중 남아공월드컵 본선 진출국이 아닌 나라는?
①  ②  ③ 
④  ⑤ 답 없음
10. 기환이는 남아공에서 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 다니던 회사도 패러치우고 지난 몇 달간 아르바이트에 몸 바쳤다.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기환이가 한 아르바이트는 무엇이었나?
① 호퍼 1개월 반 ② MAXIM 인턴 6개월 ③ 노가다 2개월 ④ 시체 닦기 2근
11. 우리나라가 남아공에서 사상 첫 월드컵 16강에 진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선수 1인당 돌아가는 최대 포상금은 얼마인가?
① 1억 ② 1억 7천만 원 ③ 3억 ④ 군 면제료 대신
12. 다음 중 남아공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나라와 감독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① 온두라스-레이날도 루페다
② 코트디부아르-알렉스 퍼거슨
③ 슬로바키아-블라디미르 라이츠
④ 북한-김정일

제 4교시 일반잡식

13. 당신이 알고 있던 축구 용어는 콩글리시였다. 이참에 제대로 알고 넘어가자. 다음 중 올바른 축구 용어로 고친 게 아닌 것은?
① 헤딩 → 헤더 ② 핸들링 → 핸드볼 ③ 킥패스 → 킬패스 ④ 센터링 → 크로스 ⑤ 슛 스트라이커 → 원 톱
14. 마라도나의 얼굴을 물어뜯어 수술을 받게 한 착한 애완견의 품종은?
① 진돗개 ② 시베리안 허스키 ③ 스피츠 ④ 사슴이
15. 이 용어는 월드컵 축구대회 본선 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곧바로 퇴장당한 선수를 일컫는 말로 50~60년대 브라질의 전성기를 이끈 이 선수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98 프랑스 월드컵 멕시코전에서 하석주도 이 클럽에 가입하는 영광을 누렸다. 이 클럽의 명칭은 무엇인가?
① 우루사 클럽 ② 가린사 클럽 ③ 브라사 클럽 ④ 나르사 클럽 ⑤ 나이트 클럽

Uniform World Cup

MAXIM 마음대로 뽑아본 분야별 유니폼 베스트!

ILLUSTRATION 韓世潤



AMERICAN BEAUTY

미국 / 11명의 미스 USA가 초록 필드를 지배한다! 상체를 사선으로 가로지르는 흰 선은 미인대회를 제패한 그녀의 포스를 느낄 수 있지만 뾰가 아쉽다. 의미 불명, 정체불명, Nike의 무리수!

BRITISH GENTLEMAN

잉글랜드 / 물로의 흰색 피케시츠에 엠블럼만 넣은 듯한 잉글랜드의 유니폼은 Umbro가 정통 캐주얼 브랜드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무난함을 가장한 무책임!

DREAMS COME TRUE

일본 / 오카다 감독의 '4강론'은 전 세계의 비웃음을 사고 있지만 Adidas가 야심차게 내놓은 유니폼은 충분히 4강 전력을 갖췄다. 울트라맨을 연상시키는 목부분의 빨간색 포인트가 초록색으로 변했을 때 그들은 4강의 꿈을 이룰 것이다! 물론 이 유니폼에 그런 기능은 없다.

HIDDEN CARD

북한 / 베일에 싸인 팀 북한. 베일에 싸인 그들의 유니폼. 최근 평가전에서는 상대팀 베네수엘라의 유니폼을 빌려 입으며 자신들의 유니폼을 숨기는 처일함을 보여주기도. 그들은 어떤 충격적인 디자인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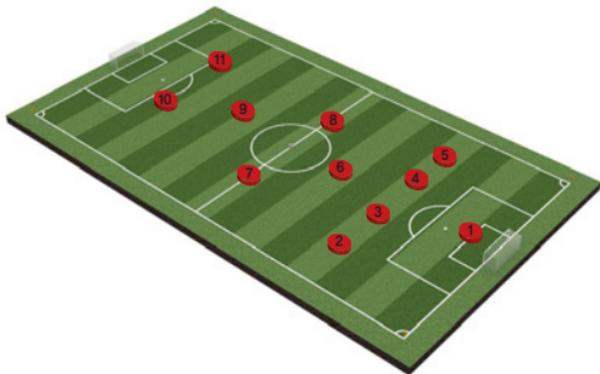
WINNER

스페인 / 스페인의 이번 유니폼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전통에 충실하면서도 간결한 디자인은 아름답고, 빨간색 바탕과 3줄의 노란색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결승 매치업 상대인 아르헨티나의 유니폼 또한 아다스의 자력을 보여주는 작품!



KOREAN WAGS Best 11!

리얼메의 축구 실력보다 그의 아내가 부러운 적 없나?
여기 MAXIM이 남부럽지 않은 한국의 WAGS(아내와 여자친구)를 뽑아봤다. 아, 물론 당신 건 아니다.



BEST 11

11	FW	윤 미	설기현 아내. 화려하지 않지만 축구 선수 아내로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현모양처.
10	FW	김성은	정조국 아내. 용감한 음치 캐릭터로 사랑받은 그녀는 패트리엇 2세를 임신 중.
9	MF	정영희	수원의 테크니션 남궁공의 아내. 지도자들이 인정하는 실력에 비해 조영을 받지 못한 그는 소리 없이 강한 아내를 얻었다.
8	MF	박수진	수원의 꽃미남 미드필더 백지훈의 여자친구. 그룹 슈가 출신의 탤런트. 이들이 정조국-김성은 커플을 이어줬다고.
7	MF	이연두	국가대표 미드필더 김정우 여자친구. 손예진을 닮은 미모로 유명세.
6	MF	양은지	국가대표급 미드필더 이호 아내. 전 베이비복스 리브의 멤버이자 양미라의 동생. UAE 생활은 어떨신지요?
5	DF	안춘영	통스로인의 지존 현영민 아내. 2003년 미스코리아 미에 빛나는 미모. 상대적으로 안타까운 이름.
4	DF	김지연	성남의 터코대급 장학원 아내이자 탤런트. 검색에선 이상재의 아내와 동명이인으로 몰리지만 훨씬 풋풋한 미모.
3	DF	박익선	2002년의 영웅 송중국 아내. 탤런트 겸 영화배우지만 2008년 이후의 행적은 묘연.
2	DF	민수지	남아공행이 거의 확실한 수비수 오범석 아내. 핀란드와 경기 전 '늘어라 늘어라' 늘려라' 라는 문자로 남편의 골을 만든 엄청난 아내.
1	GK	임미정	이문재의 위풍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정성룡 아내. 2006년 미스코리아 인기상. 22세에 이미 품절네!

SUBSTITUTION

이해원	안정환 번지의 주인공. 얼마 전 중국 언론의 성형수술에 대한 익의적 보도로 가슴에 스크래치 얻음. 한국 WAGS 1세대.
이수진	이동국의 연인은 월드컵 불운을 옆에서 지켜봐야 했던 그녀. 이번에는 웃을 수 있을까?
아베 미호코	과거 국가대표 최성용 아내. 일본에서 유명한 배우. 최성용을 인터뷰하며 만나게 됐다고.
송주	제주 UTD 최성현의 아내. 유명 잡지에서 활동한 뜬몸. CF와 뮤직비디오 등에서도 활약.
이영순	울산 현대 서덕구의 부인. 미스코리아 출신 출신 모델. 구수한 이름과는 다른 세련된 외모!
유수진	미남 수비수 박용호의 아내. 연예인은 아니지만 선남선녀 커플로 불리기도 손색없다.
김현주	이문재의 아내.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던 골키퍼 포지션에 무혈 입성.

이것이 진정한 '시 to the 맥!'

1990~2000년대까지 월드컵 축음의 조를 찾아왔다.



1990년	아르헨티나, 구스퀼, 루마니아, 카메룬
1994년	이탈리아, 아일랜드, 멕시코, 노르웨이
1998년	스페인, 나이지리아, 파라과이, 폴란드
2002년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나이지리아, 스웨덴
2006년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코트디부아르, 세르비아
2010년	브라질, 북한, 코트디부아르, 포르투갈

익을 팀

아르헨티나

월드컵 20년 동안 축음의 조 내들이를 한 번 할 동안 그런 데 우승은 2번이나 배운 아르헨티나는 2번이나 다녔었다. 이번 조에선 에서 힘줄 다 빼니 아르헨티나가 행행한 다른 팀들을 상대로 우승과 기가 아슬아슬 수색에 바리코(아르헨티나의 전설, 비타스 투타의 별명) 당시 잘못이 아니었어.

죽목 팀

코트디부아르

월드컵 20년 동안 축음의 조 내들이를 한 번 할 동안 그런 데 우승은 2번이나 배운 아르헨티나는 2번이나 다녔었다. 이번 조에선 에서 힘줄 다 빼니 아르헨티나가 행행한 다른 팀들을 상대로 우승과 기가 아슬아슬 수색에 바리코(아르헨티나의 전설, 비타스 투타의 별명) 당시 잘못이 아니었어.

역대 최악의 '죽음의 조'

2002년 한일 월드컵 조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나이지리아, 스웨덴

할 말이 없다. 보통 이 팀들은 42세에 만나야 한다. 우리나라, 일본 이 시대를 받아서 역대 최악의 죽음의 조가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제 3자인 우리가 보면 정말 나위 없이 재미있는 조 예선이었다. 죽음의 조고 그리고 2년 후 우리가 만나 되는 거네!

IF

미드 박병 이론의

[KALEY CUOCO]

가 가장 섹시한 여주인공이라면



PHOTOGRAPHS BY CHRIS FORTUNE

AND

그녀가 등장하는

[SEXIEST PHOTOS]

를 감상할 준비가 됐다면



THEN

오늘 하루만큼은

[YOUR LUCKY DAY]

BY ALISON PRATO



LOVE

[PENNY PENNY PENNY]

옆집에 사는 이쁜이, 페니!

오덕들의 여신이자 <빅뱅 이혼>의 여주인공 김리 쿠 오코는 괴짜들의 바다에서 홀로 핀 꽃 한 송이다. 대부분 인생을 배우로 살아온 아역배우 출신인 그녀는 다른 여배우와 달리 단 한 번도 섹스 테이프나 마약 문제 같은 사고를 친 적이 없다. 그러나 인터뷰를 시작하자 그녀는 <빅뱅 이혼> 세트장에서 그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운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고를 치는지에 대해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얼마나 많은 자동차 사고를 냈기에 스스로를 '질이나쁜 운전자' 라고 부르는가?

생 수 없을 만큼 사고를 많이 냈다. 어제도 운전해서 집에 가는 길에 다른 사람 자동차 백미러를 완전히 박살냈다.

저런!

당연히 메모는 남겼다. "안녕하세요! 미안해요! 당신 차 백미러를 깬어요!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이란 내용을 적었다. 아, 나처럼 양심적인 사람이 또 있을까?

당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건가?

하하하, 그건 내 변호사의 번호다. 한번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베스파 스쿠터 뒤에 자기 갈매기(<빅뱅 이혼> 상대역 레너드)를 뒤에 태우고 달리다가 그대로 벽을 들이받은 일이 있다. 그가 튕겨 날아가다시피 했다. 자나를 거의 죽일 뻔 했다. 농담이 아니다!

<빅뱅 이혼> 제작자들이 당신을 골치거리로 생각했다.

그들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고를 쳤는지 이미 모를 거다. 오토바이 레슨을 받고 싶은데, 과연 오토바이를 제대로 타게 가르쳐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사실 난 나에게 강렬하고 열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들을 격하게 좋아하는 것뿐이다.

특히 괴짜 중에 <빅뱅 이혼>을 좋아하는 이가 많다. 다른 팬들보다 광적으로 집착하진 않나?

우리 팬들이 다른 팬과 좀 다르긴 하다. 녹화장은 늘 폭 콘서트 분위기다. <빅뱅 이혼>은 내가 그동안 있는 줄도 몰랐던 그룹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특별한 것이 있다. 마치 수천 명의 천재 오덕이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한꺼번에 드러내는 느낌이었다. 이 드러내는 길고 긴 물리학의 역사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이다!



“빅뱅 이론 팬은
다른 팬과 다르다.”



**GOOD
[CHOICE]**

이상한 팬을 만난 적은 없나?

한 남자 방청객이 입은 티셔츠에 내 얼굴과 (스티워즈)의 레아 공주 몸을 합성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내가 "그건 페-레아네요. 페니와 레아 공주를 합쳤으니까요"라고 말했다. 내 재치에 놀랐고 동시에 내 말투에 오싹했다.

당신은 재할연과 경합서, 클럽을 전전하는 전형적인 할리우드 여배우의 모습과 전혀 다르다. 비결이 뭐가?

나는 할리우드 스타일과 거리가 멀다. 클럽에 갈 일은 내 인생에서 딱 한번 있을까 한 일이다. 그 정도로 나는 집에 있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다. 술에 취하는 느낌이 정말 싫다. 집에서 갠지리와 노는 것이 좋다. 난 매일 밤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긴 쇼파에서 잠든다. 과장이 아니다! 그래도 내가 너무 불쌍해 보이지 않으면 좋겠다.

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도 데이트할 수 있나?

2년 전 개를 안 좋아하는 남자와 만났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내가 키우던 거대한 자만 셰퍼드 재우스가 뛰어 나왔다. 그가 왕따증을 내며 먼저 제거를 찾았다. 그 뒤로 그를 다시 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재미없는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있나?

솔직히 말하면 싫다. 그리고 나의 음침하고 지저분한 유머 센스를 받아주지 않으면 산 채로 그를 잡아먹어버릴 거대!

연상남이 좋나?

지금까지 늘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와 만나왔다. 연상에게 끌린다. 내 또래는 남자도 안 보인다. 10대 때도 난 주변 남자애들이 엄청하고 어리고 미성숙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사실 남자들은 여자보다 조금은 성장이 느리니까.

짝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나?

미안한 말이지만 난 내가 원하는 걸 놓친 적이 없다. 내가 무언가에 꽂히면 나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남자 동료가 당신에게 데이트 조언을 해주기도 하나?

개들이 뭘 알겠나? 전혀 그들은 모두 나를 과보호하거나 귀찮게 군다. 최근에 나를 음흉하게 쳐다보던 한 남자 단역이 있었다. 차니는 "그를 없애야 해!"라고 말했다. 나는 "그가 나를 쳐다보는 데 무슨 문제 있어?"라고 대답했다. 차니는 심정하비 수준으로 충격을 받았다. 난 남동생이 없어서 그런지 이 소년들이 그저 사랑스러워 뿐이다.

잠깐 그들이 의도적으로 당신 이 다른 남자가 교체하는 걸 방해하는 게 아닐까?

추파를 던지는 남자도 별로 없으니 딱히 막을 것도 없는데, 허여쁜 날 과보호하는 건 확실하다.

남자친구가 있나?

최근 싱글이 됐다. 늘 남자친구가 있었다.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여자친구라고 생각한다.

당신이 왜 훌륭한 여친인지 설명해보라.

끝내주는 여자니까! 나는 스포츠를 좋아한다. 운동 경기라면 중목이나 장소 안 가려고 구경하러 가길 좋아한다. 잘 먹고 잘 놀고 잘 마신다. 그리고 남자와 어울리는 걸 좋아한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나랑 노는 걸 좋아한다.

우리는 촬영장에서 당신이 아주 최소한의 옷만 걸치고 탁구를 치면서 상대 남자의 손을 빼놓는다는 얘길 들었다. 당신만의 스타일 비결인가?

아메리칸 어패럴에서 핫핑크 반바지와 매우 작은 핫핑크 탱크톱, 핑크 나삭스, 핫핑크 캔버스 운동화와 머리띠를 샀다. 그렇

게 옷을 입고 경기에서 저분적이었다. 가슴을 출렁이면서 다리를 보여주면 남자들은 경기에 집중하지 못한다. 그대신 맘을 출린다. 그리고 탁구채 잡는 손에 힘이 빠진다. 이게 나만의 비결이다.

중간에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후회는 없나?

오, 마이 갓! 절대로 없다. 내 어린 시절은 매우 훌륭했다. 겨우 열 살 때 맨틀 워싱턴과 함께 촬영하던 곳에서 뛰어다녔고 원하는 건 무엇이든 했다. 학교를 안 가서 후회한 적은 단 1초도 없다.

고등학교 졸업파티엔 가고 싶지 않나?

고등학교 졸업 파티? 그 까짓거 뭐 대단한게! 난 영화배우들의 파티에 갔다. 고등학교 졸업 파티보다 그게 훨씬 낫지 않나?



“나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여자친구다.

Rise of the

BY JESSE WILL

PHOTOGRAPHS BY JAMIE CHUNG

STUDIO 27 Miami

599 GTB의 트랜스미션이 기어를 바꾸는 속도는 인간이 눈을 한 번 깜빡이는 속도보다 빠르다.

11개의 동공구는 뜨거운 바람을 뿜어낸다.

영양난 집사관을 지닌 2021치 피렐리 타이어는 차체가 지면에 척 달라붙도록 한다.

ILLUSTRATION 2015



ABOUT OUR TEST DRIVER

인디 레이싱 리그(IRC) 위에서 가장 빛나는 자구인은 다니카 패트랙(미국의 미녀 레이서)이라고 생각했는데, 헬리오 카스트로네베스도 IRC 서킷을 지배하는 빛나는 스타 드라이버다. 지상 최고의 불거리, 세계 최고의 스포츠 이벤트인 인디 레이싱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그는 인디 500을 3회 우승한 이름 번째 드라이버가 되었다. 열정 가득한 34세의 이 브라질 남자는 우승할 때마다 안전 펜스를 기어 올라가서 팬들을 환장하게 만드는 승리 세리머니로 트랙 관계자들을 화나게 한다. 그릴 바겐 TV에 나가서 춤이나 추라고? 그가 연예인 댄스 대결 프로그램 <Dancing With The Stars>의 우승자라는 걸 잊었나? 오호 그는 MAXIM을 위해 슈퍼카들과 함께 춤춘다.

MACHINES

오랜 검토 끝에 변호사들이 3,000마력, 130만 달러 이상의 세계 최고 슈퍼카 다섯 대의 운전을 허락했다. 마이애미의 스튜디오에서 촬영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녀석들을 트랙으로 끌고 나왔다. 인디 500을 세 번이나 제패한 **헬리오 카스트로네베스**를 MAXIM의 테스트 드라이버로 간택했다. 대리 운전기사 차곤 꽤 괜찮은 스펙이지? 이제 달려보자!

INDY 500
미국의 인디애나폴리스 500마일 레이싱 스테디셀러, 세계 3대 자동차 레이싱 중 하나다.

독립된 후방 기동들이 다운포스를 증가시킨다.



Ferrari 599 Fiorano GTB HGTE

THE STALLION

599 GTB는 페라리 마라넬로 마구간의 우두머리로서 이미 MAXIM 드림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Handling Gran Turismo Evoluzione(HGTE)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으니 또다시 우리의 경배를 받을지나. 프런트-미드엔진(엔진이 앞에 있다, 차량 중심에 가까이 놓인 방식을 장악한 이 예술품은 마치 진공포장된 듯 매끈한 외피 아래에서 더욱 빠르게 반응하고 심지어 멈춰 있을 때조차 우리를 유혹한다. HGTE 패키지는 599를 더 빠르고 더 강하게 핸들링하도록 만들었다. 타이어는 바닥에 더욱 착 달라붙고, 서스펜션은 더 단단하며 차체는 더 가벼워졌다. 6단계 매뉴얼-오토메틱의 F-1 스타일 트랜스미션은 변속 시간을 단축했다. 6L V-12 엔진의 배기 음도 달라졌다. '오~' 에서 '우오오오오우~!' 정도? HELIO SAYS: 이 정도로 놀라운 자동차의 경우엔 페라리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낸 - 예를 들어 기어박스도 더 빨라지고,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등 - 아주 사소한 차이가 트랙 위에서 엄청난 주행 능력을 불러온다. 오, 그리고 이 멋진 배기음!

SPEC CHECK

가격 : \$503,890
엔진 : 6.0L V-12
마력 : 7600RPM에서 620마력
토크 : 5600RPM에서 62.08kg.m
0-100 : 3.4초
최고 속도 : 332km/h

Lamborghini Murcielago 670 - 4 Superveloce

● 부품용 모양의 엔진 커버는
가속할 때 열린다.

● 고정된 탄소섬유 뒷날개는
다운포스를 증가시킨다.



● 시지 도어는 위로 열린다.

● 뒤 패달은 레이저 커팅한 알루미늄 망이다.

THE RAGING BULL

최근 람보르기니가 내놓은 최상급 모델은 '생난 여친의 가시 돌친 집기 신공' 보다 더욱 아찔하고 날카로운 각을 자랑한다. 잠시 이 녀석을 응시하면서 외관을 천천히 살펴대 보면 이미에서 땀이 백질 호흡 지경이다(그렇다고 우리가 자동차만 보면 흥분하는 미친놈이란 말은 아니다). 이탈리아 볼로냐 지방 산타아가타에 사는, 정성줄 높은 이 차의 제작자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자동차를 딱 350대만 만들 예정이다. 그들은 무르시엘라고에 30마력을 더하고, 100kg을 덜어내고, 탄소섬유 신소재로 만든 스포일러로 차의 다운포스를 증가시켜서 차를 더 가볍고 빠르게 만들었다. 속이 비치는 6각형 핀을 3열로 세워 엔진 보닛을 구성했다. 엔진 보닛의 판들은 차의 속도가 올라갈 때 달아온 엔진을 식하기 위해 열린다. 그리고 48개의 밸브와 8,000RPM에서 풀어제나오는 교향곡은 세상 그 어떤 아티스트의 라이브 콘서트보다 황홀하고 아름답다.

HELIO SAYS : 무르시엘라고는 몰아봤지만, 슈퍼 벨로체를 운전해본 것은 처음이다. 이 녀석을 몰리라는 건 외위드한 경험이었다. 코너에서 매우 빠른 뿐만 아니라 아주 예민하다. 스피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 황소를 제어할 수 있다. 무게를 줄이고 힘을 키운 이 녀석은 또 하나의 레벨을 뛰어넘은 슈퍼카가 되었다.

SPEC CHECK

가격: \$450,000

엔진: 6.0L V-12

마력: 8,000RPM에서 670마력

토크: 6,500RPM에서 67kgm

0-100: 3.3초

최고 속도: 340km/h

차체의 경력을 내는 마감되는
대략 2,000달러

ZR의 탄소 세라믹
브레이크 : \$2,000

1단 기어에서
100km/h를 낸다.



Hennessey Corvette ZR 1

THE BEAST

콜벳의 재왕인 GM의 ZR1은 638마력, 90이 넘는 풋파운드 토크를 자랑하며 스피드광의 기를 순식간에 질리게 만들기 충분하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욕심쟁이들은 자동차 튜닝으로 소문난 존 헨네시의 가게를 찾아 미국 텍사스로 원정을 떠난다. ZR1 안에 숨은 더 무시무시한 괴물을 깨우기 위해서 말이다. 헨네시는 배기틀 더 원활하도록 부품을 교체하고, 슈퍼차저도 바꿔 준다. 그리고 속도를 더 낼 수 있도록 엔진의 컴퓨터까지 다시 프로그래밍한다. 그 결과, 100km/h를 3초 만에 도달하는, 거의 타이어를 핏으면서 달리는 괴물 머신이 탄생한다. 젤장, 역시 아메리카는 자동차 천국이다.

HELIO SAYS : 내 콜벳 Z06에 비교해서 주행, 코너링, 스피드가 엄청나게 진보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사실 인터리어는 다른 기능에 비해 별로 나아진 점이 없다. 즉 메리리보단 좀 구리다는 예가다. 워 인터리어가 좀 빠지면 어따라. 그저 이 녀석은 빠르고, 시끄럽고, 또 더 시끄럽게 울어짖지만 하면 될 뿐이다.

SPEC CHECK

가격 : \$76,000~

엔진 : 6.2L 슈퍼차지 LS9V-8

마력 : 6,400HP(에서 7,050마력)

토크 : 3,800HP(에서 59kgm)

0-100 : 3.0초

최고 속도 : 350km/h 이상

Porsche 911 Turbo Cabriolet



SPEC CHECK

가격 : \$149,555

엔진 : 3.8L 트윈 터보차지 FLAT-6X

마력 : 6,000RPM에서 480마력

토크 : 4,000RPM에서 70kg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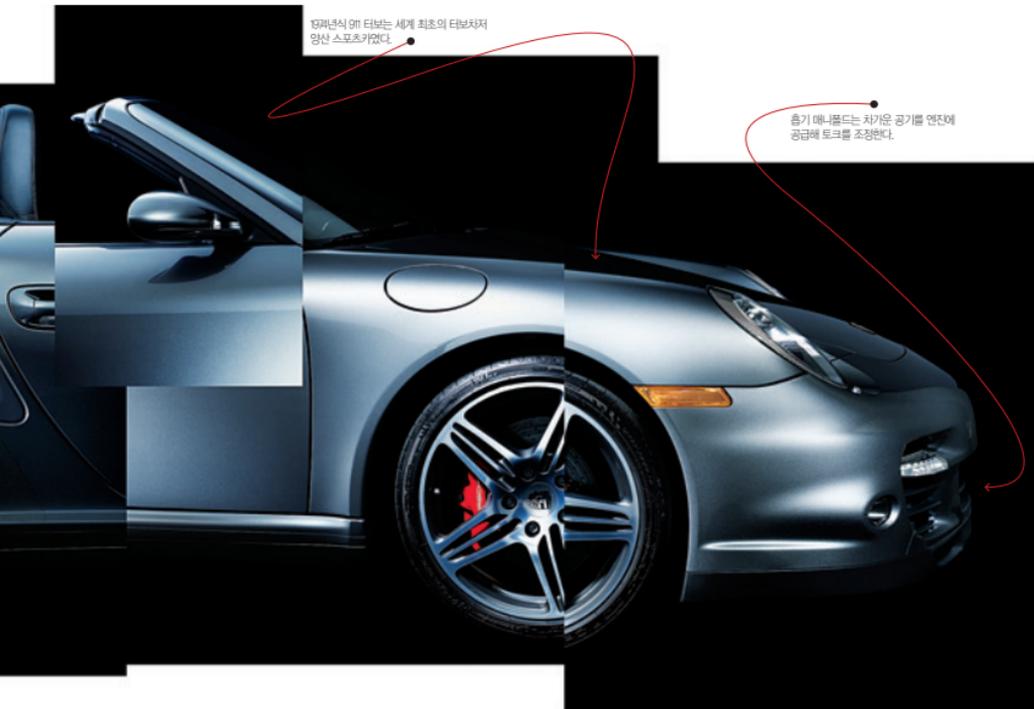
0-100 : 3.6초

최고 속도 : 323km/h

휠의 패러디움을 바꿔 차가 앞으로 나가는 힘을 더욱 실어주었다.

THE CLASSIC

당신은 포르세 911 터보가 거친 남자들의 세계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아마 젊은 여자나 혹은 중년의 위기를 겪는 차와 의사에게나 어울리는 스포츠차라고 말이다. 그러나 한 번 이 차를 직접 몰아볼 기회가 생긴다면? 당신은 이 차의 소유주가 되기 위해 치의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영공 모드에 돌입할 거다(혹은 절고 예쁜 여자로 형태를 바꾸거나). 35년 동안 진화를 진화를 거듭한 결과 911 터보는 점점 완벽에 가까운 자동차로 변모했다. 이는 작은 변화에서 큰 진보를 끌어내는 포르세의 경이로운 기술 덕분이었다. 두 개의 터보차저에서 증폭되는 flat-6의 직렬분사 방식 구동은 계기판의 RPM 바늘이 올라갈 때마다 끊임없는 파워를 뿜어내게 한다. 60km/h에서 100km/h로 속도를 올리는 게 1초면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림같은 미치 '정차인들의 악수' 민클이나 단단한 느낌이다. 한 가지 더. 키 박스는 핸들의 오른쪽이 아니라 핸들 왼쪽에 달려 있다. 쓸데없는 한량짓거리로써만 안 보이는 이런 작은 변화 덕분에, 르망 레이스를 달리는 포르세 드라이버들은 차를 1단 기어에 넣고도 남보다 더 빠른 스타트를 할 수 있다! HELIO SAYS :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911 터보는 클래식 그 자체다. 물론 다른 슈퍼카들이 911 터보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내성보다 화려하고 돈 냄새 풍기는 차는 없다. 이 차의 브레이크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다. 305km/h의 속도를 밟는 일도 911터보라면—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차의 유일한 단점? 경찰에게는 과속을 하는 당신의 얼굴이 아주 잘 보인다는 것.



하이브리드 EV 타보는 세계 최초의 타보차자
양산 스포츠카였다.

몸기 하나쯤드는 차임 공기질 연연에
공급해 토크를 조정한다.

WHERE WE TESTED THEM

우리가 광란의 질주를 즐긴 곳은 웬만한 모든 미국 메이저 모터스포츠를 모조리 개최한 **홀스티드-마이애미 스피드웨이**이다.



IMAGE Track(Dreamstime.com)

1. PIT LANE

피트 레인은 저곳이다. 빨리오는 여기서 차를 세우고 도넛을 우려우려 먹었다. 아무도 밀리는 사람이 없었다.

2. THE ROAD COURSE

홀스티드의 모디파이드 코스는 3.7km 길에 17개 코너로 이루어졌다. 빨리 오는 코스를 달리는 내내 바퀴를 트랙에 바짝 붙이는 재주를 부렸다. 막 바고 이것만 하는 직자니 새삼 놀라울 것도 없었다.

3. THE STRAIGHTAWAYS

트랙에는 530m의 직선 코스가 있다. 이곳에서 280km/h 이상의 속도를 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차가 이륙해서 자구를 떠나버릴까봐 노심초사했다. 이 세상 소용 끝내고 하늘로 올라가겠다고 말할 기세

4. THE BANKS

슈퍼스피드웨이의 언덕 코너는 모두 캄퓨터로 디자인한 것인데 언덕의 경사각이 18~20도 정도다. 이 언덕들이 자동차의 스피드를 높이고 레이스를 치열하게 만든다.

5. THE FINISH LINE

이곳엔 6만5천 명의 팬을 수용하는 스탠드가 있다.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니스카 스포츠링크업 챔피언십로드 400에서 가장 먼저 이 페이스 라인을 통과한 자동차는 도모타 캄리로 레이서는 데니 해들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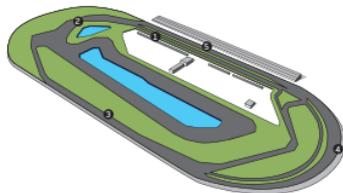


ILLUSTRATION 8801



에스틴 마틴 장인이 DBS 한 대를 만드는 데 20시간이 걸린다.

탄소섬유 후드도 차체의 무게를 줄였다.

\$35,000여의 에어 로프트로 시계용 스톤은 DBS의 문을 제임스 본드 스타일로 만들어준다.

Aston Martin DBS

THE SECRET AGENT

자동차 마니아들에게 영화사상 가장 슬픈 장면이 뭐냐고 물으면 아마 "(007 퀸텀 오브 솔러스)에서 제임스 본드의 에스틴 마틴 DBS가 등장 7분 만에 고철이 되는 장면" 이라고 대답할 거다. 그만큼 DBS는 자동차 마니아들이 수십 년간 꿈꿔온 드림카라고 부르기엔 손색이 없다. 매끄러운 알루미늄과 탄소섬유의 피복, 뒷날개 없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차체 라인, 그 라인을 덮은 값비싼 칠, 그리고 단단한 보디 아래 숨어서 폭발하듯 명령만 기다리는 극강의 힘. 남자라면 DBS에 매료될 수밖에 없다. 수제 V-12 엔진의 과속에 당신이 낫을 놓고 빠져 있는 동안 조수석의 그녀가 트러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럴 땐 DBS의 1,000와트 뱅엔올름슨 사운드 시스템으로 그녀 귀에 황홀경을 안겨주자. **HELIO SAYS** : 다른 차에 비해 트랙 위에서 달리는 느낌이 더 확실히다. 직선주로를 240km/h로 주파하는 동안 차 안에서는 편안하게 오페라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주행력을 자랑한다. 에스틴 마틴 DBS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튼튼한 마감과 아찔하면서도 절제된 디자인. 그 이상의 파워를 보여주는 놀라운 자동차다.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다.

SPEC CHECK

가격 : \$239,000
 엔진 : 6.5L V-12
 마력 : 6,500PSM에서 590마력
 토크 : 5,700PSM에서 59kgm
 0-100 : 4.3초
 최고 속도 : 307km/h

DRIVING THEIR DIGITAL COUNTERPARTS

디지털 버전 자동차 시승기 XBox의 (포르차 모터스포츠 2)에 등장하는 이 자동차들이 얼마나 초현실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대리기사 헬리오가 직접 가상 버전 자동차를 타고 달렸다.



1. ASTON MARTIN DBS

헬리오의 어필이 말했다. "모든 것을 다 갖췄다. 정신 나간 듯한 개성 시승도만 빼면" 현실 속 DBS가 트랙을 달릴 때처럼 게임 속 DBS도 가벼운 구간보다 직선 구간 주행력이 더 낫다.



2. FERRARI 599

현들의 LED 회전 디스플레이 같은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게임에서도 그대로 재현했다. "이 게임을 하고 나면 실제 페라리 599를 도운전하고 싶어진" 며 헬리오가 말했다.



3. PORSCHE 911 GT2

헬리오의 손익엔 MAVN 에디터들이 색은 최고 기분을 내고 최강자로 등극했다. "현실과 마찬가지로 게임에서도 티보 911이 가장 가벼운 차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거친한 자세로 그가 말했다.

당신의 S라인을 위한 '女子' 의 뷰티 프로젝트



女
友
어름다움에 자신감을 드리는
여우성형외과

노출의 계절 여름에만 몸매에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겨울철에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늘어나 여성들이 어느 때보다 몸매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다이어트의 가장 효과적인 지방형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흡입술을 만나면 '나만을 위한' 맞춤형 다이어트의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다. 올 겨울 특별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 넘치는 S몸대로 변신해 보자.

도움말 : 반창원 원장 성형외과전문의(02-516-6150)



One - Day 지방흡입, 나만을 위한 날씬한 바디라인

빠르고 안전한 '레이저 지방흡입술'

아름답고 군살없는 몸매는 모든 여성의 꿈이지만 비용이나 수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회복기간 때문에 수술을 결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군살없이 날씬한 복부나 허리 라인을 위한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지방흡입술이다. 그러나 이는 전신마취가 필요하여 수술 후 회복기간이 길어져 일반인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최근 들어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해주는 '레이저 지방흡입술' 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레이저 지방흡입술은 수술 전 지방을 분해시킬 수 있는 레이저를 지방흡입예정 부위에 30~40분 가량 조사한 후 지방흡입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전신마취가 필요 없고 부작용이 거의 없다.

통증, 부작용 거의 없고 시술 후 일상생활 가능한 One-Day지방흡입

레이저 지방흡입술은 레이저에 의해 지방조직이 분해되어 젤리나 죽처럼 흡입하기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흡입시 물리적인 힘이 필요치 않게 되어 수술 후 통증이 적고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지방흡입이 가능하게 되어 흡입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또한 균일한 지방흡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부의 울퉁불퉁함이나 균일하지 못하게 흡입이 되는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전신마취가 필요 없다. 비유를 한다면 겨울철 딱딱한 발을 쟁기로 가는 것보다 봄에 흙이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발을 가는 것보다 균일하게 힘도 덜 들면서 효과적일 것이고 레이저 지방흡입술은 바로 지방세포의 상태를 흡입하기 좋은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효율적이고 레이저 지방흡입술은 바로 지방세포의 상태를 흡입하기 좋은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효율적이고 부작용 없는 지방흡입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레이저 지방흡입술은 국소마취로 수술이 이루어지고 수술 후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술직후에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 실제로 레이저 지방흡입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그 다음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바쁜 직장인들에게 적합한 웰빙 시술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요요현상과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없이 나만을 위한 빠르고 안전한 지방흡입술로 프리미엄급 몸매로 자신감을 되찾자.

MAXIM
GOES TO THE
MOVIES

Iron Beauty

〈아이언맨 2〉를 더욱 뜨겁고
단단하게 만드는 '메이드 인 스웨덴'

>> 헬레나 매트슨을 만나보자.

BY JESSE BREKMAN PHOTOGRAPHS BY KAY JONES







“소녀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로스앤젤레스로 떠났습니다. 소녀는 할리우드 파티에서 파파라치들의 카메라 시선을 받으며 허룻밤 사이에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이 동화의 주인공 26세 헬레나 매트슨은 (아이언 맨 2)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배우다. 그녀의 귀여운 미소에 넘어갈 준비됐나?

미국에는 어떻게 오게 됐나?
스웨덴에서 재민 나는 어릴 때부터 연기자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런던에서 학교를 다니며 영어를 배웠다. 그러다 유럽산에서 댄스 보 일하게 됐는데, 일 시작하기 직전에 다쳤다고 행을 치고는 배낭 하나만 달랑 들고 LA로 왔다.

광장한 배낭이다.

옷도 한 벌밖에 없었는데 2주 동안 매일 같은 셔츠만 입고 오디션을 보러 다녔다. 일부러 '오늘은 행운의 날이야' 라고 적힌 핑크 셔츠를 입고 갔다.

(아이언 맨 2)에 출연했으니 이제 옷 걱정은 없겠다. 당신이 맡은 레베카라는 캐릭터에 대해 설명해달라.

재미있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여자다. 파티를 좋아하고, 근대 더 이상은 얘기할 수 없다. 너무 많이 공개하면 안 된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촬영은 어땠나?

꿈만 같았다. 대부분 장면이 즉흥적으로 이뤄졌다. 어떤 준비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었고 그가 찍고자 하는 건 대부분 OK 했다.

와인드하기로 소문난 할리우드 파티에 초대된 적 있나?

파티는 지루하다. 나는 집에서 초콜릿 케이크가 더 divertente 나쁜 것 같을 때가 좋아한다. 아마 세 트칭에 케이크를 가져가면 배우들이 케이크 칼로리를 걱정하면서 먹지 않겠지?

팬들은 당신이 집에서 만든 음식을 매우 좋아할 거다!

그렇지 않다. 그런데 내가 팬지 붓 후에 브라우니를 넣어 보내면 팬들이 너무 놀라지 않길 바란다. 참고로 나는 나한테 오는 모든 팬 러터를 좋아한다.

페이스북 하나?

계정이 있는데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다.

페이스북 친구할까?

중대. 당신이 내 3번째 친구가 될 거다.





MAXIM
GOES TO THE
MOVIES

CAPTAIN MARVEL

JON FAVREAU

존 파브로. 아이언 맨을 탄생시키고 필멸 날개 만든 장본인.
작가이자 감독이며 할리우드의 실력 있는 배우.
도대체 그가 못하는 게 있기는 한 걸까?

수요일 오후 점심 시간 (아이언 맨)의 최고 조종사로 감독과 책임 프로듀서를 맡은 존 파브로를 만났다. 파브로는 LA 서부에 위치한 폭스 사의 옥외장소 뒤쪽에 마련해 둔 음향 편집실에 앉아 있었다. 파브로는 AC/DC의 음향을 주의 깊게 들었다. 파브로 옆에는 음향 편집자가 앉아 버튼을 누르고 다이얼을 돌린다. 화면에는 아이언 맨의 또 다른 자아 토니 스타크 역할을 맡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나왔다. 영화 속 그는 전편보다 더욱 멋지게 변한 은신처에서 최첨단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이 노래 좋은데?”

파브로는 음향 편집자에게 말했다.

“제목이 뭐지?”

“버로드 타임(Borrowed Time) 이지.”

그녀가 대답했다.

노래 제목처럼 파브로는 시간을 빌려 살아가고 있는 듯하다. (아이언 맨 2는 두 달 후인 5월 7일 개봉(미국 기준)이지만 아직 수백 명의 스태프가 개봉 준비로 정신없이 일하고 있다. (아이언 맨2)의 조연 돈 치들은 개봉 직전에 갖 완성된 락큰피칸 필름이 극장에 도착할 거라고 말했다. 골 데드라인이 딱칠 텐데, 사소한 부분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영화 사운드트랙엔 이미 10여 개의 AC/DC 노래가 있었기 때문에 파브로는 편집자에게 더 큰 강한 하드록 음향을 넣어보라고 말했다.

“이건 뭐지?”

“가 부분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이 음악 괜찮아?”

“그럼.”

그는 만족한 듯 보였지만 만약을 대비해 그가 좋아하는 레이먼즈나 이기 팝의 곡을 넣어보라고 말했다.

토니 스타크에게 번쩍번쩍한 분사 건물이 있지만 파브로와 그의 팀은 간사이무실을 사용해야 한다. 사무실의 조명은 호텔 회의실 조명과 비슷하다. 비록 조명은 모니터, 캠백거리는 컴퓨터 본체, 섬광 등에 가려졌지만 말이다. 특수 효과와 음향 기술 전문가 군단은 전방위의 군인처럼 바빠 또는 허둥지둥 돌아다니다가나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진지한 표정으로 사물방울 키보드를 두드렸다. 파브로는 스트라이프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는 마치 베테랑 선장처럼 담담한 자신감을 내보이며 돌아다녔다.

“파브로의 침착한 결모습 뒤엔 그가 (스웬즈) 시나리오를 썼을 때의 열정과 영혼이 살아 있다.”

로버트 다우니가 말했다.

“그가 영화감독으로 전향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1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그가 감독으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장란 필업적이다.”

(아이언 맨)은 토니 스타크에 관한 이야기다. 억만장자, 천재 과학자이자 플레이보이. 난봉꾼 국제 무기 딜러인 스타크가 세계적 슈퍼 히어로로 변신하는 과정을 담았다. 물론 난봉꾼, 플레이보이 기질은 버리지 못했지만 말이다. 1편은 그가 기회회전에서 뻔뻔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정체를 세상에 알리는 것으로 끝이 났다. 전편에 이어 (아이언 맨 2)에서도 철강을 두 번 토니 스타크

역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출연한다. 귀네스 팰트로 역시 그의 충성스러운 비서 버지니아 페퍼 포트로 돌아드 역으로 출연한다. 그는 스타크의 절친이자 그의 개인 파일럿이다. 새로 캐스팅된 배우는 모두 재능 있고 개성이 넘친다. 마키 루크는 러시아인 악당 위를레시로 출연하고, 샘 록웰은 토니 스타크의 경쟁사 사장 역을 맡았다. 스칼렛 요한슨은 나타샤라는 토니 스타크의 새 비서 역을 맡았다. 그녀는 스타크 회사 내에서 비밀스럽고 불법적인 일들을 처리한다. 스타크의 회사가 아크 리액터(arc reactor)라는 비밀 기술을 지켜내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2편의 줄거리다. 그러나 (아이언 맨2)의 핵심 관련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그의 경제성이 알려지고 난 후 스타크는 국제적인 명성과 무한한 권력에 유혹을 느낀다.

“그의 모습은 미국이 무기를 가지고 난 후의 모습과 같다.”

파브로는 말했다.

2006년 파브로가 (아이언 맨)을 찍기 시작했을 때에는 대본이 없었다. 그때까지도 마블은 실적이 없는 독립 스튜디오였다. 이제 그는 10억 달러의 영화 사업을 책임지고 있으며 이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가 매일 경험하는 것이 그를 성장하게 한다.”

(아이언 맨). (아이언 맨2)의 촬영 기사 매튜 리버라티가 말한다.

“그게 그의 최대 강점이지. 용어부터 기술적 문제까지 그는 아주 세심하게 고민한다.”

파브르가 편집실에 있어 있는 동안 음향 편집 담당 중 한 명이 출입구 쪽에 와서 미키 루크의 멋진 전기 체찍들에 대해 물었다. 그들은 "영화의 상징이 될 만한 소리"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타워즈의 광선검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파브르는 소리에 천동소리를 아예 깔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약간 과장된 느낌을 줌에 "깔끔하고 날렵한 스타일"로 바꾸어 한다고 덧붙인다.

왜 안 되었어? 스타워즈의 굿수퍼맨 이는 곧 스카이워커(Skywalker)에서 음향을 믹싱하거나 라이트 엔 매직사(Light&Magic)에서 음향 효과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다. 한 번은 그가 쿠로사와 시몬드 스테이에게 물어 때즈 루카스가 사람들이랑 함께 들어왔다. 그와 파브르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다.

"드디어 나는 조지 루카스와 스타워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됐다" 파브르가 말한다.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며 나누던 대화를 말이다."

파브르는 퀸즈(Queens) 출신으로 외양미이다. 부모는 공수 학교 선생이다.

공상과학 소설과 영화관인 그는 유명한 브롱스 공립 과학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거기서 드라마 클럽에 가입해 (7이츠 엔 멜즈)에 출연했다. 그리고 그는 극장 안 내원 일을 하며 (메디이의 귀환)과 같은 영화를 반복해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영화 (사나이 천국)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다. "얽집 아저씨처럼 로렌판트 사람을 가르쳐주는 영사 기사는 없었다. 뒷모습도 물어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먹는 것이 내 일이었다." 파브르는 말한다.

파브르는 잠시 퀸즈 대학에 다니다 1987년 학교를 그만 둔다. 그리고 윌기의 탐욕이 절정에 달할 당시 미국 5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배스턴스틴스 친구 아버지의 조수로 일하게 된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말한다.

"50주 근무에 2일 휴가나. 좋은 기회였지만 내겐 너무 힘든 일이었다."

파브르는 결국 사표를 냈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 사장은 병과했다. 그는 적시에 사표를 낸 셈이다.

그 후 그는 목적 의식도 없이 뉴욕 주 소방관 시험에 응시하지만 합격하지 못했다. 마침내 그는 미국 전역을 누빌 생각으로 오토바이를 샀다. 여행 중 사카고 세인트 시티 극장의 쇼를 보게 된다. 그곳엔 마이코 미어스나 스티븐 필라 같은 유명한 영화배우가 있다. 그들의 크리를 보고 감동을 받은 파브르는 드디어 자신의 길을 찾았다고 생각한다.

4년 동안 파브르는 사카고에서 떠돌이 코미디 배우로 살았



(아이언 맨 2)의 촬영장에서 파브르 감독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돈 치들의 어깨를 짊어 "제발 날 좀 봐 달라" 며 조르고 있다. 치들은 전편에서 테렌스 허워드가 맡은 스타크의 친구 역할을 맡았다.

다. 그때의 시카고는 도시 어디를 가거나 코미디 쇼를 흔하게 볼 수 있는 곳이었다. 그는 매표원이나 바텐더로 일하고, 친구들과 극단도 만들어 고군분투했지만 세컨드 시티 극장에 오르러가는 꿈을 이룰 수 없었다. 실망도 잠시. 지금도 그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였다고 믿고 있는 일이 벌어진다. 사카고에서 열린 공개 캐스팅 현장에서 배역을 따낸 것이다. (루다)라는 저예산 폭주 영화로 파브르는 주인공의 땅딸막하고 명정한 지도교사 역할을 맡았다. 세트장에서 그는 시카고 출신의 단역 배우 본인 스스로 감독도 친해진다. 영화 촬영이 끝나고 둘은 함께 LA로 떠난다.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LA에 살아가길도 잘 알았다. 나는 보통 밖에 잘 나가지 않는다. 그런데 그게 내 거친 세계를 이끌었다." 파브르는 말한다. "그해는 에이전트도 생겼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영화에서 스타가 되면 거절로 끝날 줄 알았다."

그는 말한다.

"그때 그게 아니었다. 나에겐 일정 수입이 생겼고 먹고 살기 위해 다른 일을 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다 할 업적을 이룬 것도 없었다. 이리저리 저러지다 못하는 애증간한 상태였다."

파브르는 영화 (스탈리츠)의 대본을 완성함으로써 이런 애증간한 상태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 영화는 무척빡빡한 시카고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로 할리우드의 20대 초반 연기 배우들이 모여 20만 달러의 예산을 가지고 완성했다. 이로써 본은 주연급 배우로 성장해 (유리) 공연 2-일어 버린 세계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떠났다. 하지만 파브

르는 시트콤 (프렌즈)에서 6주간 모니카의 종합 격투기에 미쳐있는 백인장자 남자친구로 출연했을 뿐이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소프트노스)와 (디너 포 피아노)에 출연했다. 그리고 TV 전기 시리즈에서 주인공 복서 록키를 연기했다. 2001년에 파브르는 자신이 쓴 사나이로 영화 (메이트)의 감독을 맡았다. 그것이 첫 감독 데뷔작이다. 그는 배기로 두 꼬빼나 바보로 표현하는 재능이 있었다. 이점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높이 평가했다. 작가와 감독, 배우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면서 그는 3배자를 고루 갖춘 할리우드 유명주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메이트)가 개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미디인 윌 페렐은 파브르에게 코미디 영화 (엘프)의 대본을 보냈다. 당시 페렐은 코미디쇼 (사태데이 나이트 라이브)의 스타로 유명했던 영화쪽 경력은 거의 없었던 터였다. 파브르는 감독 자격으로 작업에 착수한다. "그건 작은 프로젝트였다." 그는 말한다. "사실 이 영화가 성공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전혀" 영화의 반 정도를 완성할 즈음 (올드 스쿨)이 개봉했다. 윌 페렐은 벼락 스타가 됐고 파브르는 메이저 스튜디오의 코미디를 책임지게 된다. 이로써 그는 영화계 주요 인사들의 주목을 받는다. 수년 동안 파브르는 의외의 선택을 해왔다. (이블 데드)의 샘 레미에이엔 (스파이더 맨), (슈우저 서스펙트)의 브라이언 싱어에겐 (웬스맨) 시리즈를 맡았다. 그러나 파라 마운트시어런의 첫 번째 공동 작업으로 파브르가 대작을 담당하면서 너무 위험 부담이 컸다. 그해엔 스타 파비르가 없었기 때문이다. "차들 어떻게 폭파시키는지 잘 아는



배우 파브르의 경력은 1996년 빈스 본과 함께 찍은 (스윙어)에서부터 빛을 발한다. 이후 1999년 그는 드라마에서 록키를 연기하고, 빈스와 함께 쓴 각본으로 (섹스 앤드 시티)의 실컷 크리스틴 테이비스와 함께 셋이 (거울 테라피)라는 영화에 출연한다. 이어 2003년 윌 페렐과 함께 만든 (엘프)가 그가 감독한 영화 중 첫 대박을 터뜨리게 된다.

조용히 해!
쉬고 계시잖아!

전문가에게 배우는 아부 제대로 하는 법

아부, 어디까지 해봤니? BY 김민배

뇌뒤라, 애.

◀ 피카미 침팬지의 아부법

- 피카미 침팬지의 아부법
 1. 고개를 숙이며 인사한다.
 2. 발이 키스한다.
 3. 악대기를 선물로 바꾼다.
 4. 화 화 달콤하게 숨을 내뿜는다.
 우두머리가 주는 상 이맛값이 자
 신의 교환을 타차할 수 있도록 허
 락해준다. 이는 '나는 너를 인정
 한다' 라는 의미, 침팬지로 태어
 나지 않은 걸 감사하게 생각하며,

아부 하면 웃봄 털 속아주는 유인원만 떠올리는 당신! 아부 무시하지마라.
 인류 역사에는 싸바싸바 하나로 부와 명예를 누리 사람들이 매우 많다.
 웃는 얼굴에 침 뱉는 사람도 딸랑딸랑에 침 뱉는 사람도 없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아부의 기술 한 번 배워보자.

Step 1

배설물까지도
 사랑하라.



"도대체 월드보이에 이런
 훌륭한 동물 볼 수 있는 게죠?"

그분의 모든 것은 아름답다. 통까지 사랑하라!
 16세기 영국 튜더 왕조 시대엔 왕의 영명임을 닮아주고, 왕
 이 딸군 대변을 겸사하는 '변기 담당관'이란 직업이 있었
 다. 헨리 8세의 변기 담당관은 대변 처리 기구를 가지고 다
 니며 그분이 대변을 유쾌하게 볼 수 있도록 돕고, '미모도
 무늬의 고급 직물을 사용해 왕의 X고에 남은 찌꺼기를 섬
 세하게 닦았다. 그분 불임이 끝나면 변기 담당관은 이 귀
 중한 통을 바로 버리지 않고 옥체에 이상은 없는지, 감히
 의심 따위가 왕의 소화관을 막하게 했는지 분석했다. 왕의
 방 열쇠를 가질 수 있었고 그분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직업은 고위 귀족들이 가지는 특권 중 하나였
 고, 급료도 아주 높았다. 왕의 신뢰를 받고 그의 오른쪽팔로
 올라갈 수 있는 첩조의 기회였기 때문에 많은 이가 이 직
 업을 원했다. 추추전국시대 월나라 왕 구천 역시, 병 때문
 에 몸져누운 오나라 왕 부처의 통을 훔아 병을 진단한 일
 로 부처의 신뢰를 단번에 받았다. '외신상담' 고사성어
 를 탄생시킨 대변의 위력을 항상 상기하라.

용용 - 그분이 화장실로 갈 때 훔아라. 열차리에 앉아 그분의 항기
 를 음미하며 구성 성분을 정제해라. 화장실을 나오며 그에게 친근
 하게 "OO 트션나 봐요?" 하며 말을 붙인다. 다 인다는 듯 서익 못
 는 것이 포인트.

Step 2

외모를 높이
 평가하라.



"마음이사세요"

거짓말을 잘해야 한다. 그것도 예술적으로!
 1797년 신고전주의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는 나폴레옹의
 초상화를 그려서라고 지원해 그분 마음에 쏙 드는 그림을
 많이 그렸다. 이로써 그는 '프랑스 회화의 나폴레옹' 이라
 불릴 정도로 큰 부와 권력을 누렸다. 다비드는 나폴레옹
 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림을 조작하는 일도 사슴지 않았다.
 유명한 그림 '알프스 산맥을 넘는 나폴레옹' 은 제자 제
 리르와 자신의 아들을 시켜 포즈를 잡게 한 후, 사나운 말
 위의 침착한 나폴레옹을 상상하며 그렸 것이다. 실제로 나
 폴레옹은 부하들이 이미 알프스를 넘고 난 며칠 뒤, 구부정
 한 자세로 노새를 타고 알프스를 넘었다. 몰 들라로슈의 그
 림과 비교해보면, 다비드의 '구리와 상상력' 이 얼마나 예술
 적인작 알 수 있다. 다비드의 제자 역시 스승처럼 아름답게
 구라 치는 법을 알았다. 장 그로의 '아르플레 다리 위의
 보나파르트' 에 등장하는 나폴레옹은 강동충의 초상이 아
 날까 의심할 정도로 여러아리한 꽃미남이다. 장 그로도 이
 그림으로 나폴레옹의 심금을 얻었다.

용용 - 그분의 사진을 입수에 초절정 꽃미남으로 복사한다. 장동충 사
 진을 그분과 비슷하게 만들어도 된다. 관성자를 그분게 바치려. "이제
 아주 비슷해라게 휴?" 라고 말한다.



오두 나폴레옹이데!

1. 다비드 - 영도스 산맥을 넘
 는 나폴레옹
2. 몰 들라로슈 - 알프스 산맥
 을 건나는 보나파르트
3. 장그로 - 아르플레 다리 위
 의 보나파르트
4. 장 툴라르 - 1804년 3월
 3일, 뉘브랑쵸의 나폴레옹



1946년 발은 시인 Emily Images / 쉐넬

Ste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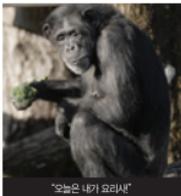
진귀한 음식을 바쳐라.

식욕 앞에 무너지지 않을 사람 없다. 그분의 미각을 사로잡아라.

춘추시대 영군 환공의 사중 역사는 강물 맛까지 구별해낼 정도로 훌륭한 미각을 가졌다. 그는 이를 이용해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환공의 칩 장위룡의 마음을 사로잡은 후, 이를 발판으로 환공에게 접근했다. 어느 날 환공이 '사랑 고기 맛이 어떤지 궁금하다'고 농담했다니 역사는 재빠르게 자기 자식을 삶아 요리해 바쳤다. 요리를 먹은 환공은 연한 고기 맛에 한 번, 자신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역사의 충성스러운 마음에 두 번 딱실신했다. 이 일로 신분이 낮았던 역사는 중신으로 승진했다. 우리나라에도 요리 솜씨 하나로 고위 관직에 오른 이가 있었다. 조선왕조실록 광해군 일기 편에는 한효순과 이충이라는 인물에 대한 구절이 있다. 한효순은 맛있는 밀전병으로 광해군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그의 비결은 바로 더덕. 그는 밀전병에 섬세하게 손질해 놓은 더덕을 첨가해 밀전병의 풍미를 살렸다. 이 일로 그는 '더덕 정승'이라는 명예로운 별명도 얻었다. 이충은 **3.잡채를 개발한 공로**로 호조 판서가 되었다. 지금으로 비유하면 두바이 칠성급 호텔 셰프 출신 에드워드 켄이 장관직에 오른 정도다.

3
당시 이충이 개발한 잡채에는 당면이 없었다. 당면은 1960년 현재 하라는 사람이 황해도 사리원에 세운 관공 공장에서 만들었고, 이 공장에서 당면을 기존 잡채에 넣는 요리법을 보급하면서 당면 잡채가 탄생했다.

4
책에 등장하는 완벽한 궁정 신하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인물이 준수해야 하고, 태스, 수염, 귀뚜기, 할쏘기 사냥, 승마 등 모든 운동을 한 줄 알아야 하며 말솜씨, 분발력, 예술향, 재능, 유머, 글 솜씨, 사람 경한 등이 있어야 한다. 이런 위주 구도가 되는 게 훨씬 상대 그는 또 책에서 궁정 신하기 하면 풀을 놓을라 유머에 대해 설명을 해놓기도 했는데 정독한 걸라, 하나도 안 웃겼다.



"오늘은 내거 요리사"

용용 당신은 900에서 평소 그 분이 즐겨먹는 음식 재료를 알아냈을 것이다. 그 재료를 조합해 요리할 한 후, 그분께 갖다 바쳐라. 요리에 자신감이 붙으면 당신의 8천 만 자식(1000). 이것보다 적으면 불임 가능성이 있다. 당념으로 첨가물 요리에 도전하라.

Step 4

아부를 혐오하는 척 하라.

아부를 아무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머리를 써라. 1478년 이탈리아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발테리노 카스탈리리ونه는 우리보다 궁정에서 2명의 통치자를 보냈다. 그는 궁정에서 신하, 외교관, 시인, 학자 등으로 근무하면서 궁정 신하가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 **장장 4권의 책을 썼다**. 자신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우수한 궁정 신하의 모범 사례는 자신에 대한 것만 열거하는 교묘함을 잊지 않았다. 책에서 그는 군주를 기쁘게 하는 일이 궁정 신하의 최고 목표라 말하면서 이를 위해 아부를 권장하지만 직접적인 아부는 지양하라고 말한다. 아부를 할 땐 '스프레차투라'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스프레차투라'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여유롭게 해내는, 실제로는 많은 노력을 퍼부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일을 해내는 기술이다. 우아한 아무, 즉 아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 아무하라는 말이다. 실제로도 그는 아랫것들이 군주의 마음에 들기 위해 모여 말하는 곳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기분이 좋지 않거나 우울한 상태일 때는 군주를 오시지 않았다. 물론 이는 모두 군주를 위한 배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랫사람은 모든 면에서(심지어 군주보다) 뛰어나야 하지만 군주 앞에서 이를 드러내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부? 그게 뭐예요? 먹는 건가요?"

용용 그분에게 한술 쉼인 목소리로 이야기하라. "전 반발을 잘 모르서 사회생활에 방해가 될까봐 고민이에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그분에게 존경한다고 고백하라. 이를 반복하라. 가끔 손쓰고도 하라. 마지막으로 사람들 모두 아부의 위험성에 대해 열띤 강의를 펼쳐라. 이제 당신이 하는 말은 모두 진실로 들릴 테니 마음껏 아무하라.

Step 5

그분을 떠올리며 문장을 지어라

그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글을 지어라. 승강 정철의 '노병유고주'를 제외한 모든 임금 찬양 시와 가사는 그가 **조종에서 이탈**되었거나 그분 곁에 머물지 못했을 때 쓴 것이다. 그의 시 중 연구자정 자체를 주제로 한 시는 16수 정도지만, 거의 모든 시에 그분에 대한 우월한 경사와 사랑의 문장이 별첨으로 끼워져 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신인의 자세 역시 매년 등장하는 내용이다. '관동별곡'에서 그는 망고대를 바라보며 흥인의 절기를 떠올리고 사자봉에서 선정의 포부를 다진다. 그는 자연에 감탄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떨게든 자연과 임금을 향한 사랑을 연신시켜 노래를 이어간다. 자연에서 풍류를 즐기는 일은 일단 그분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끝으로 나눠준 후로 미루겠다는 생각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분이 자신을 외면할 때, 승강의 짐작은 더욱 심해졌다. 정철은 유배 시절 지은 '속미인곡'에서 임금이 반심해 서로 이별했지만 오히려 잘못된 이는 나라며 자책한다. '사미인곡'에서도 역시 그분과 떨어지후 3년 동안 머리도 빗지 않고 화장도 하지 않은 여성 화자를 내세워 자신의 상태를 대변한다. 두 곡에서 그는 그분을 향한 기다림과 고독 끝에 차라리 죽음을 꿈꾸게 되고, 비, 호랑이, 비 등의 모습으로 환상해 그분과 만나기를 고대한다. 그분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무서운 정도를 짐작하는 것이 꼭 스토커로 신고당할 정도다. 예상과 달리 그분은 이런 절절한 문장에 감동받아 정철을 관직으로 불러내기도 했다.

서양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로마 공화정 시대에 시인들은 자신을 후원하는 대작을 위해 대작의 행사에 쓰일 시를 짓는 것은 물론 대작의 영리된 문장도 훌륭하게 이행을 끼고 시사 자리에서 노래를 지어 부르기도 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그들은 고작 노예, 망토, 미차, 돼지 등을 얻을 수 있었다.



“시각이 떠올라요.”

음용 그분과 떨어져 있을 때마다 김치찌개를 날려다. “은 아흔에 김치찌개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이 모든 게 00님 덕분이예요.” 그분의 반응이 냉랭하면 아담이는 보내려 00님 눈앞에 차가워 보이게 해보았어요. 차라리 제가 죽어 다음 해에 00님의 탄복도 태가난이 없거나 나니 출몰가 생겼어요. 부당한 일들이 사내에 삼각 개가 허그 모두 알을 수 있겠어.”

저는요, 다 이해해요.

Step 6 질투는 금물

아랑울 가지고 그분의 모든 것을 이해하라.

그분의 마음이 식었을 때마다 문장을 지어 그분을 귀찮게 했던 정철의 태도는 다소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18세기 러시아의 여제 예카테리나 2세의 애인이자 오르페이였으며 **포템킨**은 외와는 좀 떨어져 있었지만 뛰어난 지력으로 그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예제보다 열 살 연하인 그는 나이답지 않은 포용력을 보였다. 그분의 마음이 식자 지위에 불만을 느낀 포템킨은 4차로 구성된 여제 예인 선발 시스템을 만들었다. 다행히 그는 12년간 그분과 동거했기 때문에 그분 취향을 잘 알고 있었다. 선발 시스템을 1차 종합 건강 검진, 2차 지적 능력 테스트, 3차 침실 테스트, 4차 여제의 최종 면접으로 구성되었다. 물론 그는 애인을 선발할 때 아량이 큰 남자를 교묘하게 걸러내는 센스를 잊지 않았고 여제의 애인이 자주 바뀌도록 손을 쓰기도 했다. 이런 노력 덕에 그는 그분과 오랜 기간 함께할 수 있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크림리아 등 남부 러시아 전역을 다스리는 총독의 자리에 올랐고, 러시아의 가장 권력 있는 남자였다. 보나스루 그분이 다른 남자와 놀아나는 사이에 그는 자신의 젊은 조카 세 명과 뜨거운 밤을 보낼 수 있었다.

음용 그분이 다른 이를 칭찬해도 결코 노여워 마라. 그는 단지 기쁨을 뿐이고 진짜 그분의 외모뿐만 아니라 깊은 교묘한 인성까지야. “00님이 날 참 좋아하는데, 알면서도 계속 00님 기쁘게 해줘라.” 혹은 “00님은 보신감을 좋아하는데 개 한 마리 씩 바꿔줘라? 좋아하면 개!” 등 부차적인 일만 시켜라.

5 승강이 관직에서 여러 번 물러났던 것은 당시 정세가 불안한 탓도 있었지만 승강의 고교과정한 성격 탓도 있었다. 최영은 그를 두고 ‘그분이 소인부’이라 유난적이었다. 반한은 00님이란 수명을 뽑자 승강은 이 사안을 소자로 시한 수를 갖지 강장을 토로했다. 이 말이 또 깊은 장난을 시도하자 승강은 침을 뱉고 바로에서 일어났다. 내 이놈 떼!

6 ‘포템킨 게임’이란 초라한 모습을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꾸며낸 눈사람을 의미한다. 1782년 포템킨은 여제를 배운 배가 나뉘는 시점을 지날 때, 이혼당한 동경을 또 다른 그림을 배와 같은 방함으로 옮기며 여제가 이 그림을 진짜 마를 몸통으로 착각하도록 만들었다. 똑똑한 놀임!

WHAT NEXT?

그들의 최후

1번기 담당관 헨리 노레이스: 그는 헨리 8세에게 미용인 당했다. 헨리 8세는 자신의 아내 앤 볼린과 이혼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 이 번기 담당관에게 강동죄를 선고 후 아내와 함께 처형했다.

2번기 루이 16세: 나폴레옹이 유럽투 전투에서 패하면서 다비드도 몰락의 길을 걸었다. 루이 16세 처형에 찬성표를 던졌던 다비드는 이 일로 단두대에 끌려갈까봐 두려워 브뤼셀로 이사 갔다. 이 사건 전 그는 불만에 떨면서도 남은 그림값을 모두 받아낸 때까지 프랑스를 떠나

지 않았다. 그는 브뤼셀에 가서도 편안하게 잘 잤다.

3번기: 그는 환공의 출신 관등을 모함해 환공의 모든 사물을 독차지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쫓겨났다. 쫓겨난 후에도 장위회에게 불어 환공의 레터링 안에 속주하던 중에 환공이 병을 얻어 자리에 누웠을 때 또 맛있는 오리를 가져다 바쳐 환공의 사랑을 다시 얻었다. 더 많은 권력에 욕심이 난 여제는 궁정 쿠데타를 일으켰고, 환공을 격려해 배고고고 추위로 죽게 했다. 그러나 쿠데타는 실패했고 역

아는 타국으로 도망갔다. 역시 음식으로 얻은 총애는 소화가 너무 빠르다.

4번대사: 승강이 00님: 이 사람은 아무의 신이라니까 모시던 군주를 따라 막한 번 파면당한 적은 있지만 4년 후 다시 복귀했고,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았다. 그의 책은 당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16세기에만 약 40개의 판본이 나왔다.

5 승강 정철: 정철은 생애 총 6번 관직에 나갔고 6번 물러났다. 반대 당파의 반핵으로 마지막 관직에서 쫓겨갈 때, 역시 언어의 미술수집게 그는 스스로 세상을

등지자고 돌아온 거라고 물러났다.

6 그레고리 포템킨: 애인 선발 시스템을 먼저 딱 치기 기술 대문인자 혹은 진짜 일을 잘 해서였는지 알 수 없지만 포템킨은 죽을 때까지 여제의 사랑을 받았다. 포템킨이 죽고 후 여제는 스물일곱 살 연하 플라토 슈포보와 죽을 때까지 사랑했다. 이게 바로 원인 전향.

MAXIM BUYER'S EDGE



2010 FIFA World Cup South Africa

남아공 월드컵에 관한 특징권을 가진 게임이지만 워낙 팬들 예전 스포츠 스타이다. PS3, PSP, XBOX, Wii용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데 결국 보면 EA SPORTS가 단번히 버렸긴 했으나 보

다. www.ea.com/csr/

판종	가격	출시일
PS3용	49,000	2010년 4월 27일
XBOX용	49,000	2010년 4월 27일
PSP용	38,000	2010년 4월 27일
Wii용	46,000	2010년 5월 7일

왕을 위한 위스키 글렌리벳(The Glenlivet) 18년산

아부과 로비의 계절 5월이 돌아오고 있다. 영국의 조지 4세가 가장 좋아했다는 이 위스키의 리벳에는 '왕을 위한 위스키(Whisky for a King)'라는 문구가 박혀 있다. 직장 상사 선물로는 예기 불안하다. 현대역사권 롯데백화점 대구 대우 프라자에서 2건 단위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2-3446-6049



발베니(The Balvenie) 사면 전운잔과 코스타 준다.

스코틀랜드의 톱 클래스 위스키인 발베니를 판매하는 한국의 바 어디에서도 발베니 병을 사면 전운잔 2건과 코스타원목 받침을 준다. 대 모두 스코틀랜드 현지에서 공수한 스톤들이나 피계 받침으로 사용되는지는 아리. 발베니는 보리 재래부터 병입까지 모든 과정이 전통적 수작업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세계 유일의 위스키다. 문의 02-52-1128

최고의 아이폰 케이스를 찾나?

이이분에 기스는 건 실고 그렇다고 구입 케이스 속에 아이폰이 감춰지는 것도 싫다? 케이스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INCASE에서 아이폰의 태깅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줄 케이스를 준비했다. www.gofcase.kr에서 다양한 아이폰 케이스를 골라 잡자.



삼성, NX10 1만 대 판매 돌파

NX10은 콤팩트 사이즈(12.8mm)의 고화질 렌즈, 렌즈 교환식 카메라로 출시 두 달 만에 단일 모델로 국내 누적 판매량 1만 대를 돌파했다. 또한 삼성 체험 마케팅을 강화해 국내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의 입지를 다져 나갈 예정이다.



파나소닉코리아, 아웃도어 디카 2종 출시

나들이 시즌을 맞아 파나소닉코리아는 10m 방수 및 2m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끄덕 않는 아웃도어 디카 '루믹스 IS2'와 'OF3(위성항법장치)를 탑재해 자동으로 촬영 장소와 지역 이름을 LCD에 보여주는 '루믹스 ZS'를 출시했다. 가격 50만 원대. 문의 02-533-8482

애플루트, NO LABEL, 칵테일

세계적 프리미엄 브랜드 애플루트가 리미티드 에디션 NO LABEL 칵테일을 선보인다. 칵테일에는 달콤한 과일만 사용한다. 라는 편견을 깨고 용고수를 사용한 일베리앤서도 시원한 라데일을 제공한다. 전국 이마트에서 한정 판매하니 지금 당장 달려가자. 가격 32,800원





HEAD 2010 S/Light plus+ 시리즈 출시

Lie Light 리는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을 제시한 HEAD가 Light plus+ 시리즈를 출시했다. 초경량 스트라임 원단+OX Sky Runner 세트와 70g의 초경량 하이드로 재킷+OX Hydro Jacket은 고객들의 실을 Light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TIMEX의 아웃도어 WS4 시리즈

미국의 대표 시계 브랜드 'TIMEX'에서 전문 등반가용으로 고도계, 기압계, 온도계, 나침반 센서가 장착된 방위계 등의 기능을 모두 갖춘 Outdoor WS4 Series를 출시한다. 색상은 옐로우, 블랙. 가격 386,000원 문의 02-3384-000

Technomarine의 클래식 라인 신제품

스포츠 & 패션 워치 Technomarine에서 Cube Chrono Magnum 컬렉션을 선보인다. 다양한 컬러로 교체할 수 있는 스트랩과 케이스 커버를 조합해 독특한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하다. 가격 580,000원 문의 02-3384-1332
www.horologium.co.kr



SONY, 월드컵 스페셜 에디션 MP3 발매

레즈가 되새기지만 따뜻한 웃음이 담고 있는 음악이 되는 건 아니다. 야기에 당신의 에지를 다해야 한다. SONY 2010 남아공월드컵용 MP3 플레이어 NWZ-BX43F 월드컵 에디션은 당신을 레알 악마로 보이게 해줄 것이다. 가격 79,000원/4GB
문의 080-777-2000 www.sony.co.kr



필립스, 샵롱드라이 프로 시리즈 판매

야생마다 달 마흔 위아 대가 연식을 무스카렐 차바르고 출근하는 MAMER들이, 최스시가 있다. 샵롱드라이 프로 시리즈제명명 HF8200, HF8202가 오직 모바일 열을 고르게 분배, 건조시켜 당신의 머리를 수달시순 생의 작품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가격 4천~6만 원 문의 02-709-2000



LG전자, X-NOTE 마이클 코어스 에디션 출시

남·보·원은 주장한다. 이제 여성들도 남성에게 영웅 백 존 선물하라. 단, 안에 LG 노트북을 담아 시 LG전자가 영웅 패션 브랜드 마이클 코어스와 손잡고 엑스노트 마이클 코어스 에디션을 출시했다. 출시 기념으로 4월 2일부터 30일까지 X000을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자카드 에디션 백을 증정한다. 여진이 탐하지 않게 조심하라. 한정판이다. 문의 1544-7777 www.lg.co.kr

SIEG의 봄맞이 NATURAL SPRING LOOK 제안

정장은 땀땀해 마티다를 주장하는 시라는 끝났다. 진정한 도시 남자의 슈트는 고풍 땅을 길망한다. SIEG의 이번 슈트는 자연스러운 구김으로 내추럴한 매력을 발산한다. 1352명이 모이는 주주총회의 발표자가 아니라면 율봉에는 요런 슈트를 걸치는 것도 좋다. 문의 02-3274-5305





컨버스, 프레피 피케 티셔츠 출시

미국 정통 스트리트 스포츠 캐주얼 브랜드인 컨버스가 프레피 피케 셔츠를 출시했다. 클래식하고 스포티한 스타일이 공존하는 다양한 디자인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프레피 피케 티셔츠에 신선한 구상보다는 컨버스를 신고 더욱 완성도 높은 스타일을 연출해 트렌디한 감각을 뽐내보자. 문의 080-854-1004



wii전용 소프트웨어 마리오 파워 사커 출시

한이도 귀여워라. 마리오와 그의 친구들은 친숙하고 귀엽지만, 그들이 벌이는 축구 한판은 거칠다. 못해 이종 격투기를 연상시키기도. 캄캄한 캐캐러리와 그들이 벌이는 기괴한 축구 혈전의 간극은 쓸쓸한 재미를 선사한다. 전국의 유자들과 최대 4명까지 협동 플레이가 가능한 마리오 파워 사커의 가격 4만4천 원. www.nintendo.co.kr

혼다코리아, VFR1200F 출시

신개념 스포츠 투어러 'VFR1200F' 국내 최초 공개 스포츠와 투어링 바이크의 심미적인 요소뿐 아니라 최첨단 기술까지 집약된 VFR1200F에 오르는 순간 2천만 원이 넘는 가격을 이해할 수 있다. 심장박동을 따올리는 V4엔진, 운전자와 바이크의 일체감을 극대화하는 바이 와이어 시스템과 슬리퍼 클러치는 운전자가 바이크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게 한다. 가격 2,200만원 문의 02-346-330



버드와이저, 한정판 월드컵 캔맥주 생산

당신의 FEED는 어디에? 붉은 와이드 셔츠를 입어 버드와이저를 즐겨야 한다고 권할 필요 없다. 월드컵 기간, 버드와이저 캔맥주 하나면 충분하다. 버드와이저는 붉은색 표고를 바탕으로 월드컵 트로피 이미지가 캔 중앙에 박힌 월드컵 캔을 출시한다. 5월 부터 대형 할인점과 편의점 등에서 한정 판매된다. 문의 02-3445-6049



유니레버 바세린

130년간 자국의 피부를 지켜온 유니레버 바세린이 이번엔 태양을 피하는 법을 터득했다. 유니레버가 출시한 '바세린 선'은 자외선 차단은 물론 요구르트, 알로에 성분을 함유해 피부 진정 및 쿨링 효과가 있어 청량감과 상쾌함을 더해준다. www.unilever.co.kr

REEBOK, 남성 라인 이지톤(EASYTONE) 출시

4월 20일부터 전국 리복 매장서 남성용 토닝 슈츠인 이지톤 칼리브라토를 만날 수 있다. 칼리브라토는 DMX 폼과 밸런스 패드(BALANCE FOAM) 부착해 짐볼(Jymbal) 위에서 몸의 균형을 잡는 효과를 준다. 앞판 피트니스화보다 3배 높은 쿠션성과 칼로리 소모 효과를 체험할 수 있다. 가격 4만9천 원. 문의 02-3446-4036



몽벨, 세계 최경량 방풍 재킷 출시

일본 브랜드 몽벨은 아웃도어 의류도 정제미와 세련미를 절묘하게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7월 11일 원사로 요구르트보다 가벼운 55g을 실현해 종이갑에도 휴대 가능하다. 모던하고 스포티한 디자인은 심플하지만 두툼하지 않고 날렵하다. www.monbel.co.kr



MAXIM BUYER'S EDGE



MINI, 강남 서비스 센터 오픈

BMW 코르시아는 국내 최초로 M에 전용 강남 서비스 센터를 오픈했다. 강남 센터는 연면적 182㎡, 657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20대를 동시에 정비할 수 있는 작업대를 갖추어 시간이 곧 돈인 고객들을 지원하고 있다. 문의 02-566-7301



즉석카메라 인스타크스 헬로키티 체험단 모집

한국 후지 필름은 인스타크스 헬로키티 미니 7S의 체험단을 모집한다. 신청된 10명은 카메라 사용후기와 영상을 작성하면 된다. MAXIM에서 여성에게 접근하지, 아름다운 모습을 카메라에 담겠다고 말하지, 시선과 연막자를 적어 건네고, 이런 척 처음이라는 상투적인 말을 잊지 마라. 작업이 되겠나? 혹시 아니. 헬로키티가 소원을 들어줄지. www.fujifilm.kr

TUMI, 남성 가방 Laredo 컬렉션 출시

반복거리는 가방만 좋다면 이 소식은 건너뛰어도 좋다. 정장 명품의 느낌을 아는 이들에게만 알릴 귀한 여행 가방이다. TUMI의 Laredo 컬렉션은 세베르, 30일 이상의 기공 기간을 거친 가죽을 무늬로 마감함으로써 손에 닿아 자연스럽게 갈라져온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안았을 때 촉감이 부드러워 쓸수록 내 손길을 기억한다. 여행 기록해주시길요. 가격 60만원~90만원 문의 02-546-8864



ASUS, 세계최초 엔비디아 옵티머스 탑재 UL30JT 출시

최첨단 3D 시뮬레이션 기술을 할 때와 지원할 때를 할 때 같은 그래픽을 지원하는 컴퓨터는 없는 것이다. ASUS의 'UL30JT'와 'UL50F'는 엔비디아의 옵티머스 기술을 탑재, 작업환경에 따라 그래픽을 자동으로 선택해 효율적인 전원관리와 최적화 된 3D 환경을 제공한다. 영상이 뚝뚝하지 못하다면, 이런 친구 하나쯤 갖는 것도 좋겠다. 문의 556-6668 kzaeus.com



르페, 봄 여성 언더웨어 제품 라인업.

그녀의 속사정을 눈앞이 알고 싶은 스승, 오며 날던들이여, 일단 그에게 당신의 스파이를 심어주자. 이내엔이 브랜드 르페가 봄을 맞아 따뜻하고 화려한 컬러의 신상품을 선보인다. 심플, 트렌디, 색시, 로맨틱, 스포티 등 신색의 룩이 매우 넓다. 봄에 맞춘 신상품에 신선한 충격을 선사할 것이다. 단, 선물할 때 너무 해맑게 웃지는 말자. 속보일 수 있다. 여성 상하 14종 세트가 99,000원. http://l'equipe.co.kr 문의 1544-601

매일유업 프리미엄 정통 슬라이스 치즈 4종 리뉴얼 출시



치즈는 카메라를 부르는 구호만이 아니다. 민주필로 돌돌민 아랫배가 걱정이라면, 간단하지만 영양 만점의 치즈로 대체해보자. 매일유업의 상하치즈는 '고다 슬라이스 치즈' 신제품 출시와 동시에 '까만베르 슬라이스 치즈', '제다 슬라이스 치즈', '모짜렐라 슬라이스 치즈'를 리뉴얼해 선보인다. 간단한 요리로 여친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도 그만이다. 부탁이다. 한 장씩 먹어야. 가격 3,000원~3,800원 문의 02-357-3500



굽시니스트

굽시니스트는 디자이너사이드의 일리타리 덕후에서 웹툰 및 시사 카툰 작가로 업급에 성공했다. 그에게 '삶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이라는 주제로 질문을 던져봤다. BY 김성민

당신은 유서를 남기시겠습니까?

평소처럼 디씨나 기타 동등의 사이트에 쓸래하는 댓글을 올리며, 행동을 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 왔다는 걸 느끼는 순간 벌떡 눈을 고승들이 불경을 외우며 열반하듯, 개미판에 마지막 행글을 올립니다. "오, 나님 인생행태이key."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다면?

컴퓨터의 '로컬 디스크(D:)를 어떻게 할것어?'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로컬 디스크(D:) 그곳에는 남자들의 온갖 부끄러운 망상과 그릇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사후에 그 데이터가 공개된다면 충무공이순신 장군이라도 위인전 출판이 취소되었을 겁니다. 충무공이 지금 시대에 태어났었다면 마지막 순간에 '내 죽음을 리지 말라'가 아니라 '내 로컬 디스크(D:)를 삭제하라'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조만간 전 세 심장 박동을 감지하는 센서

를 이용한 자폭차체를 컴퓨터에 설치할 생각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컴퓨터 자폭장치가 가동하는 겁니다. 제 명성을 올집내기 위해 안달이 난 적에게 아무런 단서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잘 부러지는 사프섬 사프섬 잘 부러지지 않았다면 제가 초집중 모드로 만화를 찍어냈을 테고, 문화관광부 장관상도 댔을 겁니다. 팬을 신나게 휘갈기는 중에 사프섬이 '틱' 소리와 함께 부러지면서 원고로 쫓겨가리던 정발 지옥에 처박히는 기분입니다. 부러진 조만간 사프섬이 책상 어딘가에 축연가루를 날리며 뒹굴고 있다고 생각하면 험담이 급상승하면서 뒷목이 빠근해집니다. 기분이 엉망이 된 저는 침뚫힌 기분을 이기지 못해 침대로 뛰어가 이불을 뒤집어쓴 채 울다 치러 집이 듭니다.

꼭 한 번 보고 싶은 연예인이 있나요?

아니, 꼭 한 번 보고 싶은 연예인이아

내 저 여자와 꼭 한 번 자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볼건데라는 일이 흔하지 않겠습니까? 사춘기 청소년이 아닌 이상 아무리 망상의 나래를 펼쳐도 쉽게 볼건데 곤란하지는 않죠. 위 우아님, 질문의 요지는 자신의 색수열 판타지에 가장 부합하는 연예인을 꼽으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음... 으음... 으음... 음... 여자친구가 맥심을 가끔 씹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에 당당히 유소영이라고 대답할 순 없잖아요. 그러므로 전 이 질문에 '없다'라고 솔직하(?) 답변하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끌리지 않을 당신만의 매력 이 있다면?

사실 전 엉망이가 상당히 예쁜 편입니다. 게도 아닌데 남자 엉망이가 예쁜 게 무슨 소용이나 싶지만, 누구에게도 끌리지 않을 저만의 매력을 꼽는다면 역시 이 엉망이를 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목욕탕에 갔다가 우연히 거울에서 제 뒤대를 확인한 순간 저는 일종의 나르시즘적인 감성으로 제 엉망이

를 대했습니다. 자신의 엉망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려면 상당히 기묘한(?) 자세로 전신 거울을 봐야 하기 때문에 자주 볼 수는 없습니다.

묘비명을 10자로 요약해서 새기시겠습니까?

복상사라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이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탁한다.

시간이 흘러 굽시니스트라는 작가에 대해 한낱 때 이 인터넷을 진지하게 인용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아떨립니다. 장래 저의 위인전을 집필할 작가에게 한미 다 남겨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인터넷은 평화롭지 못한 시대에 수면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의 진실은 법에서도 증언으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을 보고 굽시니스트가 멋진 남자가 아니었다고 단정짓는 우를 범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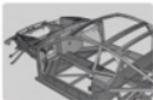


Drift Your Soul **SPIRRA**



미드십

스피라는 미드십 엔진 레이아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드십 엔진 엔진과 변속기가 차량의 중심에 위치하여 이상적인 차체의 무게배분을 가능하게 합니다. 높은 견고성으로 뛰어난 안정성과 뛰어난 인접도로 집중적인 스포츠 드라이빙을 추구하는 스피라에게 미드십 레이아웃의 채택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프레임

스피라는 일반 차량에 적용되는 50%의 구조가 알루미늄, 카본 섬유와 스페이스프레임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프레임은 높은 강도를 가진 단방향 3차원 구조 용접 및 보강을 공성이 뛰어나, 전통 스포츠카에 적용되는 제작 방법입니다.



카본 비드

스피라 경량화의 핵심은 바로 카본 비드입니다. 카본 비드는 탄소섬유를 가지는 용제로 매우 높은 강도를 가지고 사용되어 스티어링, 엔진, 드라이브 베어링, 내충격성, 내열성이 뛰어나서 무게가 가볍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수제 슈퍼카 탄생

장인의 손으로 빚어낸 자신감!

전세계에는 유수의 명스포르츠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생산대수 세계 5위
자동차 생산 역사 55년의
자동차 강국 대한민국을 대표할
정통 스포츠카는 아직 없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세계의 명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국기대표기 탄생하였습니다
이제 스피라를 도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Fashion

안성기
잡지도 커피도 역시 MAXIM.

SOCKS TIME

지금 눈여겨볼 소품 아이템은 단연 양말이다. 신는다고 다 같은 양말이 아니거든요.

SH SHE LOVES YOUR SHOES

성공한 운동화가 봄 차림을 유혹한다.

SUN PROTECTION

태양을 피하고 싶다고 그렇게 지내는 외채부터 각 개가 잘생긴 이유는 그가구만.

PERFUME AND STOCKING

정수와 스타킹의 관계. 알아 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예기.

SECRET IN TOY BOX

장난감 + 시크릿 = '어머, 어머, 어머, 어머' 하고 놀았잖?

I LIKE YOUR STYLE

관객이 워 오만한 멋진 건 아니다.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그들의 멋진 패션.

IN DA CLUB

클럽에서 재치로 놀기 위해선 멋진 게 재치 있는 게 기본이다. 그걸 온 몸으로 보여주는 젊은 양반들을 만나보자. 파워 파워!

ICON: MICHAEL DOUGLAS

마이클 더글라스. 그를 필스트리프에서 다시 만났다. 22년 전보다 영영들이 처참한 리비도는 여전했다.

IT'S ON MAXIMKOREA.NET

여기서 옷을 사야할지 막막한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이 MAXIM은 너무 친절해서 할아미.

Style



■ GOT SOCKS?

세 명의 형제 중 둘째는 손이 덜 가게 마련이다. 발꿈치까지 내려오는 바지와 신발 사이에 긴 양말처럼. 하지만 2010년 바지 길이는 짧아졌고 신발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지는 추세다. 무방비 상태로 드러난 어장짱한 길이의 무채색 양말은 당신의 다리 길이를 멋대로 질러버리고, 센스라곤 1g도 모르는 사람으로 결정짓게 만든다. 영국에서 활동한 젊은 패션 디자이너와 광고 기획자가 의기투합해 만든 CNYTTAN의 양말은 슈트 착용 시 더욱 빛을 발한다. 양말 하나로 감각적인 영국 신사가 되어 보시길.





STYLE

Attractive shoes

당신 것을 탐하는 여자

엘로 가죽 슈즈 13만9천 원 GOURMET

세 명의 이탈리아 아메리칸 디자이너가 모여 만든 브랜드로, 각각 DC Shoes, adidas, Supreme 등의 브랜드에서 경력을 쌓았다. 발목을 살짝 보이며 간결한 디자인에 강태함을 더했다.

가슴 부분이 오픈된 엘로 통 가격 미정 VOV
블랙 언더웨어 7만5천 원 GUESS
용수철 모양의 밑창 3만6천 원 9999
진주 펄백 골드 핏트 모두 가격 미정 orsis
3줄 실버 구슬 끈백 6만8천 원 CLUB MONACO
형상색 플라스틱 반지 1만9천 원
해달 프린팅 브로치 1만2천9백 원 모두 9999
시스루 블랙 레깅스 2만8천 원 FOREVER 21

BY 조진희 PHOTOGRAPHS BY 김민, RETOUCHING BY 이희하 HAIR BY 김아미 MAKEUP BY 김민 ASSISTANT S. 이현, 세진, 정민, 정지
COOPERATIONS GOURMET (02-3446-7725) address, A.P.C. LACOSTE, GUESS, PUJARA(02-3447-7703), GUESS, PUJARA(02-314-0693), FOREVER 21(02-3444-7712), Ouck by @weishop, orsis(02-3446-9949)
CLUB MONACO, XX, PAPERNA, TOPGIRL(02-549-7764), 9999(www.9999.com), NEW BALANCE(02-3444-3730), 제이비이(www.jeibee.com), ipsa(02-6241-0833)

블루 & 레드 슈즈 10만 원대 adidas
자일 스트리프를 수 있는 블루 & 레드 매입 사이에 화이트
를 넣어 사진을 정화했다.

화이트 & 레드 스트라이프 티셔츠
6만9천 원 PAPA YA
블루 & 레드 7만4천9백 원 kai-aakmann
옐로 가죽 벨트 1만9천 원 TOPGIRL
손에 든 목걸이 가격 미정 orsia
어깨 위 모자 모양 브로치 2만 원.
파란색 원시 반지 3만3천 원
발에 낀 인형 펜던트 목걸이 3만9천 원
모두 999ing



향광 엘로 포인트 슈즈 14만9천 원 NEW BALANCE

CM1001 시리즈 중 하나로 일본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Tropical Sunset" 컬렉션 제품으로 아자수 시어로 저물
어가는 일대 분위기를 표현했다.

민트색 원피스 수영복 20만 원대 GIORGIO ARMANI
빛중 모양의 굵은 목걸이 4만2천 원 999ing



그린 캔버스 슈즈 11만9천 LACOSTE

캔버스 소재에 그린 컬러를 가득 채운 끈 하나 없는 편안한 제품으로 봄, 여름에 가볍게 신기 좋다.

체크 비키니 8만8천 원 A.P.C
스프링 모양의 팔찌 3만6천 원 999ing
팔찌 가격 미정 orsia



화이트 & 블루 라이플 슈즈 가격 미정 Quick by Geekshop

네덜란드 브랜드로, 기능성을 인정받아 1967년엔 국가 대표 축구팀에 제품을 공급했다. 스포츠 신발부터 캐주얼 슈즈까지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

골드 이어링 가격 미정 Igniss

여러 줄로 엮인 심바 반지

5만8천 원 CLUB MONACO

줄자로 곧 모양 낸 브로치 1만9천 원

심바 팔찌 3만5천 원

단추 펜던트 목걸이 2만5천원 모두 999inc

레드 포인트 슈즈 9만4천 원 PUMA

PUMA 3대 월드 레닝턴로 꼽히는 TX-3가 부활했다. 삼중일도 안창과 반사 소재는 당신의 발을 무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스튜디오 친목 담겨 있는 인스매 티셔츠

28688원 원 FOREVER21

복색 언더웨어 7만5천 원 GUESS

밝은 모양에 휴화 포인트를 준 목걸이 4만9천 원.

실버 팔찌 3만5천 원.

운동화 위의 눈동자 모양 브로치 3만 원 모두 009ing

엘리스 투레 벨치 2만5천원에 환 인터지컬리우드

골드 필피 가제 미장 orsa

컬리콜한 레깅스 9만9천 원 XIX



**ULTRA LIGHT
DAILY UV
DEFENSE**

SPF 50 PA+++

무향, 무색, 무오일
제품에 수분을 더했
다. 아이비리그 의학
연구진에 자문해 개
발한 제품으로 자외
선 차단 지수가 높
으면서도 순하게 발
려 매일 바르기 좋다.
30ml 425천 원대

**SUNSCREEN
ON FACE
ORIGINAL**

SPF 34+ PA++

자외선을 쬐겨내는
자외선 차단제가 민
감한 피부를 지켜주
고 라스팅 브라이트
피우다는 핏과 피지
를 흡수에 피부를 보
습보습하게 유지해준
다. 자연스러운 색감
이 피부톤 정리까지
해준다. 매일 챙기자
36g 1만5천 원
03 4



MONOCHROME

선별품을 세심히 바르면, 한 가지 톤으로 정돈된 깨끗한 피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얼룩진 가죽 따윈 젖소나 주자.



**CELLABEL
HOMME A.C.
OCEAN COLOR
SUN BALM
SPF 50+
PA+++**

자외선 차단 기능에
피부톤을 보정해주는
컬러 로션 기능을 더
했다. 물에도 쉽게 지
워지지 않으니 민방
을 꼭꼭 숙이기 좋다.
50ml 2만8천 원
이저함

**HOMME AQUA
SUN BLOCK
CREAM
SPF 50+
PA+++**

자외선 차단제에 일
반적인 특징인 끈적
임 대신 시원함을 전
사하는 제품으로, 해
양 성분수 성분이 거
칠어진 피부를 촉촉
하게 유지 시키고 다
공성 마무리가 변들
거품을 진다. 43g
1만8천 원
SUN 79 HOMME





**RG II FOR MEN
SPF 50+
PA+++**

자외선 차단제는 게 아니다. 함께 들어 있는 홍삼 성분과 10가지 한방 성분이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칙칙한 피부를 환하게 바꿔준다. 80%의 자연 한 클렌징을 함께 중장하나 물로 잘 지워지지 않는 자외선 차단제도 흔적 없이 지울 수 있다.
90ml 228천 원에
다나한



**SUN SPF 25
BODY SPRAY**

끈적한 자외선 차단제를 단 한 방울도 손에 묻히지 않고 바를 수만 있다면? 360도 회전 가능한 스프레이 형식은 당신을 몸구석구석을 만족시킬 것이다.
150ml 42천 원
CLINIQUE



**SUN MATE
LEPORTS
SPF 50+
PA+++**

땀이 많이 나는 운동이나 풀놀이 하는 날도 걱정 없다. 더뭉쳐 피부로 흡수되어 물에 잘 지워지지 않으며 지속력도 높다. 유해 산소를 중화하는 각종 성분은 피부 방어력을 높여 건강을 지켜준다.
70ml 3만 원 HERA



**EVERY DAILY
SUN BLOCK
SPF 50+
PA+++**

일래스카 빙하수가 피부 속 수분을 채우고, 워터하이드로와 자외선 차단 성분들이 민감한 피부를 보호한다. 일로에가 피부 열기를 진정시켜주는 것은 기본.
80ml 2만 원에 IPKN

PERFUME OPENS HER HEART

검정 망사 스타킹을 신은 그녀는 당신 향에 취해 흥분하기 시작했다.

ARMANI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ARMANI 슈트 이미지 그대로인 향으로, 1984년에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사랑받는 제품이다. 시트러스의 활기찬 향은 따스하고 부드러운 우디 계열 향으로 남는다.

50ml 72,5천 원, 100ml 10만 원 Eau pour homme



JOHN VARVATOS

달콤한 캐리멜색 등나무로 짜여진 걸음판으로도 여자의 마음을 녹이기 충분하다. 감귤류와 허브향의 조화가 상큼하면서도 따스하다.

75ml 72,5천 원, 125ml 102,5천 원 AFTER SHAVE



ESTÉE LAUDER

미색도 섞이지 않은 투명한 병은 바닥에 숨겨진 앙금만 오렌지 빛을 드러내는 순간 속내를 드러낸다. 부드러운 호박 향기가 뜨거운 남성성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다.

50ml 7만 원, 100ml 102,5천 원
Intuition For Men Cologne Spray



CHARRIOL

이탈랜드 코디 벨트족의 섹시 문화를 영감을 얻은 게이بل 장식 병은 당신을 신뢰 속 주인공으로 만든다. 그린 잎과 레몬의 부드러운 향으로 시작으로 꽃향기를 거쳐 매혹적인 허스크 향으로 마무리한다.

50ml 62,5천 원, 100ml 92,5천 원 CHARRIOL Eau de Cologne

DAVIDOFF

자연의 순수함을 담은 병에 상쾌함을 가득 채웠다. 프레쉬 시트러스 우디 계열의 향이 밀림 속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50ml 62,5천 원, 100ml 82,5천 원
ADVENTURE EAU FRAICHE



POLO RALPH LAUREN

브랜드처럼 향기도 묵직하다. 간지러운 꽃미남은 절대 흥내 낼 수 없는 남성적인 향은 가죽 케이스에 담겨 한층 더 고급스럽다.

118ml 82,5천 원, 233ml 25만 원
polo modern essence



DSQUARED2

은은하면서 신선한 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관능적이고 따뜻하게 변한다. 아찔한 유리 병을 감싸는 나무는 디자인이 단과 단 형제 고향 캐나다 록키산맥에서 자란 루브라 오리나무.

30ml 62,5천 원, 50ml 72,5천 원
100ml 102,5천 원 HE WOOD



GUYS WONT SECRET THEIR

남자가 빠져드는
장난감의 매력!
당신을 사로
잡는 그녀들의
MAGIC!

BY 국경의 WORDS BY 백상우, 임기훈 PHOTOGRAPHS BY 백윤 RETOUCHING BY 백윤, 장기수 HAIR 루리 MAKE-UP 송진주(아름다운 굿나잇) ASSISTANTS 권혜진, 서민정, 조정민

COOPERATIONS *모든 피규어는 KINKI robot으로 실제 사이즈와 다릅니다. KINKI robot(www.kinkirobot.com)

CLUB MONACO, CONVERSE, XIX, TOPGIRL, 96NY, O'2nd, LUCKY GOLD FISH by MOSAIC, PAPAYA(02-546-7764) HLR, Namu by namuhana(02-511-8158) adidas(02-3447-7701) codes combine,

Kai-aakmann, Calvin Klein Underwear, VDV(02-3446-7725) ilmostreet.com(02-514-0693) 서유(02-498-8500) Gaia(02-3447-1098) 미팅엔터테인먼트(010-4759-5857) Liful(www.liful.co.kr)

fleamadonna(www.fleamadonnashop.com) 999ing(www.999ing.com) W. PLANET(www.w-planet.net) WESC(www.wesc.or.kr)



한신화

레드 목걸이 개당 805천 원
LUCKY GOLD PSH by MOSAC
핫 핑크 텀브름
7만7천 원 teamadonna
블랙 리본 벨리 529백 원 W. PLANET
블랙 반지 가격 미정 골드 핑크 802천 원 모두 HR
골드로 포인트 주 블랙 레깅스
2288천 원 미향2010(테안먼트)
핫 핑크 뒷 굽이 포인트인 스텝 2282천 원 O 2nd



송지은

블랙 팬던트 목걸이

17만9천 원 W. PLANET

핫 핑크 름

12만9천 원 PAPA

핑크 언더웨어 8만8천 원

Calvin Klein Underwear

시스루 점프 슈트

31만 원 adidas

슈즈 에디타소장

반답다. 새롭게 태어나는 MAXIM의 화보 주인공이 됐다.

우리의 MAXIM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 이번이 세 번째 화보다. 열일만 나오는 화보, 한경 캠페인 화보였으니 제대로 된 화보는 이번이 처음인 듯싶다.

(Magic)의 반응이 좋다. 기분이 어떤가?

기대했던 것보다 반응이 좋아 만족스럽다. (I Want You Back) 시 절에는 50위권에서 머물러 민망하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목표인 (인기가요) 'TAKE 7'에도 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시크릿이란 이름은 누가 지어준 것인가?

우리를 모아주신 소속사 이사님의 의견이었다. '플로라' 같은 후보도 있었는데 '시크릿'이 우리에게 더 어울린다는 결론이었다.

플로라보다 시크릿이 훨씬 낫다. 하지만 시크릿이라는 이름처럼 가요계에서 조용히 물결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로 가기에 대한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선풍가 각종 예능 출연 등으로 고군분투하여 시크릿을 알려준 덕분에 생계형 아이돌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선풍가 카라의 한승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다른 멤버들은 예능 출연 계획이 있나?

그런 말 많이 들었다. 다른 멤버들은 당분간 본인인 노래와 춤에 시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힘든 예능을 잘 소화해 내는 선풍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됐다.

보통 예능에서 인지도를 높인 멤버가 이른바 센터 자리를 맡게 된다. U-KISS의 동효가 대표적인 예다. 그런데 시크릿은 리더인 효성이 중심에 위치해서 끌고 가는 느낌이다.

이번 (Magic)의 콘셉트에 충실할 뿐이다. 효성이 파워풀한 안무나 합창적인 느낌을 살리는 데 강점을 보이기 때문에 적합하다.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기 때문에 팀워크가 유지될 수 있다.

여자 아이돌 내부에서 신경전이 없을 수 없을 텐데? 그런 연유로 깨진 팀도 있다.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네 명이 모이다 보니 당연한 의견 충돌은 존재한다. 하지만 네 명 모두 직접적인 말로 푸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한다. 팀이 결성된 지 두 달 만에 데뷔해서 (I Want You Back) 시절 안무 호습이 서로 달라고 고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합숙을 계속하면서 지금은 가족만큼 가까운 사이가 됐다.

가까이 지내는 동료 연예인이 있나? 선풍가는 예능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휴대전화도 없다. (웃음) 회사에서 5년 동안 남친 친구와 음주를 금지했다. 휴대전화는 1주일 2번 하면 물어준다곤 했는데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 자주 연락하고 친하게 지내는 동료 연예인이 없다. 우리끼리만 본다.

20대 초반인데 제약이 많은 실을 실다 보면 답답하기도 할 텐데?

물론 친구들과 놀고도 싶고 가족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답답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것이다. 가수로서 더 인정 받는 것이 당장의 목표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아름답다. 플로라였다면?

먼저 팀으로는 GOD처럼 통편하면서 곡진 그룹으로 자리매김하고 싶다. 그리고 한국의 여자가수라면 누구나 이효리를 꿈꿀 것이다. 무대에서 여성스러우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 예능에서 탈털하고 친근한 매력을 모두 갖춘 수 있는 점이 부럽다.

이상형이 있다면?

징거는 소지섭, 비 같은 근육질의 남자를 좋아한다. 다른 멤버들은 강동원의 팬이다. 효성은 강동원에게 시인도 받았다. 추가하지만 각자의 이상형이 물어보는 것을 다 대답해줄 수 있을 만큼 똑똑한 남자. 여자한테는 우관심하면서 나한테만 관심 있는 남자, 자상한 남자 등이 있다. 청바지에 흰 티셔츠가 잘 어울리는 남자였으면 좋겠다. 키는 우리보다만 크면 된다.

가장 궁금했던 질문부터 각자에게 질문하였다. 먼저 징거는 왜 징거인가? 햄버거를 좋아하나?

대부 전에 출중한 시절부터 써 온 이름이기도 하고 후시켓들의 니콜 세르장게아에 따온 것이다. 영어로 재지 않는 말이라는 뜻과 야구의 강속구를 뜻하기도 한다. 햄버거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 물론 CF 기회가 온다면 기꺼이 하겠다. (웃음)

효성은 '오소녀' 출신이라고 들었다. 유빈, 우이와 친한가?

엘리트 실 무렵 준비하다가 헤어졌다. 유빈 언니가 가장 먼저 원더걸스도 가게 되고 마지막에 유이 언니와 나 단둘이 남았다. 둘이서 3년 이상을 함께 살았다. 불한한 시절이었지만 유이 언니가 애프터스쿨로, 내가 시크릿으로 합류하면서 잘됐다. 지금도 만나면 정말 반가워한다.

선풍가는 실제로 구구단에 약한가?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갑자기 구구단을 물어보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처음에 틀리고 나니까 재미있어서 그 콘셉트를 유지하게 됐다. 이미지가 굳어지면 제약이 있을까 걱정했는데 이번 (Magic) 활동이 변신의 기회가 됐으면 한다.

지은은 노래를 참 잘한다.

머리아이 캐리가 우상이다. 물론 지금은 실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연습량도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대학도 딱한 군데 지원했다가 예뻐 3번으로 떨어지고는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다. 지금은 가수로서 인정받는 것이 우선이다.

마지막으로 시크릿만의 비밀이 있다면?

우리의 시크릿이라면 대중에게 마치 다 보여주지 못한 매력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추구하는 음악과 더불어서 다양한 활동들 통해 즐거움을 선사하고 싶다. 열심히 하겠다. MAXIM 독자들도 지켜봐달라.





전효성

호피 무늬 목걸이 242,9천 원, 블랙 반지 5만천 원 모두 W. PLANET

화이트 톱 128만 원 Gae

블랙 가죽 팔찌 19만 원, 실버 팔찌 10만 원 모두 HR

호피 패턴 레깅스 가격 미정XX



전용상: 연두색 신메르스 2299원 원 SUPER by LUM 인트. 컬러 목걸이 10만 원 HR 리플 티셔츠 2299원 원 CONVERSE
장가: 블루 베드로 1529원 원 WESC 베스트 프랑켄의 화이트 티셔츠 1129원 원 90% 블랙 반지 5242원 원 W. PLANET

원선화: 블랙 목걸이 8299원 원 W. PLANET 입술 프라임 티셔츠 3299원 원 미향연태안면보
송지은: 진주 목걸이 1529원 원 900% 기가 티셔츠 3299원 원 imostreet.com



장거

블랙 & 화이트 스트라이프 티셔츠 728천 원
주요리 프락킹 레깅스 1425천 원 teamodona
실버 반지 189천 원 화이트 가지 가리 아장모두 999원
블랙 반지 42천 원 W. PLANET
해금대양 쿠데 장식 팔찌 15만 원 HR
실버 팔찌 가리 아장 블랙 & 골드 팔찌 426천 9백 원
모두 W. PLANET
골드 슈즈 2208천 원 codes combine



송지은

오렌지 컬러 튜브를 정가 102,500원 원 Kai-akmann
컬러풀한 일찌 29,500원 원 99ing
블랙 & 골드 일찌 42,500원 원 W. PLAK



한선화 - 골드 목걸이 가격 미정 W. PLANET 그린 튜브톱 원피스 에디터 소장 원석 팔찌 20만 원 HR 피플 수즈 43만 원 시우

전효성 - 크리소딜 목걸이 6만9천 원 VOV 블랙 가죽 팔찌 에디터소장 민소매 티셔츠 12만8천 원 CLUB MONACO 스츠 가격 미정 VOV 골드 수즈 장식 가격 미정 시우 골드 수즈 22만8천 원 codes combie

징거 - 메시 소재 민소매 티셔츠 가격 미정 VOV 실버 목걸이 6만9천 원 VOV 골드 & 블랙 레깅스 7만 원 teamadonna 실버 수즈 장식 가격 미정 시우 라이트 그레이 수즈 30만 원 Nemu by namuhana

송지은 - 옐로 원피스 4만5천 원 미향엔터테인먼트 레드 수즈 43만 원 시우



바른타이어
바른서비스

한국타이어



부드러운 남자는 거울 같아서야 좋아
세계상의 모든 레저우스를 위해 ...



HANKOOK
driving emotion

대표전화 080-022-8272 hankooktire.com

부드럽고 정숙한 **XQ OPTIMO nova**

정숙성과 승차감에 조종안정성능이 채용되어
탑그레이드인 프라임 타이어의 명작입니다

STYLE

권영주
(22, 사업 준비 중)
베스트 & 슈츠 빈타지 서츠 ELOO
타이 Rome Tie 팬츠 BEAN POLE
양치 CK 넥 MARC JACOBS
백화점 스트리트 슝

정보람
(26, 패션과 학생)
코트 BURBERRY 티셔츠
스트리트 슝 팬츠 H&M 양치
TISSO 넥 ROOKIE BUD
백화점 명동

차인철
(30, 홍보대행사 직원)
네오비 슈트 TIME 크린 카디
긴 니코 셔츠 Neil Barrett 슈
츠 NUMBER (N)INE
백화점 아가자기

성상영
(23, 비영)
셔츠 & 팬츠 Beyond Closet
넥 MCM
백화점 명동

CHAD
(29, 모델 및 포토그래퍼)
재킷 & 셔츠 BON 팬츠 빈타지
백화점 아가자기

김민석
(21, 학생)
안경 Ray Ban 재킷 & 니트
스트리트 슝 머플러 FENDI 넥
Joseph 팬츠 CHEAP MONDAY
슈츠 TOMS
백화점 A-LAND

I Like
UR STYLE

서울 패션위크가
열렸던 날, 무대
밖에서도 패션쇼
가 열렸다.

정영진
(27, 학생)
선글라스 ISSEY MIYAKE 보타
이 BELL & NOUVEAU 재킷 & 셔
츠 POLO 팬츠 스트리트 슝 슈츠
adidas 넥 FREITAG
백화점 아무데나

백화점 = 쇼핑 장소

BY 권해진, 석민정, 조창민 PHOTOGRAPHS BY 김두훈 ILLUSTRATION 조창민

이동현
(20, 학생)
모두 스트리트 슝 신발 Dr. Martens
☑ 광장 시장



차승민
(25, 의료 매장 STAFF)
재킷 빈티지 팬츠 CHEAP MONDAY
슈즈 RED WING
☑ UNIQLO

이동욱
(24, 모델 & 디자이너)
재킷 & 티셔츠 & 슈즈 & 백 스트리트 슝 셔츠 TK
팬츠 CHEAP MONDAY
☑ 아무데나



김수민
(22, 모델)
셔츠 & 오자 & 벨트 & 가방 빈티지
시계 CASIO 팬츠 동대문 슈즈 adidas
☑ 빈티지 슝



이승준
(25, 오토쿠)
안경 VIKTOR & ROLF
셔츠 COVERNAT
티셔츠 & 팬츠 COMME CA ISM
신발 GEORGE COX 양말 UNIQLO
☑ 양구정동, 스트리트 슝

김민수
(21, 학생)
안경 OLIVER PEOPLE
점프 슈트 HENRIK VESKOV
☑ 백화점



윤철
(31, 프리랜서 디자이너)
신글라스 JEREMY SCOTT
키디건 H&M, 티셔츠 & 팬츠 자재
제작 슈즈 REEBOK
☑ 양구정동, 명동



전영재
(19, 학생)
모두 스트리트 슝
☑ 광장 시장, 문라인 슝



INDA CLUB!!



Touch Me Party
If You Can

BY 권재진, 강민애, 김희성, 박성우, 서민경, 임기환, 조영찬
PHOTOGRAPHS BY 김도훈, 최진국
COOPERATIONS GOA LIMITED(www.goalimited.com),
CLUB MASS(www.clubmass.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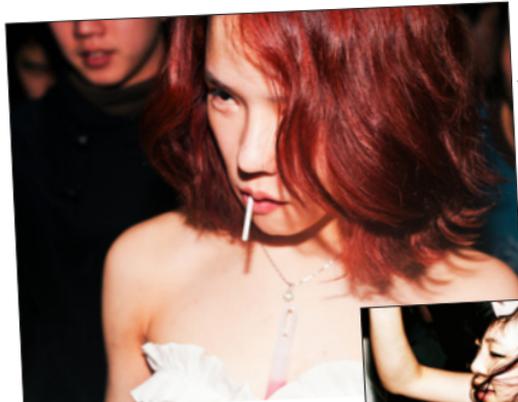


I'm a
Handsome
Boy



BuBi
BuBi





ICON Ahn Sung Gi

BY 이혜미
PHOTOGRAPH BY 빅토

재창간호 인터뷰 주인공으로 모두 조금의 망설임 없이 안성기를 곱았다. 커미도 잡지도 역시 MAXIMUM이니까

축구를 좋아한다고 들었다. 포지션은?
포지션 같은 거 없다. 요샌 축구 안 한다.

축구계를 은퇴한 건가?
축구는 골 먹으면 약 오르고 상대가 과격하게 덤비면 격해지고 사이다로 붙는다. 그래서 사회인 축구라도 부상의 위험이 있었다. 다리가 막 날아오고 그런다.

셀마 당신도 조기 축구하다가 험악 울리며 싸우는 여자씨 중 하나인가?
셀마는 개성 넘치는 배우가 많다. 예전엔 배우 수자가 적었는데 지금은 폭이 넓다. 환경도 좋아졌다. 군사 정권 시절엔 표현을 제약을 받는 불행했지. 배우들 '이성 한 사람'처럼 보는 시선도 있었고, 게다가 영화 내용도 사람 얘기가 대부분이고 극적 불명의 영화가 많아서 영화가 존경 받지 못한 시절이었다. 지금은 제작 규모도 크고 표현 방식도 무한하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어떤 소재든 다룰 수 있다. 세계 속 한국 영화의 위상도 높아졌다.

과거와 비교해 지금의 배우와 영화 주변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에 개성 넘치는 배우가 많다. 예전엔 배우 수자가 적었는데 지금은 폭이 넓다. 환경도 좋아졌다. 군사 정권 시절엔 표현을 제약을 받는 불행했지. 배우들 '이성 한 사람'처럼 보는 시선도 있었고, 게다가 영화 내용도 사람 얘기가 대부분이고 극적 불명의 영화가 많아서 영화가 존경 받지 못한 시절이었다. 지금은 제작 규모도 크고 표현 방식도 무한하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어떤 소재든 다룰 수 있다. 세계 속 한국 영화의 위상도 높아졌다.

후배 배우 중 가장 아끼거나 편으로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음... (긴 침묵)

"그냥 다 예쁘다"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그렇게 얘기했어야 했는데. 아, 이거 너무 정치적이었던가.

당신은 좋은 배우이자 훌륭한 인격자다. 하지만 지금에 이른 것은 당신에게 어느 정도 독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닐까?

글쎄, 내가 걸으려는 부드럽지만 사실은 냉정하고 고집스러운 면도 있다. 예를 들면 영화와 무관한 일은 관계를 끊고 쳐내

면서 왔다는 거지. 오로지 영화에만 집중했으니까.

그런 것치고는 위관장직을 아주 많이 맡았다. '뽕' 자리에 욕심 있나?
그냥 떠밀려서 한다(웃음). 지금 아시아나 국제영화제 위관장을 하고 있다. 올해 8회째인데 젊은 감독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즐겁다.

당신은 욕도 안 하고 회도 안 낼 것 같다. 밑마다 욕두문자를 어미로 붙이고 화내는 사람들 있지? 난 그러진 않는다. 말수가 적어지고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는 게 화났다는 표시. 근데 가끔 나도 혼자 운전하다가 화가 났을 땐서 혼자 소리 지를 때도 있지.

해본 욕 두 가지 선택 욕은?
아이고, 그런 말은 하면 안 돼(웃음). 그 날 일반인과 사람이 쓰는 수준?

모든 작품이 사랑한 건 아니냐.
권투 선수로 치면 70전~40승~뒀. 한 10유~20유? 흥행이 안 돼도 다작(다작)했어도 그때에 일화(일화)비치지 않는다. 영화를 사지한 70~80년대엔 대체로 우리 영화 흥행이 잘 안 됐고 시장도 작으니 흥행 별로 신경 안 댔다. 요즘엔 매스컴이 우루루 관심을 몰다가 갑자기 시그리하지나 흥격이 더 크다. 음, (메이리브)가 예상보다 관객이 적었는데 그렇다고 우울하진 않다. 흥행이 안 되고 평가가 나쁜 것보다 더 우울한 건, 평가 자체가 없게 자기가 하는 거다.

《페어리브》가 흥행이 아주 잘 될 만한 영화는 아니었나?

물론. 그러나 얘기가 재미있고 새로운 스타일이니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페어리브》의 이하나 씨처럼 당신을 '성기 오빠'라고 부르던 흥행에 대한 아쉬움이 눈 녹듯 사라질 거다.

하지 마라. 이하나씨가 나를 오빠라고 부르는데 무슨 썩스러웠다.

상을 무척 많이 받았다. 이제 상을 받아도 덤덤할 것 같다.
그치. 상 받으든 눈물도 나고 그럴 텐데 나는 처음부터 덤덤했던 것 같다. 수상 소감에 감동도 없고, 80년대엔 경쟁자가 많지 않았다. 뭐 내가 봐도 내가 받을 것 같은 상이었었고(웃음).

잘못하면 "이 상을 당하면 내가 받을 줄 알았다" 이렇게 보일 텐데?
요즘은 배우가 많잖아. 이 배우도, 저 배우도 괜찮으니 어떤 작품에서 누가 맡지 모르는 거다. 예전에선 상황이 다르니 내가 많이 됐다. 그러나 상을 받는 것보다 영화에 소년 많이 쓰는 게 훨씬 즐겁다.

굿아우터 캠페인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성과가 있나?

전보다 확실히 좋아졌다. 당장은 값싼 불법 자료를 다운로드하지만, 그에 콘텐츠에 대한 투자 회수나 장단한 성과 평가를 어렵게 하고 결국 투자 자체를 막는다. 지난 2~3년간 가장 힘든 게 돈 문제였다. 극장은 괜찮는데 그 다음 시장인 DVD, TV 배급 등의 경력이 막혔다. 극장에 올린 작품 중 절반에야 10%가 소비자들에게서에서 무조건 승부를 내야 하니깐 굉장히 힘들다. 요즘 합법 다운로드 덕분에 지금 상황이 나아졌다. 제작비도 내려가면서 영화 제작 편수가 올라가고 있다.

굿아우터 캠페인 포스터 촬영할 때 우리나라 틀스타들이 전부 다 모였다.

12명이 모였는데 너무 많이 모이면 촬영하기도 힘들고 해서 우리가 쓴 사람 몇 명은 짧았다.

누가 잘했나?
채태연 같은 경우는 입이 쪽 나왔지. 왜 지릴까 모르네.

안성기 하면 커피 맥심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커피는 정말 맥심만 마시나?
아침의 시작은 무조건 커피 맥스(웃음).

안성기의 가족 사진 속 아들의 외모에 많은 네티즌이 감동받았다. 그래도 솔직히 본인이 아들보다 낫지 않나?
그렇지 않다. 지금 내 아이라서 내가 낫다고 하는 거지? 나도 아바님들 만나면 "아들보다 아바님 인물이 더 낫다"고 한다.

들켰군. 영화 《아바타》를 보았나?
그게 최근 극장에서 본 마지막 영화다. 미국인들은 아니지만 우리라도 시장과 능력어 충분하니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감동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중요한 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다.

시나리오가 좋은 '나비죽' 분장도 할 용의가 있나?

음, 아바타 분장은 그래도 괜찮다. 골똘은 곤란하지만, 교감과 감동을 불러일으킨다면 모습은 중요하지 않다.

배우에선 재능과 노력만큼은 오히려 필요할 것 같다.

중요하다. 무턱대고 기다리는 운이 아니라 열심히 한 다음에 기대하는 운 말이다. 특히 젊을 때는 워드 열심히 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워너? 그럼 술도 기왕 마시는 거 끝까지 열심히 마셔야 하나? 이거 너무 심다.

어, 워? 술은 조금 덜 열심히 해도 된다.





불러 숨겨 가려 이질 INTERMEZZO
불러 시은 X만 말려 AYA MORIE

ICON

BY BREKKE FLETCHER
PHOTOGRAPH BY JOHN MIDDLEY

Michael Douglas

마이클 더글라스가 1980년대 월가의 냉철한 기업 사냥꾼 고든 게코로 돌아왔다. 리비도는 여전했다.

〈월스트리트〉1편에서 들고 나온 거대한 휴대폰이 아직도 생생하다.

신작 〈월스트리트:머니 네버 슬립스〉도 일부에 그 휴대폰이 또 등장한다. 고든 게코가 복역 후 감옥에서 나올 때 소지품을 간수가 돌려주는데, 그중 하나가 그 냉장고 폰이다.

속편에 출연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내가 연기한 캐릭터 중 시대를 아우르는 전형을 꼽으라면 단연 고든 게코다. 사실 3년 전쯤 각종 스캔들로 내 주변이 엉망일 때, 고든 게코를 한재로 불러오면 상황을 반전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 관객도 1편이 나온 22년 후의 모습을 보는 걸 꽤 즐거워할 거다.

〈원초적 본능〉의 속편 출연 제의는 거절했던데.

보면 일주일 내 안 영명이네 이미 1편부터 처져 있었다.

음, 그런 건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다.

섹스와 영화는 떼서 생각하기 힘들다. 사람들이 〈폭로〉, 〈위험한 정사〉, 〈원초적 본능〉 3부작과 나를 동시에 떠올리는 것도 어찌된 당연하다. 내가 꽤 질렸으니까, 특히 〈원초적 본능〉 덕을 봤었으니 사본 스톤에게는 감사의 인사를 해야겠지.

고든 게코는 늘 여러분을 매끈하게 울먹게로 남긴다. 도대체 뭘 쓰는 건가?

“몰 미셀”이란 헤어 제품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이다. 정말 좋다! 그런데 그게 뭘지는 정확히 모르네.

올리버 스톤 감독과 다시 작업해서 좋았나?

그는 재능이 있고 성세한 사람이다. 연기자를 시험에 들게 하고 그 자신도 함께 밀어붙이는데, 그 과정은 예측 불가능하며 매우 흥미롭다. 가끔 논쟁을 벌이긴 했지만 시이는 좋았다.

상대역 사이아 라보프는 1편에서 찰리 신이 연기한 버드 폭스와 비슷한 백역을 맡았나?

비슷하다. 아, 두 달 전 사이아가 뉴욕에 와서 월가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만날 일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점심값을 모아 2만 달러를 그에게 줬다. 사이아가 그 돈을 뭘 하지는 몰랐고 그랬잖아. 그런데 사이아가 8주 만에 2만 달러를 38만 달러로 불렀다. 소액 투자로 말이다! 그는 돈을 굴릴 줄 아는 기만한 사람이다. 약간 거친 구석이 있지만 프로그램만큼은 확실하다. 난 그가 맘에 든다.

사이아와 찰리가 실제로도 비슷하니까?

둘 다 비밀이 많다. 사이아는 지금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찰리는 게 좋은 거지. 그 나이엔 파티도 즐기고 허세도 부리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가져야 한다.

“**내 영명은 이미 〈원초적 본능〉 1편부터 처져 있었다.**”

2009년 〈솔리타리 맨〉에서 여자를 몹시 밝히는 남자를 연기했다. 그 역할의 어떤 매력에 당신을 끌었나?

대본이 맘에 들었대! 영화 내내 이 남자는 다른 사람들이 그저 상상만 하는 일들을 실제로 저지른다. 안전망 없이 비행하는 위험함이 내 원동력이다. 뭔가 색다른 걸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요즘 코미디 영화를 많이 봐나?

글쎄, 내 몸속에 코미디언의 피가 흐른다고는 내가 코믹한 연기를 잘하는 것 같다! 사실 코미디 배우는 인정받기 어렵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코미디가 아닐까.

당신은 9세, 7세 애들을 둔 65세 아버지

다. 놀이터에서 애들이랑 놀아줄 때 힘들진 않나?

애들도 내가 다른 아버지들 좀 다르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 가끔 나를 올려다보며 “이빠는 몇 살이야?” 라고 물어본다.

당신 아버지(키코 더글라스)는 93세인데도 여전히 정장하다.

작년에 아버지는 1시간 30분짜리 원맨쇼 공연도 했다. 여전히 건강하다. 나나 우리 어머니는 정말 복이 많다.

젊은 대니 드비토와는 어떻게 만났나?

대학 시절 1967년인가. 1988년에 오늘날 전국 극작가 연합에서 미러화나를 하다가 친해졌다. 지금 그는 데어미리칸 그 때는 머리가 정말 길었다. 뉴욕에서는 같

이 싶었다. 그와 나는 진짜 오랜 친구다. 그는 내가 뭔가 이랬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네.

워런 비티가 쓴 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진짜로 같이 잔 여자의 수가 1만3천 명이 남나?

그는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르다. 그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지금도 최고로 매력적인 남자다.

마이클 더글라스에 대한 책이나 자서전은 안 나오나?

아, 벌써 몇 권 나왔다. 그러나 난 여자를 이랑 관계 맺고 이를 화제거리로 만드는 길에 전혀 관심 없다. 진짜다.

유명한 게이 피아니스트 스타 리버레이스를 연기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스타본 소데버그가 감독을 맡을 거다. 제 작은 놈 아닐걸 것 같다.

맷 데이먼이 당신 에이전트 나온대는데, 그럼 당신과 맷의 환한원 베드신을 기대해도 될까?

기대해도 좋다.





BROWN BREATHE

기본적인 라인의 의류와 백팩이 인기를 끄는 셀렉트 스텝으로,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기도 한다.



DARE TO BE RARE

의류, 액세서리 뿐 아니라 인테리어 소품까지 다양한 한 빈티지 스텝.



HUMAN TREE

자체 브랜드 BA와 수인 브랜드 MSH-KA, KNOWLEDGE, THRASHER 등도 판매한다.



LIFUL

자체 브랜드 LIFUL과 수인 브랜드 CHEAP MONDAY, KANGOL, PENFIELD를 함께 판매한다.



Incase

아이폰이나 맥북과 어울리는 다양한 소재의 디자인 제품을 만날 수 있다.



WORKSOUT

CARHARTT, Brixton, EASTPAK, RVCA 등 다양한 브랜드를 접할 수 있다.



IT'S ON MAXIMKOREA.NET

당신이 옷을 사야 할 곳은 바로 여기! BY 권해진, 서민정, 조영민



GOVERNAT

기본적인 의상에 변화를 주어 통암인애 어울리는 피트 감을 선사한다.



FUCCFAKE

스트리트 브랜드와 패션 브랜드를 함께 쇼핑할 수 있는 스텝.



FLOW

유럽과 일본의 최소성 있는 브랜드를 소개하는 캐주얼 편집 스텝.



H&M

세계 최대 패스트 패션 브랜드 중 하나로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이 다양하다.



holics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의 디자인 브랜드와 하우스 브랜드의 안경을 만나보자.



LEVEL 5

한 건물 안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의상을 둘러볼 수 있는 멀티 스텝.



MAXIM MAY 2010

정기 구독 신청 방법

MAXIM Korea 웹사이트(www.maximkorea.net)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웹사이트 하단에 있는 정기 구독 신청란을 클릭하거나 MAXIM Korea로 전화주세요.
Tel : 02-323-1182



유지컬 올숙업

날권(정가: 5,400원)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주문시 10% 추가 할인!

6개월 정기 구독

27,540원(15% 할인)+1000씩 적립+타이거 맥주 12캔(3만 원 상당)

12개월 정기 구독

51,840원(20% 할인)+2000씩 적립+디퍼블 콘서트 티켓 1장(1만 원 상당)

24개월 정기 구독

97,200원(25% 할인)+4000씩 적립+유지컬 (올숙업) R식 티켓 2장(18만 원 상당)

- 시은품은 조기 품절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디퍼블 해안공연

e - MAXIM 정기 구독

책값의 5분의 1 가격으로 영상 콘텐츠와 MAXIM 미공개 화보까지 한꺼번에 보려면?
www.maximkorea.net에서 회원 가입하고 E - MAXIM을 즐기세요!

날권: 990원

6개월 정기 구독 = 5,350원(10%할인)

12개월 정기 구독

정기구독15% DC + 타이거 맥주 6캔(1만5천원) + 1000씩 적립 = 10,100원

24개월 정기 구독

정기구독20% DC + 유지컬 올숙업 VIP식 티켓 1장(9만원) + 2000씩 적립 = 19,010원

- 시은품은 조기 품절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책』은 www.maximkorea.net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회원 가입 시 100% 친구를 가입시킨 추천자에게는 300% 추천한 친구의 아이디를 적으면 해도 200%를 적립해드러니 지금 바로 책의 향연을 시작하십시오!



타이거 맥주



MAXIM 독자 모델 응모 GIRL NEXT DOOR

내 다리가 더 예쁘다. 화장발, 조영발 받으면 내가 재보단 낫지!

MAXIM 화보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하는 여성은 이리 오십시오! 하루품은 MAXIM 표지 모델처럼 핀타스틱한 화보 촬영장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여성도 이리 오십시오!

MAXIM이 2010년 6월부터 'Girl Next Door', 일명 '염지 여자' 코너에 등장할 여성 독자를 찾아서 화보 촬영의 기회를 선사합니다.

꼭 MAXIM 독자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수컷 독자들께서는 주변에 우수한 처자가 서식하고 있거든 꼭 설득해서 신청하게 만드십시오! 혼자만 보면서 즐거워하지 말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즐거워하자는 야입니다.

Girl Next Door의 주인공으로 선정된 분께는 쓸쓸한 선물과 함께 소정의 모델료를 지급합니다. 자, MAXIM의 특급 스튜디오와 전문 헤어/메이크업 디자이너, MAXIM 패션 에디터 그리고 국내 최고 수준의 포토그래퍼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model@maximkorea.net으로 사진, 연락처와 함께 신청 메일을 보내주세요. 단, 눈동자만 있고 코, 입이 없는 뽕삼질, 신원 확인 불가능한 사진은 사랑합니다. 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알려주세요!

SOUTH KOREA

MAXIM

www.maximkorea.net

**SOCKS UP!
LACE UP!**

멋진 양말
더 멋진 운동화

**SECRET IN
TOY BOX**

장난감 상자에 담은 상큼함
그룹 시크릿

Clubber's Fashion
Sun Block Lotion
Perfume

안성기

MICHAEL DOUGLAS
KAELY CUOCO
MAXIM TURKEY
IRONMAN
SICKEST SUPER CARS

5400원 RENEWAL 할인
4900원 - 500원

MAY 2010